2023 통권 55호

서울교육

서울교대 교지편집위원회

서울교육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서울교육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청춘은 우리의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
– 롱펠로우

사향지기 55호를 펴내며

드디어 사향지기 55호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이템 회의부터 시작하여 기사 작성, 디자인 작업 등 교지를 작업하면 작업할수록 어떻게 독자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면 좋을지 고민이 들고는 합니다. 이런 고민 속에 사향지기는 더 훌륭한 교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로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하는 사향지기의 의지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사향지기는 다시 찾아온 일상을 더욱 다양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서울교대의 소식, 올해 상반기의 교육 및 사회 이슈, 다양한 분야의 정보, 그리고 학우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단어와 문장 하나하나에 좋은 글을 위한 정성과 노력이 스며들어 있으니 교지를 읽으며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호의 표지에는 청춘의 푸릇푸릇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이든간에 독자 여러분들의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여름에는 내리쬐는 햇빛, 푸른 빛을 뿜어내는 나뭇잎, 그리고 그 아래에 더위를 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며 열심히 젊음을 즐기는 청춘인 여러분들이 더 잘 보이곤 합니다. 사향지기가 여러분들의 청춘 속에 자그마하게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사를 읽는 독자분들께서 호기심과 즐거움을 느끼거나, 또는 공감하고 위로받는 기회가 된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55호 교지가 무사히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먼저 더 나은 교지, 나아가 미디어센터를 위해 애써주시는 백재연 소장님과 실무에 큰 도움을 주시는 나화영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정말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완전히 되찾은 것 같습니다. 3월부터 대면회의를 통해 열심히 한 학기 동안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교지를 완성한 사향지기 부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처음 편집국장을 맡게 되어 부족한 면이 많았던 저를 믿고 응원해준 편집위원분들, 첫 기자 활동이 쉽지 않았을 텐데도 잘 따라와 준 수습위원분들 덕분에 힘을 내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교지를 찾아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향지기는 앞으로 더 유익하고 발전한 교지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서울교육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사향지기 27기 편집국장 홍다혜

Contents

CAMPUS 1

우리들의 소중한 모임, 소모임 ····· 10
새파랗게 살아있는 젊음, 즐거웠던 새내기 배움터 ····· 16
사향의 터, 캠퍼스 파헤치기 ····· 22
어린이날이 기다려지는 이유, 어린이 한마당 축제 ····· 28
미래형 창의 교사 양성, 국립대학육성사업이 책임집니다. ····· 34
동계 글로벌 인턴십, 그 생생한 현장으로! ····· 38
기억하나요, 당신의 한 학기 ····· 42

EDUCATION 2

교육전문대학원, 과연 최선의 결정일까 ····· 46
신비한 학급 경영 사전 ····· 52
우리가 바라는 영어교사는? ····· 56
미분적 사고를 갖춘 삶 ····· 60
초등학교 받아쓰기 교육 A to Z ····· 62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해도 괜찮을까요? ····· 66
고자질 하는 아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70

CULTURE 3

소비자와 개발자의 경계를 허무는 모디슈머 ····· 76
'O린이…'이런 말 싫어요! 세상을 향한 아이들의 외침 ····· 80
지금 이 순간에만 즐길 수 있는 전시, 놓치지 마세요! ····· 84
맛있지만 해로운 스낵컬쳐-'숏폼' ····· 88
서울교대, 그곳의 발자취를 따라서 ····· 92
타임슬립 시간여행! 서울 역사 구석구석을 걷다 ····· 96
이거 모르면 도태된다? 장안의 화제 챗 GPT ····· 100

TALKTALK 4

눈을 떠보니 내가 새내기? ····· 106
MBTI 환영? 환영(幻影)! ····· 112
응답하라 추억의 만화, 애니! ····· 116

INFO 5

만 나이 통일, 그럼 내 나이는 어떻게 될까? ····· 122
은반 위의 금빛 질주, 쇼트트랙의 모든 것 ····· 128
깻잎 논쟁에 매몰된 사회적 논쟁 ····· 134
글씨체를 통해 성격을 알 수 있을까? ····· 136

PEOPLE 6

들어는 봤니? #급식스타그램 ····· 142
커튼콜: 조국을 지킨 영웅, 안중근 ····· 146

SPECIAL 7

기자's pick! ····· 152
23학번 새내기를 소개합니다. ····· 156

2023 통권 55호

1

CAMPUS



우리들의 소중한 모임, 소모임

새파랗게 살아있는 젊음, 즐거웠던 새내기 배움터

사향의 터, 캠퍼스 파헤치기

어린이날이 기다려지는 이유, 어린이 한마당 축제

미래형 창의 교사 양성, 국립대학육성사업이 책임집니다.

동계 글로벌 인턴십, 그 생생한 현장으로!

기억하나요, 당신의 한 학기



우리들의 소중한 모임, 소모임

수습위원 김민아

한 번쯤은 '학교 다니면서 심화 전공으로 선택한 과와 관련된 방향으로만 학습할 수 있는 걸까?' 또는 '우리 과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 있는 새내기들 모두 주목! 지금까지 이런 모임은 없었다, 여기는 교대인가 동호회인가. 서울교육대학교 학생으로서의 삶을 한층 더 풍부하게 해 줄 소모임에 관해 파헤쳐 보자.



서울교육대학교에는 심화과정 선택 과목과 상관없이 과 내에서 자율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모임을 형성하고 활동하는 **'소모임'**이 있다. 이때 관심 있는 분야란 과의 특색을 살려 심층적인 탐구를 수행하는 분야가 될 수도 있고, 동호회처럼 흥미나 취미를 반영해 활동하는 분야가 될 수도 있다. 소모임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 학우들을 대상으로 모집과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아리'와는 달리 모임의 조직 및 진행이 과 사람들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과 내에서의 친목이나 분위기 형성에 있어서 소모임의 기여도는 상당하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서울교육대학교에서는 어떤 소모임이 운영되고 있을까?

유특 special 기도 소모임 (기도 소모임)

Q. 안녕하세요! 소모임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유특 special 기도 소모임'은 1~4학년 유아·특수교육과 대표 햇살들이 모인 기도 소모임입니다!





Q.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으며 일상을 나누고 각자와 서로의 삶, 우리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 교제하며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따뜻한 시간을 잠깐이나마 가져보기도 합니다.

Q. 소모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은 물론, 1~4학년 학생들이 함께 활동하기에 선배들의 학교생활 꿀팁도 잔뜩 얻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합니다.

Q. '유특 special 기도 소모임'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성찰하며 기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도 짝꿍, 신앙 챌린지 등의 다양한 활동도 계획 중입니다!

천둥오리 (밴드 소모임)

Q. 안녕하세요! 소모임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천둥오리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는 과학교육과 소속의 밴드 소모임입니다!

Q.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대중적인 노래, 힙합, 락, 추억의 노래, 밴드 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연습할 곡을 정한 뒤 함께 연습합니다. 대게는 공연 준비를 위해 다 같이 합을 맞추어 연습하지만, '스터디'를 꾸려 개인적으로 연습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스터디란, 시간이 맞는 인원들끼리 연습실을 예약해

베이스, 기타 등 평소 관심을 갖던 악기에 대해 서로 가르쳐 주거나 배울 수 있는 천둥오리만의 특별한 연습 시간입니다.

Q. 소모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동기들과 함께 연주해 보고 싶은 곡을 직접 정하는 과정부터 꾸준한 연습 끝에 곡이 완성되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연을 다짐했던 곡들이 무대에서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뿌듯함과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천둥오리'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계획된 여러 축제 무대에 참여할 예정이며, 거리제나 연합 공연 등 함께 연습한 곡들을 뽐낼 수 있는 자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J&G (호신술, 주짓수 소모임)

Q. 안녕하세요! 소모임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J&G는 기초 체력 향상 및 호신술, 주짓수 기술 습득을 목표로 하는 윤리교육과 소속 소모임입니다!





Q.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30분에 사향융합체육관 태권도장에 모여 호신술과 주짓수를 배우고 있습니다. 주짓수 경력이 있는 부원이 동작을 알려주기도 하고, 부원들끼리 서로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호신술 기술을 연습하는 등 활발한 소통을 기반으로 즐겁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주짓수'라는 종목이 생소한 스포츠 종목이기 때문에, 주짓수를 처음 접하는 학우분들을 위한 맛보기 훈련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소모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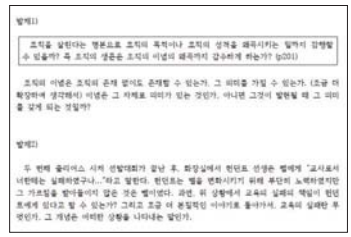
저희 J&G 부원들에게도 처음에 주짓수라는 스포츠는 매우 낯설고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실용적인 기술들을 함께 배우고 체력이 향상되는 것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맛보기 훈련 이후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주시는 분들 덕분에 소모임을 만든 것에 대한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J&G’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는 7명의 부원들이 활동 중이지만, 부원의 수가 더 늘어난다면 동아리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후 동아리 지원금과 회비로 개인 도복이 없는 학우분들을 위한 대여 도복을 구비하고, 부원들과의 시간 조율을 통해 훈련 시간대를 주 2회로 늘릴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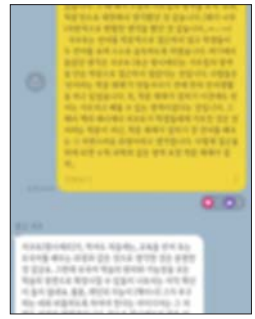
파이데이아 (독서 소모임)

Q. 안녕하세요! 소모임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데이아는 교육학 관련 서적을 함께 읽고, ‘교육’에 대한 뜻깊은 담론을 펼치며 성장하는 초등교육과의 독서 소모임입니다.

Q.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2주에 한 번, 정해진 분량의 책을 읽은 후 2명의 발제자가 발제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의를 진행합니다. 2023년 1학기에는 ‘어렵고 재미없는 영화감상 (조영태, 교육과학사)’라는 책을 읽고, 책에 소개된 영화와 저자의 ‘교육학적’ 영화 감상을 기반으로 하여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과 이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가로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메신저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Q. 소모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교대 입학 후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언제나 망설임 없이 ‘파이데이아!’라고 답하곤 합니다. 혼자서는 선뜻 시도하기조차 어려울 수 있는 책들을 ‘함께’ 읽고 그에 대한 의미를 ‘함께’ 고민하며 다채로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파이데이아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들에 대한 식견을 확장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교육’의 내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기도 합니다. 교육과 교사의 자질에 대해 숙고하며 예비 교사로서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 ‘파이데이아’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2학기에도 한 권의 책을 선정한 후 이에 대해 의견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비대면 모임이 진행되었기에, 다가오는 학기에는 대면 모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라 (자전거 라이딩 및 파티 소모임)

Q. 안녕하세요! 소모임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자라’는 ‘자전거 라이더’의 줄임말로, 자전거 라이딩 및 친목 도모를 목표로 하는 국어교육과 소속 소모임입니다!

Q.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매주 금요일마다 파티와 친목 도모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모임 형성 초기에는 소모임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전거 라이딩을 목표로 하였으나, 자전거 외에도 동기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있음을 알고 이를 목표로 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 함께 놀이공원에 다녀오거나 소모임 부원이 이삿짐 옮기는 것을 돕기도 합니다.

Q. 소모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소모임 활동'이라는 명목하에 기존의 고정된 만남 틀에서 벗어나 더욱 흥미로운 활동을 모색해 봄으로써 동기들과 다채로운 경험을 해보고 좋은 추억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 생활이 훨씬 풍부해진 기분과 '친하다'라는 감정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자라'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방학 때도 만남을 지속하고, 2학기 때는 활동 반경을 넓혀 과천과학관, 민속촌, 가락시장 등 동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근처에서의 추억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또한 자전거 라이딩 소모임인 만큼 한강에서 함께 자전거를 타는 활동도 추진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교육대학교에서 활동하는 여러 소모임 중에서 종교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유특special 기도 소모임', 흥미나 특기를 살려 자기 계발을 목표로 하는 '천둥오리'와 'J&G', 과의 특색을 살려 심층적인 탐구를 수행하는 '파이데이아', 그리고 다양한 활동으로 친목 도모를 하는 '자라'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금 이 기사를 읽고 있는 학우 여러분도 스스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 고민해 보며 소모임을 함께 꾸려보는 건 어떨까? 한때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느꼈던 아쉬운 마음이, 이제는 다시 활기를 되찾고 더욱 활발히 소모임을 하기 위한 열정에 대한 장작으로 타오르기를 소망한다.



사향지기에서
독자 여러분의 글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자신의 글솜씨를 뽐내보세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사향지기에서 실어드립니다.

지원 자격 | 서울교육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주　　제 | 자유 주제
(사향지기에 싣고 싶은 주제라면 뭐든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예 우리 대학과 관련된 이야기
알리고 싶은 교육 혹은 시사 이슈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 등
(단, 교지 특성상 맞지 않는 외람된 주제는 제외합니다.)

분　　량 | A4 용지 2장 내외

보내실 곳 | hongda0122@naver.com

문　　의 | 편집국장 홍다혜(010-4566-3249)



새파랗게 살아있는 젊음, 즐거웠던 새내기 배움터

편집위원 송태영
수습위원 배민영



Date. 2023년 2월 24일 / 새내기 배움터 D-1

드디어 내일, 꿈에 그리던 서울교육대학교 새내기 배움터에 가는 날이다. '2023 서울교육대학교 새내기 배움터 행사'는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처음 대면으로 진행되는 2박 3일간의 큰 행사라고 한다. 일상으로의 회복이라는 기대감에서 시작한 이번 행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대학 생활의 첫걸음이 될 새내기 배움터, 너무 떨려서 잠이 오지 않잖아!

Date. 2023년 2월 25일 / 새내기 배움터 1일 차

어제 설레어서 늦게 잠이 드는 바람에 아침에 눈을 뜨기가 힘들었지만, 힘차게 일어나 학교로 출발하였다. 새내기 배움터 OT 활동 장소는 사향융합체육관이었다. 길을 헤맬까 내심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다행히 선배님들께서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주셔서 쉽게 건물을 찾을 수 있었다. 체육관으로 가는 길에 '총학생회를 찾아라' 이벤트에도 참여했다. 퀴즈를 맞히면 총학생회 선배님들과 밥약을 할 수 있는 추첨권을 주는 이벤트였다. 너무 당첨되고 싶었다! 이렇게 새내기 배움터 전에 선배님들을 만나니 벌써 대학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 총학생회를 찾아라 이벤트 추첨권

체육관에 들어갔을 때, 새내기들의 설렘 가득한 미소와 어색한 웃음이 가득했다. 나도 새내기답게 두근대는 마음으로 옆자리 친구에게 말도 걸고, 초콜릿도 줬다. 주변에 앉아있던 과 동기들과 연락처도 교환했다. 4년을 함께할 사람들을 만났다니, 앞으로의 대학 생활이 너무 기대되잖아!

조금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OT 활동이 시작되었다. 내일 있을 1박 2일 새내기 배움터를 위한 숙소 안전 교육을 시작으로 성폭력 교육, 음주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교육은 교육 정세에 관한 강의였다. 현 교육 정책들을 살펴보며 교육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고민해볼 수 있었다. 이후 총학생회 및 13개 학과의 소개를 끝으로 너무나도 기대했던 과별 시간이 시작되었다.



▲ 새내기 배움터 OT

과별 시간을 위해 강의실에 들어가니, 책상 위의 새내기 키트가 나를 반겨주고 있었다. 텀블러와 볼펜, 에코백, 학교 배지 등 풍성한 기념품을 보며 학교에 대한 사랑이 더 커졌다! 과마다 진행한 활동에는 차이가 있었겠지만, 우리 과에서는 교수님, 심화 수업, 과 행사 소개와 함께 학교 주변 맛집을 소개해주셨다. 얼른 동기들과 친해져서 리스트에 있는 맛집 모두를 도장 깨기 해주겠어! 이후 동기들과 빙고, 텔레파시 게임 등을 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서먹하기도 했지만,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과별 시간의 마지막은 캠퍼스 투어! 선배님들이 우리 학교의 예쁜 캠퍼스를 구석구석 소개해주셨다. 내가 이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고 생활할 날이 다가오다니, 너무 설렌다!



▲ 새내기 키트


▲ 아리마당 공연분과 체험시간

1일 차의 마지막 활동은 아리마당이었다. 아리마당은 대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리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캠퍼스 이곳저곳을 누비며 공연분과, 종교분과, 체육분과, 민족문화분과, 미디어센터로 나뉘는 우리 학교의 동아리 부스들을 체험해보았다. 행복한 나의 대학 생활을 책임질 동아리는 과연 어디일까? 재미있는 동아리들이 너무 많아서 모든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을 정도였다. 너무나도 설렜던 1일 차,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Date. 2023년 2월 26일 / 새내기 배움터 2일 차

드디어 오늘, 강원도 횡성에 있는 웰리힐리파크로 1박 2일간의 여행을 떠났다! 어제는 동기들과 얼굴을 트는 자리였다면, 오늘은 선배님들을 뵐 수 있어 어제와는 또 다른 설렘으로 가득 찬 하루였다. 9시까지 학교 운동장에 집결하고, 웰리힐리파크로 출발하였다. 숙소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고, 총학생회 측에서 준비한 다양한 강의를 들으며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관한 팀들을 얻을 수 있었다.



▲ 체육교육과 학생들의 모습





▲ 과학교육과 과별 시간 모습

총학 시간이 끝난 후, 선배들과 함께하는 과별 시간이 진행되었다. 과마다 진행한 활동에는 차이가 있었겠지만, 우리는 조를 나누어 릴레이 그림 그리기, 몸으로 말해요, 노래 듣고 맞추기, 네 글자 퀴즈 등을 했다. 선배들을 만나는 자리여서 긴장이 되기도 했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너무나 재미있으시고 좋은 분들이었다! 멋진 분들과 함께할 앞으로의 대학 생활이 무척 기대된다.

저녁을 먹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순서는 바로 신입생환영회 시간이었다. 신입생환영회는 새내기를 위해 동아리들이 준비한 특별 공연무대였다.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중간중간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있어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1부 공연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한 동아리는 풍물패동아리 토박이였다. '임실 필봉 농악 앞굿'과 '풍물놀이'를 선보였는데, 흥겨운 가락에 저절로 어깨춤이 지어졌다. 다음 공연은 연극동아리 빈도에서 준비한 연극 '클로이'였다. 공부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시다니…. 우리 학교에는 정말 다재다능한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다음으로 공연한 합창&아카펠라동아리 벨칸토에서는 3가지 곡을 준비했는데, 마지막 곡이었던 '슈퍼스타'가 인상적이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라는 가사를 들으며 그 눈부신 미래가 선물 같은 지금 이 순간이라고 느꼈다. 1부의 마지막 공연은 뮤지컬동아리 ICALL에서 준비한 뮤지컬 '빨래'였다. 소품을 활용한 역동적인 동작과 노래로 우리들의 마음을 흠뻑 빼앗아갔다!







▲ 왼쪽부터 토박이, 빈도, 아이콜의 무대 모습

2부의 첫 시작을 알린 동아리는 록밴드동아리 OFF였다. 4가지 곡을 공연했는데 강렬한 음색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다. 특히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을 같이 부르던 그 순간이 지금도 기억이 날 만큼 신이 났었다! 다음은 어쿠스틱 밴드동아리 울림통에서 준비한 무대였다. 뉴진스의 'hype boy'를 공연하며 유행하는 밈을 섞어 구성하신 것이 재치있고 멋있었다. 3번째 공연은 힙합&알앤비동아리 소울라이프에서 준비한 무대였다. 관객의 호응을 유도하며 공연하는 모습이 프로페셔널하게 느껴졌다. 마지막은 댄스동아리 댄스리플레이에서 준비한 무대였다. 다 같이 무대를 즐기며 청춘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즐거웠던 하루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었다.





▲ 왼쪽부터 레크리에이션, 오프의 무대 모습

그렇지만 이렇게 하루를 끝낼 수는 없지! 대학생이 된 느낌을 생생히 경험했던 신입생환영회 시간이 끝나고, 자유 시간이 주어졌다. 각자 개인 정비를 하며 이대로 끝내기는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맛있는 야식이 준비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과별로 한 공간에 모이라는 얘기가 들렸다! 아침보다 더 친해진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술 강권은 절대로 No! 선배에게 학교생활 팁, 궁금증, 게임 등 많은 것을 묻고 배웠다. 청춘의 즐거움에 우리의 밤은 그 무엇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Date, 2023년 2월 27일 / 새내기 배움터 3일 차

총학에서 준비한 아침을 자율적으로 먹고,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퇴소식을 간단히 진행하며 1일 차에서 배부한 밥약 추첨권을 뽑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일정을 끝내고, 우리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벌써 새내기 배움터가 끝났다니 아쉽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대학 생활이 더욱 기대되기도 한다. 새내기 배움터로 아름답게 장식한 나의 20대의 첫 페이지. 청춘의 시작점에 서울교육대학교가 함께 한다니…! 찬란한 나의 미래를, 당신의 미래를 사향지기가 응원한다!



▲ 국어교육과 학생들의 명찰 목걸이

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 문화기획국장 김수민 님과의 인터뷰

Q 새내기 배움터를 기획하시며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A 새내기들이 우리 서울교육대학교에 자부심을 가지고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동기, 선배들과 친해지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막 대학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23학번 분들은 학교에 입학한 것을 축하받고 환영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좋은 점들을 많이 안내해주고 싶었고, 교육 정세의 팩트를 정확하게 소개함으로써 예비교사인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Q 새내기 배움터를 진행하시며 뿌듯했던 기억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A 새내기 배움터가 끝나고 퇴소 전 전체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가 무사히 새내기 배움터를 잘 마무리했다는 사실과, 600명 가량의 학우분들이 웃는 모습을 보며 그간의 피곤함이 씻겨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총학생회가 무슨 사업을 하든 가장 뿌듯한 순간은 행사가 아무도 다치지 않고 마무리되었을 때와 행사를 즐거워하는 학우분들을 볼 때인 것 같습니다.

Q 23학번 새내기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려요!

A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언제나 떨리고 설레는 일입니다. 분명히 막막하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주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엔 우리가 아직 너무 젊고 이제 막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에만 할 수 있는 것들, 지금에만 꿀 수 있는 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더 선명하게 파랑처럼 나아갑시다. 멈추지 말고 빛나는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과 무한한 도전을 응원합니다!

새파랗게 살아있는 젊음의 시간은 지금이다! 새내기 배움터로 내디딘 대학 생활의 첫걸음. 새로운 시작의 길에 있는 사향인들을 태영, 민영 기자가 응원한다.



사향지기의 오탈자를 찾아주세요!

사향지기 독자 여러분,

재미있게 교지를 읽고 계신가요?

앗, 그런데 사향지기에 오탈자가 있다니?

오탈자를 발견하신 독자분들은 오탈자가 있는 부분의

페이지, 줄 수 및 위치, 오탈자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3개 이상의 오탈자를 찾아주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hongda0122@naver.com

문의: 편집국장 홍다혜(010-4566-3249)



사향의 터,
캠퍼스 파헤치기

편집위원 윤채원
편집위원 이수아

서울교대 생활 n년 차인 당신! 우리 학교 건물과 시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주 공강 때 어디를 가면 좋을지 몰라 방황한 적은 없는가? 그런 당신을 위해 새단장된 학생회관을 중심으로 사향인들이 공유한 나만 알고 싶은 캠퍼스 내 꿀장소를 준비했다. 사향지기가 취재한 교내 꿀장소, 함께 따라가보자!



NEW! 층별 학생회관 소개

지난 겨울 학생 회관은 n년만에 그 모습을 탈바꿈했다. 새로워진 학생회관을 탐방하며 어떤 공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보자!

1층 학생식당, 편의점



오늘은 카불면이 나오는 점심시간! 모바일 또는 실물 학생증을 찍고 들어가면 서울 교대의 **학생 식당, 청람채**에 학생들이 줄을 길게 서있다. 청람채에서는 학식을 재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본교 학생 혹은 교직원이라면 4,500원에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 청람채는 청결한 책상과 의자로 교체하고 재배치를 진행하여 편안하고 쾌적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리모델링 되었다. 연이은 강의로 시간이 부족할 때 청람채를 이용한다면 빠르고 저렴하게 점심 식사를 한 후 교내에서 여유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사향지기가 알려주는 꿀팁! 식권 결제는 현금 및 계좌이체로만 가능하며 계좌이체 시 10개 단위로만 구매할 수 있으니 대량 구매가 부담스러운 사향인들은 현금으로 구매하거나 동기들과 더치페이 하여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사향인들이 알려주는 꿀팁! 에타의 '학생식당'에서 학식 메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학기부터 온라인 식권 제도가 시행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배부르게 카불면을 먹고 난 후, 가벼운 후식 또는 간식이 필요하다면 청람채 바로 옆 **CU 편의점**을 이용해 보자. 먹거리 외에도 펜이나 수정테이프와 같은 기본 학용품 및 생필품도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사향지기가 알려주는 꿀팁! 학생회관 CU는 교외보다 5%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 교내 편의점을 적극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사향인들이 알려주는 꿀팁! 물류가 들어오는 오전 9시~오후 1시 사이를 노리면 맛있는 선택지가 가득하다. 그리고 CU에서 학생회관으로 넘어가는 자동문은 전자학생증 QR을 찍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야 열리니 당황하지 말기!

학생회관 1층 이용 꿀팁! 1층 계단 옆 작은 문을 통해서 도서관 쪽으로 나갈 수도 있다. 복잡한 점심 시간, 위층으로 올라가고 싶다면 옆문을 이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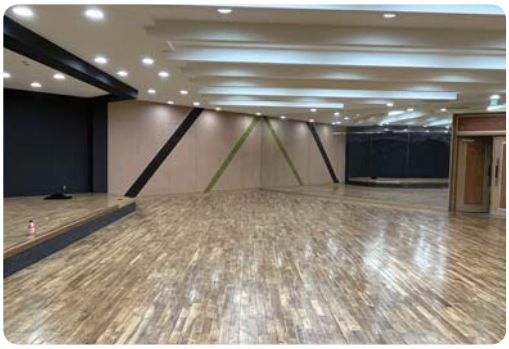


2층 과방, 스터디룸, 소강당

슬슬 눈이 감겨온다. 수업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다면 동기들과 안락한 **과방**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과방은 같은 과 모든 학년들의 공용 공간이니 청결하게 사용 후 정리하는 것은 기본 매너라는 점! 과마다 배정된 사물함도 있기 때문에 각 과의 신청 방식에 따라 사물함을 이용하여 짐을 보관해두면 통학러들의 어깨를 지킬 수 있다.

코에듀-학부학사관리-수업관리-강의실 및 기자재 관리에서 건물을 학생회관으로 변경하면 강의실로 2, 3, 4층의 스터디실과 **소강당**을 예약해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스터디실**은 문이 없는 개방형 공간이며, 소강당의 경우 무대와 넓은 거울이 있어 안무 연습 등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3, 4층 동아리방, 1인 의자, 테라스 공간, 스터디룸, 다목적실

3층과 4층에는 교내 다양한 동아리가 이용하는 **동아리방**이 마련되어 있다. 학생회, 방송부 등 활발한 활동 중인 동아리의 구성원들이 회의와 같은 활동을 하거나, 휴식이나 과제 등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공간이다. 이외에는 테이블과 함께 **1인 의자들**이 마련되어 있어 간단한 과제를 끝내기에 딱 좋은 공간과, 1층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이곳저곳과 연결되어 있는 3층의 **테라스**와 같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공간 또한 마련되어 있다. 2층의 소강당이 예약 중이라면 4층의 **다목적실**에도 거울과 안무 연습 공간이 있으니 활용해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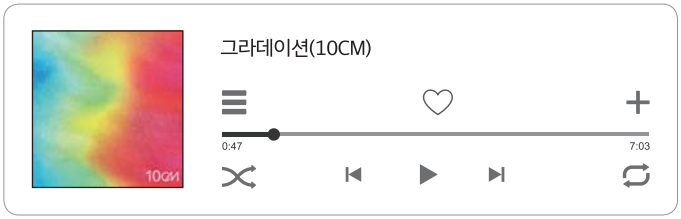
캠퍼스 내 상황별 추천 장소와 노래

공강, 과제, 동그라미…. 캠퍼스 내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채워줄 사향인들의 나만 알고 싶었던 꿀장소와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합니다!

Q 1교시 수업을 마치고 다음 수업이 5교시입니다! 매주 카페에 가자니 비용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우주 **공강 동안 교내에 시간 때우기 좋은 장소**가 있을까요? 심심함을 달랠 노래도 함께 추천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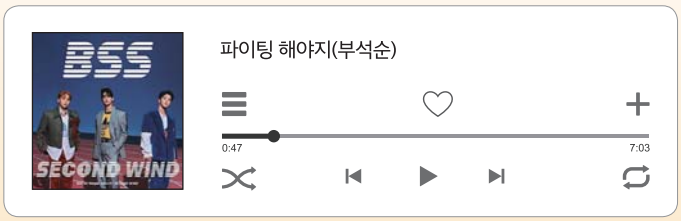
A 도서관 3층의 전자 자료실을 추천합니다. 전자 자료실에서는 2~3시간 정도의 우주공간 동안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긴 공강 시간 동안 편하게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면 도서관의 숨겨진 꿀장소, 전자 자료실을 추천할게요!

A 만약 시간이 애매한 짧은 공간이라면 학생회관의 과방 또는 동아리방을 추천해요. 편하게 과제를 하거나,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애매한 공강 시간을 때우기 좋을 거예요. 음악관도 추천할게요! 음악관에는 피아노 개인 연습실이 구비되어 있어 피아노나 악기 연습을 할 수도 있고, 특히 3층 국악실에는 보일러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편히 쉴 수 있어요.



Q 수업 10분 전, 교수님께서 급한 사정으로 비대면 수업 전환 공지를 올리셨어요! 타자와 간단한 말을 할 수 있으면서 **비대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은 어디 없을까요? 과제하면서 들을 노래도 함께 추천해 주세요!

A 저는 가성비 좋은 교내 카페 '다솜채'나 자유로운 분위기의 연구강의동 2층을 추천합니다. 다솜채는 적당한 음악과 소음으로 말을 하거나 타자를 치기에 부담스럽지 않아요. 더 조용한 환경이 필요한 상황일 때에는 연구강의동 2층에 마련된 다양한 자리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공부하는 것도 추천해요.



Q 한껏 꾸민 오늘!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데, 어디에서 찍어야 인생샷을 건질 수 있을지 **교내 포토스팟**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진과 함께 SNS에 올리면 좋을, 그 장소와 어울리는 노래를 추천해 주세요!

A 저는 운동장을 추천합니다. 예쁜 하늘 아래 초록 잔디에서 사진을 찍으면 보정 없이도 완벽한 색감을 자랑한답니다. 특히 봄에 과잠을 입고 등교한 날, 운동장에서 사진을 찍으면 대학생 감성이 뿜뿜! 자랑하고 싶은 날, 운동장에서 인생샷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비밀의 화원(아이유)

0:47 7:03

Q 학교생활에 적응한 요즘, 팀플 과제가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소통이 가능하면서 장시간 **팀플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추천해 주세요. 팀플 하면 떠오르는 노래도 알려주세요!

A 저는 도서관이나 학생회관의 스터디룸을 예약해서 이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특히 도서관의 스터디룸은 공간별로 방음이 되어 있어서 말을 하면서 진행하는 팀플 과제에 적합합니다. 충전이 가능한 테이블에 스크린 셰어링이 가능한 TV, 화이트보드 벽면도 마련되어 있고, 최대 2시간 동안 이용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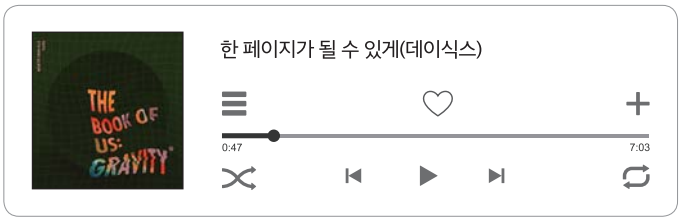
그건 니 생각이고(장기하와 얼굴들)

0:47 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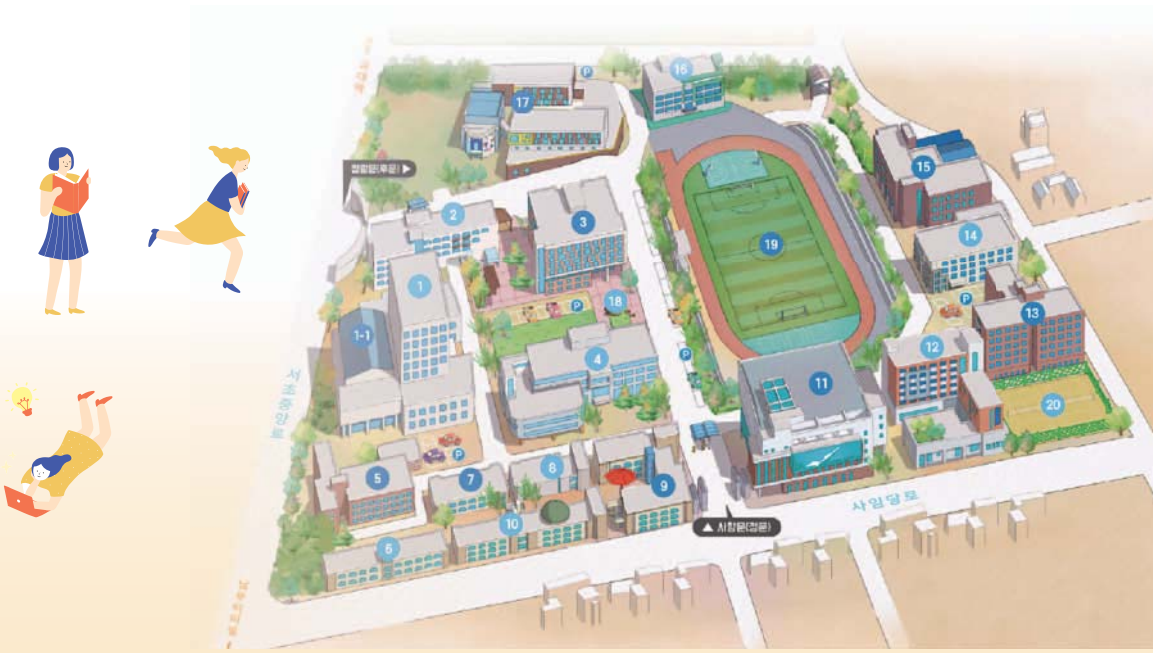


Q 선선한 바람, 따뜻한 햇볕, 실내에만 있기에는 아까운 날씨. 오늘은 과 동기들과 오랜만에 배달음식을 시켜 먹기로 했습니다. 캠퍼스 내 **배달음식을 시켜 먹기 좋은 장소**를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며 들으면 좋을 것 같은 노래도 함께 추천해 주세요!

A 저는 운동장에서 동그라미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동기들과 운동장에 동그랗게 둘러앉아 배달음식을 시켜 먹으며 마치 한강에서 피크닉을 하는 듯한 기분을 낼 수 있어요. 만약 햇빛이 눈부시다면, 운동장 옆 벤치를 이용하는 것도 적극 추천해요. 테이블이 있어 편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어요. 또한 교정을 바라보며 낭만을 채우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답니다.



이렇게 사향지기와 사향인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교내 시설 소개 및 이용 꿀팁들을 담아 보았다. 이외에도 사향의 터를 파헤쳐 찾아낸 여러분만의 아지트 공간을 잘 활용하여 행복한 캠퍼스 라이프를 누리기를 바란다.



어린이날이 기다려지는 이유, 어린이 한마당 축제

편집위원 송태영

2019년 이후 무려 4년 만에 대면으로 돌아온 서울교육대학교 어린이 한마당 축제! 어린이 한마당 축제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서울교대 예비교사들이 어린이들에게 뜻깊은 추억을 선물하는 행사야. 부스 운영부터 하루샘 프로그램, 미니 체육대회, 보물찾기 대탐험까지!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을 2023 어린이 한마당 축제를 태영 기자와 함께 되짚어보지 않을래?



다채로움이 가득! 신나는 부스 체험

어린이 한마당 부스는 중앙 부스와 과별 부스로 나뉘어 교내 곳곳에서 진행되었어. 당초 계획은 실내 및 실외 모두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었으나, 행사 당일 우천으로 인해 부스의 위치가 전부 실내로 변경되어 음악관, 에듀웰센터, 연구강의동, 사향융합체육관 등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단다.

<table>
<tr><td>중앙 부스</td><td colspan="3">1. 반짝반짝 내 마음, 캐릭터 만들기 : 가면으로 만드는 내 캐릭터!
2. 빙글빙글 내 바람, 소망의 꽃 만들기 : 바람개비를 통해 우리의 바람을 적어보아요!
3. 무럭무럭 내 권리, 인권 나무 만들기 : 어린이들이 필요한 권리는? 어른들과도 상호 소통해요!</td></tr>
<tr><td>윤리교육과</td><td>FAN!CY한 나의 철학자</td><td>영어교육과</td><td>Into the Zootopia</td></tr>
<tr><td>사회과교육과</td><td>애플 마켓 & 애플 뉴스</td><td>유아특수교육과</td><td>유난히 특별한 물총놀이</td></tr>
<tr><td>국어교육과</td><td>1. 마음을 담은 엽서와 시원한 부채 만들기
2. 퀴즈왕을 찾아라!
3. 데굴데굴 한 바퀴</td><td>초등교육과</td><td>1. 나만의 사탕 목걸이 만들기
2. 달콤한 스쿨 마켓</td></tr>
<tr><td>수학교육과</td><td>1. 수학으로 모두의 마블을 하자!
2. 수학으로 입체도형을 만들자!</td><td>미술교육과</td><td>1. 캐릭캐릭 페이스 체인지
2. 슈링슈링 슈링클스</td></tr>
<tr><td>음악교육과</td><td>차캬차캬 마라카스 만들기</td><td>생활과학교육과</td><td>1. 생과 분식
2. 내가 만든 꽃 팔찌
3. 감동과 사랑이 넘치는 카네이션 만들기</td></tr>
<tr><td>과학교육과</td><td>1. 내 손으로 만드는 VR 안경
2. 쫀득쫀득 나만의 만득이
3. 탱글탱글 탱탱볼
4. 알록달록 마술 팔찌
5. 팽글팽글 돌아가는 착시 팽이</td><td rowspan="2">컴퓨터교육과</td><td rowspan="2">1. 내 손으로 만드는 알록달록 다리미 비즈
2. 코딩과 함께 슬라임 만들기
3. 햄스터 로봇이랑 같이 놀자!
4. 3D펜으로 나만의 굿즈 만들기</td></tr>
<tr><td>체육교육과</td><td>뉴진스포츠</td></tr>
</table>






너무나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부스들이 많아 보이지? 어린이들과 함께 태영 기자도 두 가지 부스를 체험해보았어.

국어교육과

국어교육과에서는 엽서와 부채 만들기, 스피드 퀴즈 맞히기, 수레 타기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어.



첫 번째로 체험해 본 것은 엽서와 부채 만들기 부스야. 종이를 하나 골라 글을 적고, 그림을 그리며 나만의 엽서를 완성했단다. 캐릭터 모양의 도장도 알록달록하게 찍을 수 있어서 더욱 매력적이었어. 엽서와 함께 부채도 이곳에서 만들 수 있었단다. 글과 그림을 넣어 나만의 개성을 살린 부채를 완성했어. 어때, 태영 기자의 미술 감각이 느껴지니?



두 번째로 체험한 것은 스피드 퀴즈! 어린이와 한 팀이 되어 많은 수의 문제를 맞히고자 노력했어. 간단한 제시어였지만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려니 쉽지만은 않았단다. 아쉽게 퀴즈왕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어린이와 합을 맞추며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

마지막은 국어과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데굴데굴 한 바퀴였어. 데굴데굴 한 바퀴는 수레를 타고 교내를 돌아다니는 체험이었단다. 워낙 인기가 많아 예약이 필수여서, 태영 기자도 약속한 시각에 맞추어 수레를 타러 갔단다. 당연하게도 헬멧은 필수! 안전장비를 갖추고 난 후, 부스운영진들이 수레에 나를 앉히고 교내를 돌아다니며 우리 학교를 구경시켜주었어. 국어과 분들과 이야기를 하며 학교를 둘러보는, 너무나도 재미있는 경험이었단다. 어린이들에게도 분명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을 거야!

영어교육과

영어교육과에서는 '디즈니 속으로: 주토피아'라는 컨셉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어.

주토피아의 주인공 주디가 들고 다니는 당근펜을 기억하니? 주디의 당근펜을 본떠 만든 영어과만의 당근펜을 기념품으로 받을 수 있었어.



책상에 어린이들이 모여 무엇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길래, 무엇일까 궁금해서 가까이 가보았어. 아하, 바로 주토피아 캐릭터 부채를 만들고 있었구나! 주토피아 캐릭터를 색칠하고, 스티커로 예쁘게 꾸며 자신들만의 부채를 만들고 있었던 거야. 다들 하나씩 만들어보고 싶지 않니?

또 다른 곳에서는 주토피아에 나오는 아이스바 과녁 맞히기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어. 과녁을 맞혀서 상품도 받을 수 있었단다. 태영 기자도 참여해보았는데, 3개 중 2개의 공을 과녁에 맞히는 데 성공했어! 겉보기에 쉬워 보일지 몰라도, 생각보다 맞히기가 어려웠단다.

저기 알록달록하게 꾸며져 있는 공간은 무엇일까? 가까이 가자 주토피아의 등장인물인 닉과 주디 복장의 운영진들이 태영 기자를 반겨주었어. 이곳은 토끼/여우 머리띠, 선글라스, 당근 인형, 가짜 총 등의 소품을 활용하여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었던 거야! 태영 기자도 가짜 총을 들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추억을 간직하고자 했단다.



하루둥이를 위한 하루샘이 되어주세요! 하루샘 프로그램

하루샘 프로그램은 서울교대 예비교사들이 일일교사 하루샘, 초등학생 아이들이 하루둥이가 되어 1:1 짝꿍으로서 하루 동안 어린이 한마당 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야. 어린이들과 직접,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기회였지. 하루샘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아 기자님을 인터뷰해보았어!

Q 하루샘 프로그램에 신청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A 사실 저는 어린이 한마당 축제의 과별 부스 신청을 고민하다가 기간을 놓쳤었어요. 교대생에게 어린이날은 학교의 큰 행사인 만큼 꼭 한 번은 참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신청이 마감되어서 아쉬워하던 찰나에 하루샘 모집 공고가 떠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신청했어요. 다수의 학생이 아닌 한 명의 아이와 장시간 동안 소통하고 이끌어주어야 하니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만큼 일 년에 단 한 번뿐인 어린이날을 즐거운 기억으로 채워주고 싶다는 생각에 설렘이 더욱 컸던 것 같아요.

Q 하루둥이와 어떤 활동을 진행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A 하루둥이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거의 8시간을 함께 다니며 어린이날 축제를 즐겼는데, 그중에서도 하루둥이가 원하는 대로 과별 부스를 체험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하루둥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행복해지는 시간이었어요. 각자가 싸온 도시락을 나누어 먹고, 점심 식사를 한 후에는 연구강의동 2층에 마련된 공간에서 누워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답니다. 프로그램의 마무리에는 서로에게 편지를 써주는 시간도 있었는데, 짧은 시간 동안 정이 많이 들어 눈물을 보이는 하루샘과 하루둥이들도 있었어요. 하루둥이가 가장 즐겁고 알차게 보낸 어린이날이라고 말해주었는데, 하루둥이에게도 저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된 것 같아요.

Q 하루샘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A 초등학생과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있을 기회가 거의 없어서인지 매 순간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의 어린이날 추억에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니 그 사실만으로도 값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망설이다가 하루샘 신청을 하지 못했던 학우분들이 계시다면 내년 어한제를 통해 꼭 하루샘으로 하루둥이와 소중한 추억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달려보자! 즐거움이 가득한 미니 체육대회

원래는 운동장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미니 체육대회가 우천으로 인해 사향융합체육관 주 체육관에서 열렸어. 림보, 타일 뒤집기, 훌라후프 달리기, 콩주머니 던지기의 종목을 릴레이 형식으로 실시했단다. 갑작스러운 장소 변경에도 열심히 참여해준 어린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활기차게 느껴졌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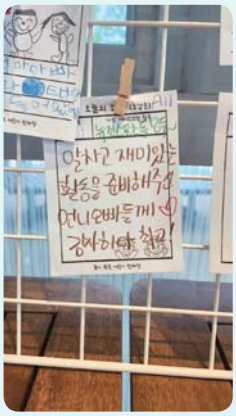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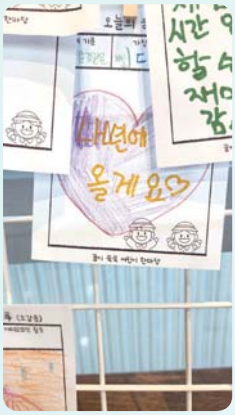
기억을 담은 추억 부스 & 행복을 선물하는 보물찾기 대탐험

추억 부스는 그림일기, 소감문, 편지로 마음을 표현해보는 부스야. 어린이들이 마음을 담아 작성한 편지와 소감문이 부스 앞에 전시되었어! 또, 학교 곳곳에는 보물이 담긴 캡슐이 숨겨져 있었어. 학용품, 간식 등 멋진 상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어린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았단다.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을 어린이 한마당 축제! 사향인에게도 이번 어린이날은 아이들에게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줬다는 점에서 정말 특별했어. 어린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대학교의 어린이 한마당 축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야!



미래형 창의 교사 양성, 국립대학육성사업이 책임집니다

편집위원 정민우

서울교대 출신 변호사 선배님과 행정고시를 합격한 선배님의 진로 특강부터 AI와 에듀테크를 활용한 영어 수업 레시피, 디지털 드로잉 활용 미술 수업 디자인까지. 이색적인 활동들로 진행된 2022년 서울교대 교내 프로그램들은 사향인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던 숨은 공신이 있었으니, 바로 **'국립대학육성사업'**이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미래형 창의 교사의 양성을 책임지는 국립대학육성사업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서울교대 국립대학육성사업단장 신승기 교수님과의 인터뷰

Q. 서울교육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반갑습니다. 컴퓨터교육과 신승기 교수이고, 금년도에 국립대학육성사업단장을 맡게 됐습니다. 원래는 국립대학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해서 두 개로 분리돼 있던 사업이 2023년도에 들어서 두 사업이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되었던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최근에 변화되는 대내외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립대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두 사업이 함께 평가받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사업 명칭은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통합되었지만, 국립대학을 육성하고 지원해 주는 것과 동시에 기존에 있었던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형태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령 인구 강조,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 디지털 교육이 중요해짐에 따라 변화하는 대학의 모습을 이러한 재정지원사업을 통해서 참여하기를 정부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Q. 작년 2022년에 국립대학육성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저는 국립대학육성사업단장과 국제교류센터 소장을 겸임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활동으로는 다른 국가의 대학들과 활발한 국제 교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인한 3년 정도의 공백으로 학교 안에서의 활동, 국제적인 교류도 중단되었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는 명실상부 최고의 교원양성대학이기에, 국내에 다른 대학과 경쟁하는 것에서 나아가 글로벌 역량을 갖고 전 세계에서 초등교원 양성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던 국제 교류가 다시 활성화가 되었고, 노던콜로라도대학과 교류를 다시 이어 나가서 서른 명의 학생들이 지난겨울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우리 학교 총장님을 모시고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이라고 손꼽히고 있는 애리조나주립대학교를 방문하여 한국의 교육과정에 대한 변화와 혁신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로 탐색 특강과 졸업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기에 대부분의 학생이 교사를 지망하지만, 생각보다 진로에 대한 다양화를 요청하고 있는 학생들도 적지 않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를 졸업하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사무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 등 교직 이외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 선배님들의 특강이 다양한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직탐색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직을 희망하여 우리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교직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고 교직에 가기 전에 우리가 4년간의 교육과정 안에서 어떤 점을 보충해서 대비를 해나가야 할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학교 수업에서 배울 수 없었던 학급 운영과 심성



놀이 등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작년에 진행했던 대표적인 프로그램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Q. 올해부터 국립대학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이 통합하여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2023학년도에는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앞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대학육성사업의 흐름을 이어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은 연속성을 갖고 진행됩니다. 예를 들면 진로를 다양화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교직탐색프로그램은 꾸준하게 진행될 것이고, 추가로 우리 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도 추진 중입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글로벌화 국제 역량에 초점을 두고 지난번에 다녀온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와의 교류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 뛰어나고 유수한 대학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교환 학생 제도 및 학생 교류 확대 등의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로 현 교육부에서 기초학력, 디지털 역량, 하이테크라는 3가지 역량을 교사들이 갖춰야 할 핵심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역량을 신장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현재 기획하고 있습니다.

Q. 교수님의 말씀처럼 다양한 비전과 운영 목표를 가지고 국립대학육성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초등교사를 꿈꾸는 사향인에게는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첫 번째로는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해외에 다녀올 기회가 지금보다도 확대될 것입니다. 해외 탐방 캠프, 교환학생 프로그램, 혹은 대학원까지 과정까지도 연계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학력을 신장하기 위한 다양한 교수 방법,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방법 등도 사향인이 갖춰야 할 역량이기에,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국립대학육성사업에서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계획서의 제출 기간이 인터뷰 이후이기에, 현재도 의견을 수렴하며 정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아직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국제 교류, 기초학력, 디지털 및 하이테크 역량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렇듯 국립대학육성사업에서는 국제 교류 사업, 진로 탐색 특강, 교직탐색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사향인의 진로 다양화와 교직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제부터 국립대학육성사업의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서울교대 국립대학육성사업 대표 프로그램 – 교직탐색프로그램

우선, 국립대학육성사업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교직탐색프로그램이 있다. 학교 현장과 관련된 다양하고 실질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예비 교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에는 다음과 같은 주제의 강의들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으며, 올해도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주제를 선보이고자 국립대학육성사업단에서 열심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

플랫폼 활용 수업 디자인과 학급 경영의 이야기	디지털 드로잉 활용 미술 수업 디자인
세계를 교실 속으로, 온라인 국제 교육 교류	선배 교사가 들려주는 교실 속 세계 시민교육 이야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신나는 수학	생각을 나누고 키우는 독서토론 수업
AI와 에듀테크를 활용한 영어 수업 레시피	학교는 비우고 학생이 채우는 매일매일 수업 한 줌
오늘 배워 내일 쓰는 초등 SW 교육 (엔트리로 게임 만들기)	예비 교사를 위한 글쓰기, 면접 준비하기

<표> 2022년 교직탐색프로그램 주제



<그림 1> 플랫폼 활용 수업 디자인 특강 활동사진



<그림 2> AI와 에듀테크를 활용한 영어 수업 레시피 활동사진

서울교대 국립대학육성사업 대표 프로그램 – 진로 다양화 특강

다음으로, 사향인의 진로의 폭을 넓히고자 국립대학육성사업에서 추진하는 진로 다양화 특강이 있다. 대학 졸업 후 교직 이외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졸업생들의 강연을 통해 더욱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향인들은 변화하는 사회의 패러다임 속에서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 선배들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 올해는 또 어떤 훌륭한 선배님들의 강연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게 되는 순간이다.



<그림 3> 스타트업에 뛰어든 교대생 특강 활동사진



<그림 4> 나와 전공 사이, 행정고시 도전하기 특강 활동사진

지금까지 인터뷰를 통해 국립대학육성사업에 대한 소개, 운영 현황, 비전 등에 대해 알아보고, 교직탐색프로그램과 진로 다양화 특강이라는 대표적인 프로그램도 살펴보았다. **미래형 창의 교사 양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예비 교사로서 필요한 역량 강화의 산실로서 그 무게감을 드러낸다. 나아가, 다양한 진로의 폭을 넓히는 기능까지 수행하기에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사향인의 모든 요구 사항을 아우를 수 있기도 하다. 예비 교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싶거나 다른 진로도 생각해 보는 사향인이라면, 국립대학육성사업의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동계 글로벌 인턴십, 그 생생한 현장으로!

편집위원 한혜림

지난 겨울방학, 미국에서 동계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대략 2주 간의 기간 동안 미국에서 교생실습, 대학생활, 문화체험까지 실시되었다는데. 코로나 이후 처음 진행된 학교 인턴십 프로그램의 이모저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동계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이란?

지난 2023년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미국 노던콜로라도대학교(University of Norther Colorado)에서 진행한 연수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2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초등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해외 학교방문 및 교육실습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 미국 대학 생활 및 문화 탐방 뿐만 아니라 미국 초등학교에서 교육실습을 진행하였다.

인턴십 프로그램 일정

1/10	인턴십 프로그램 사전교육
1주차 (1/25~1/28)	-현지 도착 -오리엔테이션 및 문화체험 -현지 실습 준비(UNC 학술 세미나, 학부 수업 참관, 캠퍼스 투어) -문화체험(덴버미술관, 주 의회 이사당, 아울렛 쇼핑)
2주차 (1/29~2/4)	-현지 초등학교 수업 참관 및 실습 -문화체험(로키산국립공원, NBA 경기 관람)
3주차 (2/5~2/9)	-현지 초등학교 수업 참관 및 실습 -UNC 학생들과의 교류 및 학부 수업 참관 -폐회식

인턴십 프로그램 소개

소중했던 3주간의 경험, 어떤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직접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 그 특별했던 순간들을 만나보자!

UNC 대학교(University of North Carolina) 투어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 일명 UNC Chapel Hill 대학교는 인턴십 프로그램의 첫 여정이었다. 미국에 도착한 둘째날,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다. UNC의 유니버시티 센터(UC)에서 대학교 내에서 사용할 학생증을 발급받았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증을 이용해 학교 건물 내 출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의 지정 식당에서 현금이 아닌 meal swipe로 결제해서 먹을 수 있는 다소 특이한 'meal change'기능이 있다는 점이 다소 특이한 점 중 하나였다. 회의실에 모여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한 뒤, 캠퍼스 투어를 시작했다.

캠퍼스 투어에서는 UNC 대학교 내 다양한 건물들과 내부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학교 홍보대사에게 소개받았다. 대학교 중심부에 있어 다양한 행사 및 편의시설이 열리는 UC센터부터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UNC Campus Commons, 스쿼시, 클라이밍을 위한 운동기구들이 구비된 체육관, 비건을 위한 식단이 마련된 학생 식당 등을 구경하였다. 대학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도서관 투어는 캠퍼스 3일차0에 따로 진행했는데 탁 트인 전망과 학업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관람하여 UNC 대학교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와는 다른 문화를 체험했던 캠퍼스 투어, 그렇게 인턴십 프로그램의 또 하루가 저물었다.

메디슨 초등학교(Madison Elementary School) 실습





미국 초등학교 실습은 이번 동계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실습은 총 5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본격적인 실습 전 미리 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처음 학교에 방문했을 때 교장 선생님과 학생들이 스스럼없이 포옹을 하는 모습을 보며 교내에서 흐르는 친밀하고 편안한 분위기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미국 초등학교 실습을 관찰하며 우리나라와는 다른 미국 초등학교 만의 시스템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 학교는 간식을 먹으며 수업을 듣거나, 수업시간에 원할 때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의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또한 미국에서의 교생실습은 우리나라와 달리 관찰 수업 중심보다는 선생님을 보조하며 학생들을 개별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외에도 한국과 미국은 다른 교육과정, 교육방식, 교과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며 실습생들은 서로 다른 문화 차이 속 교육을 이해하고 배울 점을 수용하는 뜻깊은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





인턴십 참여 학생들은 메디슨 초등학교에서 직접 수업을 진행했다. 미리 준비해간 수업 주제와 구성을 바탕으로 실제 메디슨 초등학교의 4일을 경험하여 고려해야할 부분들을 반영한 수업이었다. 미국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한국과 서울에 대한 소개, 한국 음식, 한복과 같은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도 하고 한국동요를 같이 부르는 음악 수업을 진행했다. 인턴십 참여 학생들은 실습을 하며 교사로서 한걸음 나아가고 학생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Future Teacher Conference 및 미국 문화 체험

Future Teacher Conference에서는 교육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교육에 대해 탐구해볼 수 있는 미래교사회담이었다. UNC 교수, 학생 및 졸업생과 컨퍼런스에서 교류하며 교직에 대한 통찰, 강의실 전략 및 팁, 그리고 올바른 교육자를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방법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인턴십 프로그램 내에서 다양한 미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 덴버미술관 관람부터 NBA경기 및 하키 관람, 로키산맥 방문까지 3주 내내 알찬 프로그램들과 함께 즐거웠던 동계 글로벌 인턴십을 마칠 수 있었다.

인턴십 프로그램 소감

동계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서울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소감을 직접 들어보았다.

홍다혜(초등교육과21)

미국 초등학교에서 교육 실습을 하며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로키산맥, 덴버, 아울렛 방문, NBA, 하키 관람도 하나의 다른 문화와 자연환경을 경험해볼 수 있어 너무 재밌었고 순간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이 인턴십은 나에게 넓은 안목, 다양한 경험,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 교사로서의 자신감을 선물해주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인턴십도 꼭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윤지혜(국어교육과21)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주제의 컨퍼런스들을 통해 새로운 교육 기술에 대해 배웠습니다. 또, 록키산 국립공원, 덴버 현대미술관 등을 방문해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며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미국 초등학교에서의 교육실습이었는데, 아이들과 보낸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나요, 당신의 한 학기

수습위원 김민선

'기억에 감정을 담으면 추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사진은 기억하고 싶은 순간의 감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사진과 함께 서울교대에서의 1학기 기억을 되새김질하고, 감정을 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기억이 추억으로 바뀌기를 기원하면서 지금 바로 서울교대 속 기억의 한 페이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서울교대의 자신과 서울교대의 전진



설레는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다.

입학식(2.24)



새내기 배움터(2.25-2.27)



학생 총회(3.15)



공동행동(3.26)



memoric (5.2)



어린이 한마당(5.5)



교생 실습(5.8-5.20)



사향 문화제 (6.15)



당신의 한 학기(2.24~6.15)





서울교육대학교,
예술의 전당이 되다.

아이콜 갈라쇼(3.7)



토박이 마당밟이(3.9)



Dance Replay 새내기 워크샵(4.4)



하제 소리 봄 정기 공연(4.12)



SOUL LIFE 정기 공연(5.31)



Eduphilharmonic Orchestra SPRING CONCERT(5.31)



벨칸토 거리제(6.1)



OFF 정기공연(6.5)



2학기도 사향지기와 함께 소중한 추억들로 서울교대 속 기억의 한 페이지를 채워보아요.

2023 통권 55호

2

EDUCATION

사향지기

교육전문대학원, 과연 최선의 결정일까

신비한 학급 경영 사전

우리가 바라는 영어교사는?

미분적 사고를 갖춘 삶

초등학교 받아쓰기 교육 A to Z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해도 괜찮을까요?

고자질 하는 아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교육전문대학원, 과연 최선의 결정일까

수습위원 김민아
수습위원 봉지원

교육부는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개혁 중 하나로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도입 계획을 밝혔다. 또한 내년에 정식으로 교전원을 출범하기 위해 올해 4월까지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학교 2곳을 선정하는 등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이렇듯 바로 목전으로 다가온 교전원 운영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교육부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 교전원인 것일까? 교전원 도입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는 각각 무엇일까? 앞선 질문들에 답할 수 있도록 교전원에 관한 것들을 함께 알아보자.



교전원 이슈의 등장 배경

교전원 설립을 통해 교원양성체제를 개편하고 교원 자격 취득 과정을 유연화하자는 논의는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이루어졌다. 당시에는 교육계의 심한 반발과 실효성 부족 문제로 체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에 국가교육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다시 등장하였으나 장기 논의 과제로 미뤄졌다. 이 문제가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임기 내에 교대 및 사대를 교육전문대학원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현 정부에서 말하는 교전원은 과거 거론됐던 양상과는 달리 기존의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 체제를 교대, 사대, 교전원으로 통합하는 등 다양한 교전원 운영 모델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로스쿨 모델처럼 타 학부생도 졸업 후에 입학하여 2년제 석사 과정을 통해 교사가 될 수 있는 모델로 할지, 혹은 학사와 석사 과정을 연계해 5,6년제로 예비 교사를 가르치고 양성하는 모델을 도입할지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두 모델의 공통점은 교전원을 졸업하면 전문석·박사학위 또는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전원의 설립 목적과 운영 현황

설립 목적	- 법학전문대학원, 약학전문대학원 등 다른 전문 대학원처럼 전문직으로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설립됨. - 구체적으로 명시된 설립 목적을 살펴보면, '교육자로서의 지도적 자질을 향상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드러남. → 예비 교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직 교사의 재교육 및 계속 교육에 중점을 둔 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실천적 이론과 실무 위주의 교육 내용을 다룸. - 오늘날에는 교사의 역할이 학생 개개인의 인성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 신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교전원 설립이 정당성을 얻고 있음.
운영 현황	- 10개의 교육대학교 중 2곳(서울교대, 경인교대)에서 석·박사 과정이 개설됨. - 나머지 8개의 교육대학교에는 석사학위과정 특수대학원(교육대학원)이 개설됨.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는?

교육부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을 추진한 배경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교원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는 점을 든다. 석·박사 통합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교육 현장에 대한 연구와 실습 경험을 두루 갖춘 예비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원 양성 과정부터 석사급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핀란드를 비롯한 독일, 일본과 같은 주요 교육 선진국에서도 교사에게 5,6년을 공부해야 하는 석사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핀란드와 미국의 교사 양성 수업 연한은 5년, 일본은 6년, 독일은 6.5년이다.

지필 고사 위주의 교사 임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 또한 교전원을 찬성하는 입장이 제시하는 근거이다. 현재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은 논술형, 단답형, 서술형인 1차 시험과 교직 적성 심층 면접, 수업 실연·실기로 구성된 2차 시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1차 시험 성적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부는 예비 교사들이 당장 시험을 위한 공부에만 매진하느라 정작 교육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교사가 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시험 제도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만약 교전원이 도입된다면 1~2년간 교대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음에 따라 **교원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교육 현장에서는 교대와 교대, 교대와 사대, 사대와 사대가 통합해 교전원이 도입될 가능성이 큰 것을 감안할 때 **교전원 도입이 교사 정원 감축으로 번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즉, 당사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교·사대 통폐합과 교사 정원 감축이라는 경제 논리를 기저로 하여 소수에 의해 추진되는 정책이라는 점을 비판한다. 또한, 실제로 교원 감축이 필요한지를 따져보면 예비 교사 및 교육계 종사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 상황이다. 김호연 전주교대 총학생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개인 맞춤형 교육은 인공지능(AI)를 도입한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라 적정한 학급 당 학생 수를 갖춘 환경에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충분한 관심을 줄 수 있을 때 가능하다"며 "교사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교원감축 물밑작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교전원 설치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미래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섣불리 교원 감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나아가 교육 주제들은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대체로 공감하지만, 찬성 측이 제시하는 교전원 도입이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교전원 도입을 반대한다.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 개편과 재직 중 재교육, 수업 이외의 업무량 및 강도 조정 등으로 교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3년 2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 의원과 교육정책 디자인 연구소가 발표한 '교육부의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정책에 대한 교육주체 3만 1900명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81.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이 중 40.1%는 '교전원 도입이 교원의 전문성이나 역량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보기 때문'을 이유로 꼽았다. 이 문제에 대한 예비 교사들의 입장 또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자면, 지난 1월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기자회견에서 성예림 서울교대 총학생회장은 "교사의 전문성 확보는 단순히 지금보다 공부 기간을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교육 현장을 잘 이해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며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교전원 설립보다 오랜 기간 바뀌지 않은 교대의 교육과정을 교육 현장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예비 교사들의 반대와 관련해서는 **학습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학비와 학업의 부담감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담은 우수한 학생들의 교육대학교 기피 현상을 초래해 교사 질이 하락할 수 있다. 교·사대생들은 치열한 시험을 뚫고 교사로 임용되는 데 반해 교전원생들은 졸업만 해도 교직에 입성할 경우와 관련하여 **공정성에 대한 비판** 또한 교전원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교육전문대학원에 대한 전국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대응: 0326 공동행동

그렇다면 교육전문대학원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전국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상반기 교육공동행동 진행 여부 결정을 위한 총 투표를 진행하고, '0326 전국 예비 교사 분노의 집회'라는 이름으로 3월 26일 공동행동을 진행하였다. 공동행동을 위해 전국 교육대학교에서는 '공동행동 서포터즈 불씨'를 조직하여 학우들에게 '교전원 이슈'와 그에 대한 예비 교사로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 0326 공동행동을 주최하는 이유 및 참여의 필요성 등을 널리 알렸다. 공동행동 당일에는 전국 약 1500명의 예비 교사 및 교육 분야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한 데 모여 교전원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발언 및 퍼포먼스를 수행하고, 시청역 7번 출구에서 숭례문을 거쳐 삼각지역까지 행진을 하며 요구안을 함께 외쳤다. 이때 교육부와 정부에게 알리고자 하는 요구안은 다음과 같았다.

①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철회	② 교육대학 6년제 반대
③ 기간제 교사 확대 정책 중단	④ 목적형 양성체제 강화

♥ 목적형 양성체제란? 교육대학교 같은 '목적대학', 즉 전문 교원양성기관을 설치하여 교원을 양성하는 것. 교대를 졸업해야만 초등 교사가 될 수 있는 체제.



공동행동 서포터즈 불씨 - 서울교육대학교





0326 전국 예비교사 분노의 집회

(출처: 서울교육대학교 불씨,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교육전문대학원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

현재 교육부는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의 추진을 유보한 상태이다. 지난 4월 21일 발표한 입장문을 살펴보면, "교전원 시범운영 방안 논의를 당분간 유보하되 시급한 과제인 현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선과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논의에 집중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입장은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 교육계의 반발과 예정된 중장기 교원 수급 방안 발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 교원수급방안 발표와 교전원 시범운영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교원 감축' 기조에 대한 반발이 심해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교전원 출범은 일시적으로 연기되기는 했으나 완전히 철회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의 결정은 교대 총장들의 교전원 시범운영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견을 존중한 것일 뿐, 철회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즉, 교원 양성 체제

개편의 필요성은 여전하며 앞으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사회에 맞추어 거듭 발전해야 하며, 교사들이 꾸준히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과연 '교육전문대학원'일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을 때, 하나의 예로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보다) 교육 과정, 교수진, 지필고사 위주의 임용시험을 개선해 현장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작 필요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성급하게 교전원이 도입된다면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교원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교전원 도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 대도시 과밀 학급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 선발 인원 확대에 대한 고려 없이 **허울뿐인 전문성**을 키우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당신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사향지기에게 들려주세요!

서울교대 학우 및 교직원 여러분! 평소에 궁금했던 주제나 사안을
사향지기에서 대신 취재해드립니다.
창의적인 기사 아이디어를 보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사소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작은 울림을 줄 소중한 이야기들을
사향지기가 기다립니다.
교내(캠퍼스), 교육, 문화, 사회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
그곳으로 사향지기가 취재하러 갑니다!

소통하는 사향지기

문의 편집국장 홍다혜(010-4566-3249)

신비한 학급 경영 사전

편집위원 김민혜

당신은 1년을 어떻게 그리는가? 새로운 다짐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듯, 새 학기가 되면 자연히 자신의 이상적인 교실을 그리게 될 것이다. 이상과 현실 사이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실천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목표 실현의 밑거름은 바로 '학급 경영'에 있다.

어쩌면 학급 경영을 농사에 빗대어볼 수 있지 않을까. 교실을 밭에, 학생들을 열매에 비유해 보자. 밭의 존재만으로 하루아침에 알찬 열매가 맺히지는 않는다. 교실이라는 밭을 어떻게 가꾸어야 할지 막막한가? 조선시대에 「농사직설」이 있었다면, 21세기에는 **「신비한 학급경영 사전」**이 있다! 당신의 1년을 좌우할 학급 경영, 그 정의부터 디자인 방법, 적용 사례까지 낱낱이 알아보자.



학급 경영이란?

학급 경영이란 학교 교육의 단위조직인 학급을 교육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영위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학급 경영은 교수 · 학습활동, 생활 지도 활동, 시설과 공간의 활용, 각종 사무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학급 경영의 하위 영역

넓은 의미의 학급 경영	- 수업 활동 - 생활 지도 활동 - 그 외 제반 활동(창의적 체험활동)
중간 의미의 학급 경영	- 넓은 의미의 학급 경영에서 수업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
좁은 의미의 학급 경영	- 넓은 의미의 학급 경영에서 수업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
학급 경영의 예시	- 학급 환경 정비, 학생 행동 경영, 학부모와 관계 맺기, 학급 규칙 제정

이처럼 학급 경영은 다양한 의미로 세분화하여 나타낼 수 있으며, 교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다 아우르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학급 경영, 어떻게 디자인할까?

학급 경영, 어떻게 디자인해야 할지 막막한가? '학', '급', '경', '영' 4가지 법칙을 알아보며 학급 농사의 안정적인 양분을 마련해 보자.

① 학 : 학급 속 교사의 마음 지키기

"교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학생들도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다. 교사의 몸과 마음이 안녕한지 먼저 물어야, 건강한 학급을 경영할 수 있다.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고갈에서 벗어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교사 자신만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② 급 : 급변하는 교실 상황에 대응하기

교육 현장은 급변하는 사회에 빠르게 대응한다. 코로나19, 디지털 정보화 시대라는 변화에 맞닥뜨렸다면, 학급 경영도 블렌디드 형식으로 구상할 수 있다.

③ 경 : 경영자인 교사의 1년 생활 들여다보기

학급의 1년은 매번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된다. 시기별 특징을 분석한 후, 적절한 계획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2월	연간 업무 확정	8월	2학기 학급 분위기 재설정
3월	학급 환경 구상	9월	학급에 영양분 공급
4월	아이들의 텐션 높이기	10월	학급 문제 발굴 및 해결
5월	모두를 살피고, 지키고, 보듬기	11월	누적된 과제 해결
6월	상담과 공개 수업 준비	12월	연간 업무, 용두용미 그리기
7월	1학기 마무리	1월	건강한 헤어짐 가르치기

이진영, 열두 달 학급경영과 교사의 마음 돌보기, 2021: 테크빌교육.

④ 영 : 영특한 아이들의 힘을 믿다, 스스로 움직이게 하기

교실의 주인공은 교사가 아닌 학생이다. 교사는 학생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로서 자리해야 한다. 교사는 적합한 환경을 마련하며, 학생들이 자기다움을 바탕으로 학급 활동에 임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학급 경영 계획을 세울 때도, 교사의 시선과 더불어 학생의 시선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급 경영 돋보기

학급 경영의 본보기가 되는 사례들, 함께 확대해 보자!

모든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학급, 기회디자인

교실 속 권리는 학생 한 명에게 독점되면 안 된다. 하지만 교실 속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아이, 그리고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는 아이, 이 모든 부류가 존재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회디자인'**이다. 기회디자인이란 학생 한 명이 기회를 독점하지 않고, 학생들이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 모두에게 골고루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는 개념이다. 기회디자인의 4가지 전략은 **횟수, 과정, 결과, 효율**이다. 교사는 기회 디자이너로서 활약해야 한다.

횟수 이상적인 학급은 학생들이 모두 동일한 횟수의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모두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기가 어려운 현실이기에, 적어도 특정 학생이 기회를 독차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정 발표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제공되어도, 주목이 불편한 학생들이 많다. 학생들이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서적 편안함의 과정을 추구해야 한다.

결과 학생들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할 때 망설임을 느끼게 된다.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효율 초등 수업 시간은 40분으로 제한되어 있다. 짧은 시간에 가능하면 많은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윤지영, 초등 자율의 힘, 2021: 아이스크림미디어.

수업 측면에서도 다음 디자인은 적용된다. **첫째**, 교사중심수업을 학생중심수업으로 설정한다. **둘째**, 강의식 수업을 모둠학습, 협동학습, 토의토론학습으로 설정한다. **셋째**, 거수, 지명, 발표의 학급회의를 학급서클회의로 설정한다. 이처럼 다양한 구조로 수업을 디자인하여 기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즐거운 학교, 놀이식 학급경영

놀이는 학생들이 견고한 관계를 쌓아나가게 하며, 수업의 흥미도를 증대시킨다. 하하호호 모두가 즐거운 놀이식 학급경영 사례를 간단히 알아보자.

칭찬기차 : 친구의 등에 부착된 종이에 친구의 매력과 장점을 적는다. 서로 기차처럼 돌아다니며 서로의 장점을 적어주고, 다양한 장점을 확인한다.

소수밸런스 : 2개의 상황에서 친구들이 더 적게 고른 상황이 점수를 얻는다. 아이들은 다수결에서 한 걸음 물러나 소수의 의견이 존중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

교실복권 : 복권처럼 생긴 활동지를 제공하고, 아이들은 선생님의 문제를 듣고 떠오르는 키워드를 한 칸에 한 개씩 적는다. 키워드가 복권 상의 숫자 느낌이 되며, 가장 키워드 적중률이 높은 사람이 복권 당첨자가 된다.

밭에 어떤 씨를 뿌리고,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 한 해 수확은 확연히 달라진다. 교육도 다를 바 없다. 당신이 어떤 교실을 경영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1년간 맺는 결실은 달라질 것이다. 한낱 밭뙈기에 불과해 보이는 당신의 교실. 사실 아이들은 그곳에서 발아하고, 뿌리를 내리고, 싹트게 된다. 소중한 공간에서 따뜻한 양분이 되어줄, 당신의 힘찬 1년을 응원한다.



우리가 바라는 영어교사는?

편집위원 진승원
편집위원 이수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영어교사는 어떤 모습일까? 영어를 잘하는 교사, 학생 개인에게 관심이 많은 교사, 활동을 재미있게 하는 교사….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각자가 바라는 영어교사의 모습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전문성을 갖춘 교사이다. 그렇다면 영어교사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영어교사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Motivation, 교사인지, 영어 교수 학습용 에듀테크,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적용 모델 등이 있다.

Motivation

우리는 많은 교과에서 motivation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러나 motivation이 대체 왜 중요하다는 말인가? 바로 'Motivation이 피상적이고 옅은 학습과 깊고 내면화된 학습 사이에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motivation을 통해서 아이들을 깊고 내재화된 학습의 장으로 이끈다. 예를 들어 그냥 기계적으로 가르치는 교사보다는 수업 자체를 즐기고 헌신적인 교사의 수업이 아이들의 motivation을 끌어올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Motivation의 5T

Teacher	배려심이 많고, 유머러스하고, 헌신적이며 학생들과 좋은 교감을 형성하는 교사는 motivating한 교실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Teaching methodology	학생들의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다양한 교수법을 사용하는 교사는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Text	강의 자료로 사용되는 문자는 아이들에게 흥미롭고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의 현재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Task	학생들의 경험과 기술 수준에 속하는 과제들, 학생들이 실제보다 더 많은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과제들은 동기부여에 큰 힘이 된다.
Test	학생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현재의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테스트는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학습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교사인지

'교사인지'는 교사가 알고 믿고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교수의 인지적 영역 전반이다. 즉, 교사가 하는 일들은 모두 교사인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에듀테크를 사용하는 것이 주의가 산만해지기 때문에 영어 학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교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대신 이 교사는 실물을 제공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이끈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자신의 소원을 영어로 공유할 때 패들렛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실제 크리스마스트리를 wish tree라고 소개하고 거기에 소원 카드를 걸어서 공유하는 것이다. 교사의 이러한 모든 생각들이 교사인지이다.

영어 교수 학습용 에듀테크

'에듀테크'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전통적인 교육에 정보통신,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창출한다. 이러한 에듀테크를 잘 활용하는 것이 교사의 전문성이다. 에듀테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수업의 질과 그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이 있다. 주의할 점은 다른 교사들이 영어시간에 에듀테크를 사용한다고 해서 꼭 따라 할 필요는 없다는 것! 그 이유는 에듀테크를 사용하다 보면 학생들이 영어 학습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듀테크의 기능에만 초점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듣기, 말하기 활동 지원 에듀테크

*보키(Voki): 가상의 캐릭터를 생성하여 텍스트를 입력하면 캐릭터가 말을 한다.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말하기·듣기 연습도 할 수 있다.

*2DUB: 영화, TV 등의 영상을 보고 소리를 들으며 바로 따라 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원어민의 목소리 음조와 자신의 음조를 비교하는 그래프도 얻을 수 있다.

읽기, 쓰기 활동 지원 에듀테크

*캔바(Canva): 포스터, 수업자료를 다양한 템플릿을 통해 쉽게 제작 가능하다. 클래스를 만들어 아이들을 초대하고 온라인 제작 과제 제시가 가능하다.

*클래스 카드: 자신만의 단어장을 쉽게 만들 수 있다. 단어만 입력하면 뜻, 발음, 이미지까지 자동 추가되며 PC, 스마트폰으로 학습할 수 있다.

MAP & ADDIE 모델

영어 교과는 비단 언어적 측면뿐만이 아닌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사는 문화 지도로서의 영어교과를 다룰 때,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 다문화 되어가는 교육 현장에서, 영어와 그 문화를 가르칠 때 교사는 'MAP 모델'과 'ADDIE 모델'을 적용한 수업을 구현할 수 있다.

MAP 모델

Motivation (동기유발)	그림, 사진, 영상 등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
Activation (활동)	언어 또는 문화를 학습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짝, 모둠 활동을 통해 적용하는 연습을 한다. 극화 활동이나 게임, 춤 등을 활용하여 기술과 동작을 익히고 반복한다.
Personalization (개인화)	학습을 통해 내면화한 내용을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적용하고 이를 표현한다.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이 과정에서 영어의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문화와 영어의 양면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MAP 모델은 단순한 문화적 현상이나 언어 학습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 글로벌 문제를 선정하여 이해하고 그것의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적극적인 영어 학습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ADDIE 모델

MAP 모델을 적용한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ADDIE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아래와 같다.

1) Analyse(분석) 단계: 학생들의 전체적인 수준을 파악하고, 학습 목표를 세분화한다. 학습자의 요구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모델을 선택하고, 수업 시 활용 가능한 자재 등을 파악한다.

2) Design(디자인) 단계: 학습 목표에서 강조되는 역량은 무엇인지, 해당 역량을 키우기 위해 어떠한 수업을 설계할 것인지 고민하고 전반적인 활동과 교육 및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3) Develop(개발) 단계: 디자인 단계에서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업 및 평가 계획서를 작성하고, 어떠한 교육 자료를 활용할 것인지 구체화시킨다.

4) Implement(실행) 단계: 준비된 교육 자료를 활용한 수업을 구현한다.
5) Evaluate(평가) 단계: 학생의 활동 수행 과정을 바탕으로 성장, 노력 및 성취 수준을 평가한다. 또한 수업에서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었는지 점검하며 피드백한다.

교사는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단계에서 MAP, ADDIE와 같이 여러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수준 높은 영어 수업을 실현할 수 있다.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수준에 적합한 활동을 실시하여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화, 언어적 측면에서 영어를 학습할 때,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교실 활동에 참여하고 영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다.

다음은 풍부한 영어 전담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 보라매 초등학교에서 2년 차 영어 전담을 맡고 계신 정수진 선생님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Q. 영어 과목은 다른 과목보다 (영어 유치원, 조기 교육 등에 따라) 특히 더욱 학습 격차를 느끼는 거 같습니다. 각기 다른 수준의 학습자들을 교사 한 명이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나요?

A. 결론적으로 학습 격차가 있다 보니 흥미를 이끌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등 재밌는 활동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랜덤한 성향의 활동(실력에 상관없이 작용하는 요소, 예를 들어 주사위 굴리기)을 넣어 게임 요소를 가미하면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나 그렇지 않은 학생이 모두 재미있어하니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Q. 영어 교과에서 개별화 맞춤 학습이 가능할까요?

A.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기 등이 많이 도입되다 보니 온 오프라인을 연결해서 하면 개별화 맞춤 수업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수업에서는 기본적인 과제나 활동을 내어준 다음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추가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죠. 오프라인에서는 실력이 부족한 학생을 남겨서 한다거나 따로 과제를 주면 티가 나지만 온라인은 비교적 그럴 우려가 적기 때문에 개별화 맞춤 학습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Q. 영어 교육에 대한 선생님만의 철학이 궁금합니다. 초등 영어 교육에서 가장 중점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영어 교육에 대한 철학이라고 한다면 주어진 시간 시간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학생들이 일주일에 2~3시간 공부를 하다 보니 소통을 잘 하려면 영어가 필요한 것 같다고 느낍니다. 영어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나 요구를 초등 수준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영어 교육의 핵심이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영어 교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경험과 수업 활동들은 영어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새로운 언어와 해당 문화를 학습할 때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수업을 제공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교사가 되길 바란다.

미분적 사고를 갖춘 삶

수습위원 김도아

모든 것은 변한다. 다만, 어떤 것은 너무 빨라서, 어떤 것은 너무 느려서, 어떤 것은 너무 복잡해서 그 변화 과정을 다 인지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느리든 빠르든 복잡하든 눈 깜짝할 새에도 모든 것은 변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매 순간의 변화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얻는 정보는 사실상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늘 정보의 빈 곳을 추측하며 살지만 정확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분을 이해하면 인간의 감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미세한 차이도 알아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다. 아무리 복잡한 현상일지라도 매 순간의 변화를 한 장의 그림처럼 명확하게 그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미분이다.

그런데, 미분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

? 미분이란?

미분이란 움직이는 대상의 한순간을 포착해서 그 대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변화하는 대상의 정확한 속도와 위치를 모조리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미분의 의의이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미분을 통해 복잡하게 변화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키울 수 있다. 미분이 실제 산업에 적용된 예로는 과속 단속 무인카메라, 비행기 제동 거리 계산, 애니메이션 그래픽 구현 등이 있다.

? 미분적 사고란?

미분적 사고란 미분을 통해 당장 눈앞의 현상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상태까지 고려하는 태도를 말한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한다. 갈등 또한 다원적이고, 뭔가를 올바르게 결정하려면 여러 요인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사회에서 요직을 맡고 각종 분야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할 교사는 주어진 수치에 매몰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변화와 그 너머까지도 통찰할 줄 알아야 한다. 즉, 미분을 통해 우리는 <미분적 사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미분적 사고를 실생활에 적용해 보자. 몸무게가 70kg인 갑과 을이 있다고 가정하자. (단, 갑과 을의 키, 체질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둘의 몸무게가 <같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갑은 채소, 과일 위주의 식단과 운동을 병행 중이고 을은 매일 고열량의 식단으로 과식한다. 단순 수치만 보면 두 사람의 몸무게는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미분적으로 상황을 고려해보면 앞으로 갑의 몸무게는 감소, 을의 몸무게는 증가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미분적 사고를 문학에 적용해 보자. 가끔 고전 작품 중에는 살인과 고리대금이 나오고(죄와 벌), 성적으로 문란한 주인공이 나오기도(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한다. 미분적 사고를 적용하면 고전 문학을 통해 인류 과거의 궤적을 성찰하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을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다. 이 예시들 외에도 주식을 사고팔 때도 현재 가격이 아니라 앞으로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며 고려하는 것처럼 미분적 사고는 생각보다 일상적이고 유용하다.



미분적 사고를 갖춘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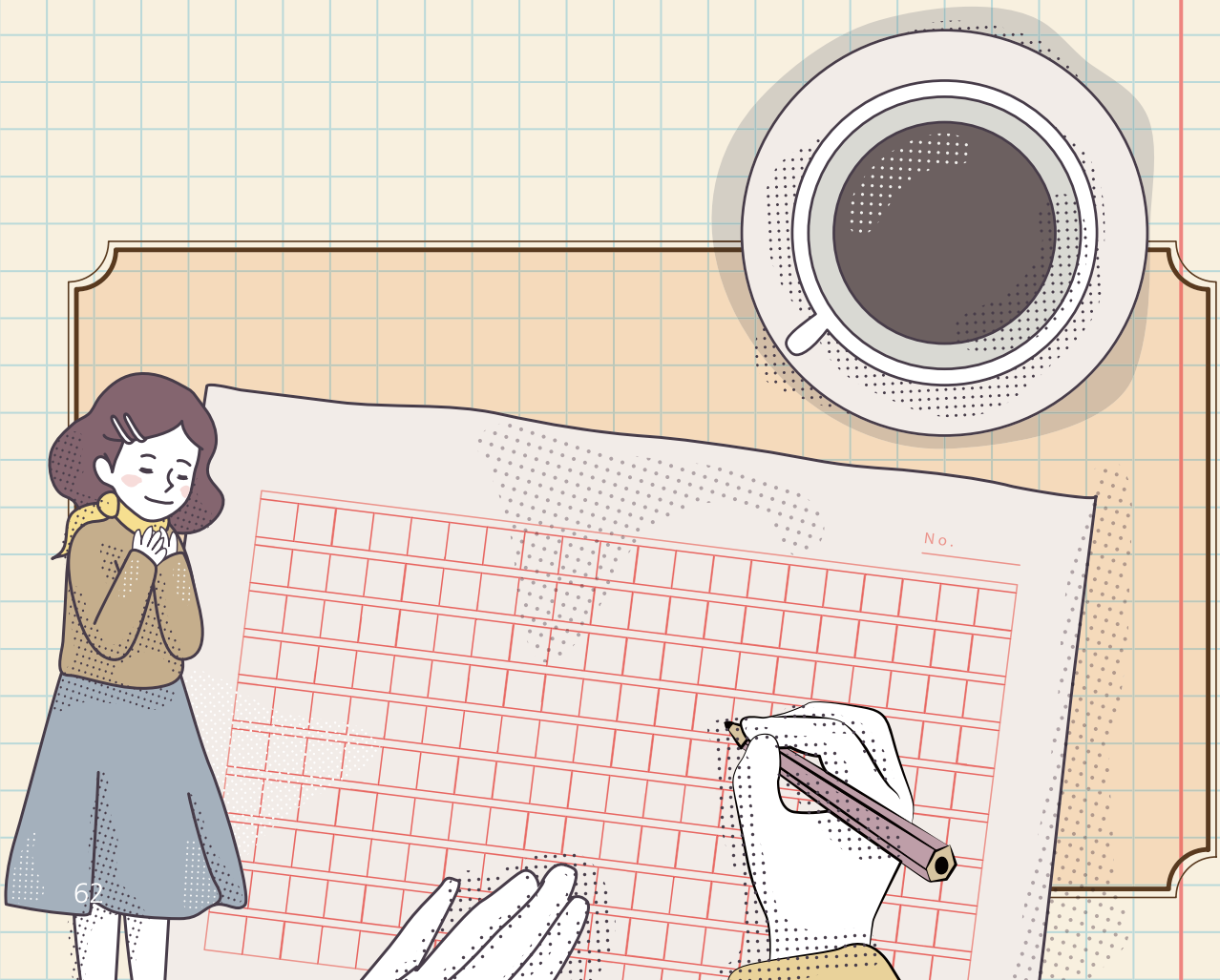
한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떤 아이인지 평가할 가장 달콤하고 손쉬운 기준은 성적이다. 그렇지만 성적이 이 아이를 모두 보여 줄 수 없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이다. 똑같은 성적을 받았어도 개인의 잠재력과, 현재의 노력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성적 이외에도 경제력, 외모 등 여러 사회적 잣대로 아이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사람은 단순 평가의 대상이 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평가를 해야 하는 가슴 아픈 상황이 온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미분적 사고다. 본질을 꿰뚫는 것. 변화를 통찰하는 것. 현상 이면을 직관하는 것. 그리고 이 아이의 앞으로 지날 궤적이 더욱 찬란하도록 잠재력을 알아봐 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분적 사고를 갖춘 초등교사가 해야할 사명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교사라는 '전문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저런 잣대로 재고 따지고 구분 짓는 건 쉬운 방법이지만 어쩌면 발전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쉽게 처리하는 무책임한 행동일 수 있다. 교사의 무책임한 프레임 때문에 아이는 평생 낙인 속에 갇혀 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조심해야 할 것 같다. 현상 뒤에 숨어 있는 변화율까지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을 지닌 서울교대생이 될 수 있길, 또 평가항목 안에 담아낼 수 없는 학생 개개인의 삶의 궤적까지 사랑하는 따뜻한 교사가 되기를 응원한다.

초등학교 받아쓰기 교육 A to 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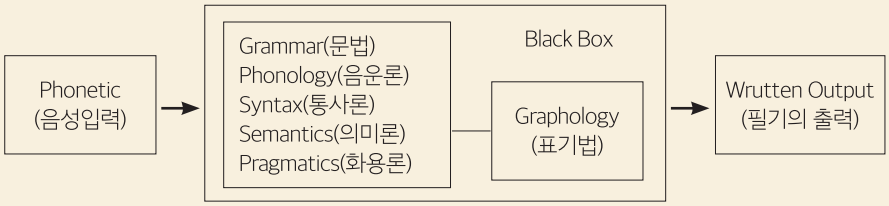
편집위원 송태영
편집위원 정민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보았을 때 누구나 한 번쯤 선생님이 내주시는 문장들을 외우고 쓰며 받아쓰기를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국어교육에서 학생의 맞춤법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받아쓰기를, 예비교사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받아쓰기 교육의 A to Z. 태영, 민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자.



받아쓰기의 개념

받아쓰기는 **학습자가 들은 내용을 어휘, 문장 또는 담화 단위 그대로 적는 활동**을 말한다. 받아쓰기는 사전적 의미로 '남이 하는 말이나 읽는 글을 들으면서 그대로 옮겨 씀'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통합적 평가와는 거리가 먼 맞춤법 테스트, 기억력 테스트 정도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받아쓰기를 **쓰기 능력뿐 아니라 듣기 및 문법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통합적인 언어 활동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대두되고 있다. 듣기 능력의 신장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에 학습자의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을 모두 다룰 수 있는 활동이며, 듣고 이해한 것을 재생성할 수 있으므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라는 것이다.



위 도식에서 추론해 볼 수 있듯이, 받아쓰기는 문법, 화용론, 의미론, 통사론, 음운론을 모두 포함한다. 올러(Oller)는 받아쓰기가 언어기능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데 유용한 도구임을 역설하며, 받아쓰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단순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받아쓰기를 복잡한 음성 입력이 학습자의 여러 언어학적 지식과 결합한 후 문자로 출력되는 것이라 보았다. 만약 받아쓰기 평가를 음성 입력에 따른 단순 철자 시험으로 인식했다면, 그것은 도식에 제시된 Black Box 속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복잡한 사고 과정을 간과한 것이다.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김도남 교수님의 Tip

받아쓰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국어교육 활동입니다. 받아쓰기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해당하는 글자를 쓰는 것이지만, 그 활동에는 몇 가지 인지적 요인이 관여합니다. 소리와 글자의 관계 인식을 넘어 의미가 관련되지요. 예를 들어 '안따'라는 소리는 '앉다, 않다, (품에) 안다' 등을 글자(낱말)와 관계되고,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 낱말은 '안따'라는 소리만으로는 구별하여 쓸 수 없지요. 그래서 상황이나 맥락에 의한 소리가 지시하는 의미를 인식하고, 의미에 맞는 글자를 써야 합니다. 받아쓰기에서 문법은 소리, 글자, 의미, 상황·맥락 등이 종합되어 낱말이나 문장 표현(쓰기)이 어법에 맞는 것을 뜻합니다. 받아쓰기에서 맞춤법은 단순한 글자의 정확함을 넘어, 상황·맥락에 따른 의미를 고려한 낱말이나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즉 받아쓰기는 통합적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적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받아쓰기의 교육적 효과

받아쓰기는 언어기능 발달 측면에서 쓰기를 비롯한 문법, 듣기 등의 **통합적인 언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학생들은 스스로 문법 오류를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세운 문자에 대한 가설을 시험하고 확인할 수 있다. 또, 교실 현장에서 받아쓰기는 **모든 학생이 활동의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공통의 문제와 정답이 존재하기에 학생 수가 많을지라도 균등한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어 사용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기반으로서도 의의가 있다. 받아쓰기는 듣고 쓰는 활동이므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식별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어휘 능력을 기를 수 있고,

초보적인 문장 혹은 텍스트를 형성할 수도 있다. **학습하는 방법**으로서의 의의도 지닌다. 교사의 발화를 듣고 쓰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능력, 들은 것을 메모하는 능력, 자기 학습 성과에 관한 자기 조정 능력 등이 함께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김도남 교수님의 Tip

받아쓰기는 말을 듣고, 들은 것을 그대로 글자로 쓰는 것입니다. 이 받아쓰기를 국어과 교육에서 볼 때, 표면적으로는 듣기, 글자 쓰기 활동입니다. 그렇지만 받아쓰기가 이루어지는 상황과 학생의 인지적 활동을 고려하면 이해와 표현이 함께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교사의 말을 듣고, 학생은 소리를 지각하고, 내용을 파악하며, 내용(의미)을 판단하고, 어법을 떠올리고, 글자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받아쓰기는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이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받아쓰기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뜻합니다. 받아쓰기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의 능력을 직접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적인 기능은 충실히 수행하는 면이 있습니다.

초등 국어 교과 교육과정 내에서 교육할 수 있는 받아쓰기 유형

초등학교 교실에서 받아쓰기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대부분 교사가 문장을 불러 주고 이를 학생들이 받아 적는 모습을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기초 문식성 향상이라는 학생들의 학습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받아쓰기 유형과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받아쓰기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낱말과 문장을 학습하기 위해 어떠한 받아쓰기 유형을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자.

1) 그림과 관련된 낱말 받아쓰기

■ 그림과 관련된 낱말을 듣고 받아 써 보세요.



참외



바퀴

2) 빈칸 채우기

■ 글을 잘 듣고 빈칸을 채워 보세요.

이번 주 (토요일)은 소라 (생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소라에게 (비밀)로 하고 생일 파티를 (준비하려고) 해. (케이크)도 만들고, (음료수)도 사고, 앨범도 만들어서 (선물하기로) 했어. (우리가 같이 찍은 사진)으로 앨범을 만들어 줄 거야.

3) 듣고 고쳐 받아쓰기

■ 문장을 잘 듣고 들은 문장의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써 보세요.

- 쌀과 옷을 나누어 주엇지요. → 쌀과 옷을 나누어 주었지요.
- 삐쭉삐쭉 여러 갈래 머찐 수염 → 삐죽삐죽 여러 갈래 멋진 수염
- 논에 물음 대고 벼를 십슴니다. → 논에 물을 대고 벼를 심습니다.
- 단풍처럼 빨갖기 때문이다. → 단풍처럼 빨갛기 때문이다.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김도남 교수님의 Tip

받아쓰기를 처음 하는 학생들에게는 받아쓸 것을 미리 알려주고 외우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받아쓸 낱말을 학습하는 효과가 있고, 받아쓰기 활동에 대한 학생의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받아쓰기 활동이 점차 익숙해지면 받아쓸 것을 미리 알려주는 '받아쓰기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활동을 돕는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국어 교과서에서 받아 쓸 낱말이나 문장이 들어 있는 부분을 지정하여 주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교과서의 지정된 부분에서 받아쓸 낱말이나 문장을 찾아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받아쓰기 교육의 지도 방향

이렇듯 학생들의 기초 문식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현재의 받아쓰기 교육은 보다 체계적인 학습 체계를 갖추어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기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음-음소의 대응 관계의 이해와 단어나 문자의 의미 이해의 측면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받아쓰기 교육을 구현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자.

① '듣고 말하기'나 '듣고 쓰기', '읽고 쓰기' 등 다양한 기능 통합 형태로 받아쓰기 유형을 구현하기

받아쓰기는 '듣고 말하기'나 '듣고 쓰기'의 형태로 받아쓰기 유형이 구현되어 기능 통합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킴으로써 의사소통을 위한 전반적인 이해 능력을 기를 수 있다.

② 빈칸 채우는 받아쓰기 활동 적용하기

빈칸 채우기 활동은 특정 정보가 생략된 문장을 들으며 빈칸을 채워 나가는 것으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듣는 훈련에 적합한 형태이다. 빈칸에 어떠한 어휘가 들어갈 수 있는지 미리 생각하게 할 수 있는데 교사가 불러 주는 어휘가 아니더라도 앞뒤 문맥에 어울리는 표현이라면 듣고 쓰기 능력뿐만 아니라 어휘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빈칸 채우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③ 모둠별 활동이 가능한 '서로 받아쓰기'나 '릴레이 받아쓰기' 활동 도입하기

모둠별 활동을 도입한 받아쓰기 교육은 학습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켜 보다 활기찬 수업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상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사는 이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김도남 교수님의 Tip

글자 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의미와 관계없이 소리와 글자만의 연합하는 활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한 글자씩 끊어서 읽어 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점차 글을 쓰는 데 익숙해지면 통합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상황·맥락에서 의미를 구별하는 글자를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받아쓰기의 중요 목표 중의 하나가 생각(의미, 내용)을 글로 써서 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겹받침으로 의미를 구별해야 하는 낱말을 그 수가 많지 않으므로 따로 뽑아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 값, 흙, 맑다, 밟다, 붉다, 싫다, 앉다, 얹다, 옳다, 훑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쓰기 교육의 개념과 교육적 효과, 유형, 지도 방향까지 살피며 초등학교 받아쓰기 교육을 낱낱이 파헤쳐 보았다. 받아쓰기는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집중하며 치열하게 공부했던 우리의 초등학교 시절을 은은하게 비춰준다. 즉, 받아쓰기는 학생들이 기초 문식성을 습득하는 시기에 가장 많은 언어적 자극을 주는 교육 활동이다.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받아쓰기 교육을 실현할 예비교사로서 받아쓰기 교육의 지도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 받아쓰기 교육은 학생들이 담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해도 괜찮을까요?

편집위원 정민우

만약 여러분의 교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은가? CCTV는 특정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현장 상황을 전송하는 장치로서, 우리 생활에서 필수가 되었다.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가 늘면서 CCTV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비단 학교 출입구나 운동장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교실 안에서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교실에 설치된 CCTV가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교실 안에 CCTV를 두어도 괜찮을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Talk Talk 수다 코너

찬성 측 입장: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하는 데 찬성해. 얼마 전, 학교폭력의 비극을 담은 드라마 '더 글로리'가 세계적으로 큰 히트를 치면서 '학교폭력'의 현실을 재조명했어. 만약 피해자가 고통을 겪는 교실 공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가해자가 학교폭력 행위를 스스럼없이 단행할 수 있었을까? 이렇듯 **CCTV는 감시자 역할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실 내에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

반대 측 입장: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하는 데 반대해. 교실 내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CCTV 설치가 본인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모습을 항상 감시하겠다는 뜻이기도 해. 이는 **자신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자기 생각과 열정을 마음대로 펼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더 글로리 포스터 - 출처: 넷플릭스


교실 속 CCTV - 출처: 정보인권센터

왜 찬성하나... "교실은 학교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

교실 내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이들은 우리 사회가 크게 주목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한다. 또한, 학생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CCTV 설치는 교실 내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찬성 측의 근거로 삼는다. 여러 위험이 공존하는 교실에서 자녀를 맡겨둠에 따라 걱정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 A 씨의 인터뷰를 통해 교실 내 CCTV 설치의 당위성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학부모 A 씨: 만약 내 아이가 학교에서 학대받았는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교실 내 CCTV 설치를 찬성합니다. CCTV 설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나쁠 게 없어요. 최근 학생이나 학부모, 외부인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교권 침해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행동을 조심하게 될 것이며 폭력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도 있어요.

학교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가 바로 '교실'입니다. 실제로 보는 눈이 많고 개방된 교실에서도 학교폭력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내 아이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손이 떨리고 무서워요. 선생님이 없는 쉬는 시간에도 교실 내 CCTV가 감시의 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실 내에 정말 심각한 일이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확보할 수 있게 교실 내 CCTV 설치를 고려해 주세요.

교실 내 CCTV 설치는 비단 학교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교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 만큼 여러 순기능을 지니고 있다. 학생의 안전과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는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교실 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찬성 측 주장을 뒷받침한다. **교실 내 CCTV 설치, 학교폭력 문제와 교실 내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조사 학생 30% 이상이 교실 내 범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그 설치 목적이 정당성은 인정됩니다.

왜 반대하나... "사생활,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 제한"

반대하는 이들은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이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교실 밖에서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을 들어 찬성 측의 의견을 반박한다. 실제 서울 경찰청이 실시한 2017~2021년 통계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교내(32.7%)보다 교외(56.4%)에서 더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또한 CCTV는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을 침해**할 위험이 큰 편이다. 실제로 초등학교 교사 B 씨의 인터뷰를 통해 CCTV가 교육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자.

초등학교 교사 B 씨: CCTV 설치와 관련된 이슈를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저 역시 학교폭력 사건을 보면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교실 내 CCTV 설치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여태껏 가르치는 모든 아이를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일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저도 CCTV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직을 고려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실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CCTV 설치 의무화가 됐는데도 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처음에 카메라가 설치됐을 때는 신경이 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던 대로 하게 돼 있어요. CCTV를 설치한들 갈등만 더 심화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이를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책임감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교사도 하나의 직업이에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CCTV 설치가 아닌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교사를 퇴출하게 하는 방법이라던가, 교사당 아이 수를 줄이는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감한 시기에 이런 말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즉, 반대 측 사람들은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교실 내 CCTV 설치에 반대한다. 나아가, 이들은 CCTV에 찍힌 영상이 유출되는 사고가 생기면 CCTV를 설치한 이점보다 부작용이 더욱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교실 내 CCTV 설치, 교실 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싹틔우지는 않을까.**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조사 학생 30% 이상이 교실 내 범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그 설치 목적이 정당성은 인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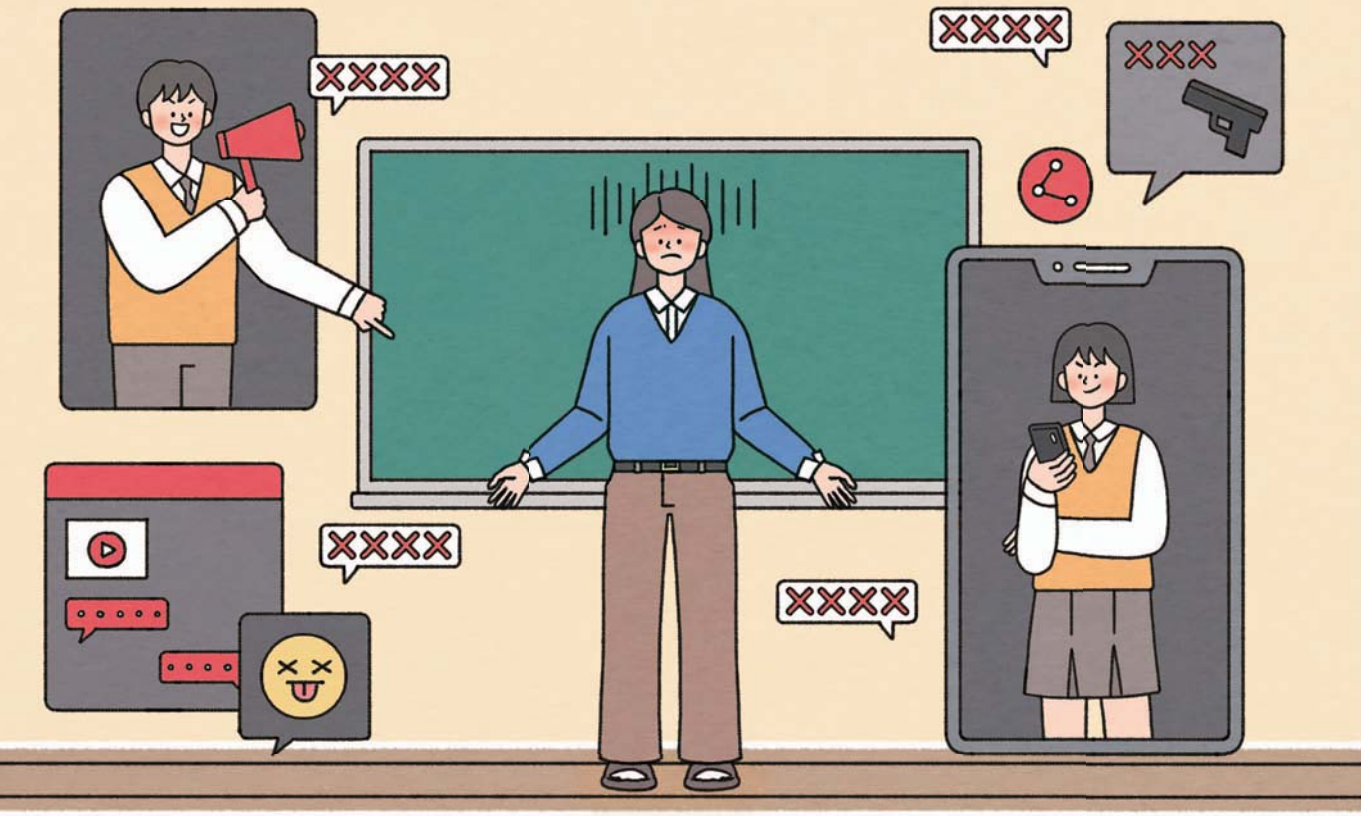
지금까지 교실 CCTV 설치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 측의 입장을 각각 살펴보았다. **찬성 측**은 교실 내 CCTV 설치를 통해 교실에서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고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한다. 그러나, 교실은 교사와 학생들이 자유로운 생활과 수업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 측**은 교실 내 CCTV가 누군가에게 불편하고 불쾌한 장치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교실 내 CCTV 설치, **학생들의 안전과 배움을 보장하고 지켜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의 신성한 권리를 침해하는 감시의 눈동자가 될 것인가.** 교실에서 CCTV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교자질 하는 아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편집위원 한혜림
편집위원 윤채원

사소한 실수나 친구의 잘못을 어른들에게 이르기를 반복하는 아이들, 왜 그러는 것일까? 고자질을 일삼는 어린이들의 심리와 미래의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슬기로운 대처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자!





*출처: 금쪽같은 내새끼 43회 [귀염뽀짝 산골마을 금쪽이의 두 얼굴]

산골마을에 사는 사랑스러운 금쪽이는 삼 남매 중 첫째이다. 무엇이든 알아서 척척, 동생들을 잘 챙기는 금쪽이. 하지만 엄마, 아빠가 없을 때 다른 모습을 보인다. 동생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 동생의 사소한 실수나 잘못을 부모님에게 고자질한다. 심지어는 거짓말로 내용을 꾸며 엄마, 아빠에게 동생들의 잘못을 이른다.

고자질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잘못이나 비밀을 일러바치는 것'이다. 위의 사례에 등장한 금쪽이처럼 사소한 잘못이나 친구, 형제자매의 실수를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이르는, 일명 '일름보' 친구들이 있다. 금쪽이도 형제자매의 사소한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부모에게 고자질한다. 고자질과 거짓말을 통해 부모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다. 고자질은 어린 나이 때 보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지만, 유독 별것 아닌 일에도 고자질하는 아이들, 이들이 고자질을 하는 심리는 무엇일까? 그리고 미래의 교사로서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고자질을 일삼는 아이들의 심리분석

고자질을 하는 아이들은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모든 아이들이 다른 친구를 혼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선생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을 외치는 것은 아니다. 고자질을 일삼는 아이들의 심리를 알아보자.

첫째, 아동이 고자질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만 5세에서 만 7세의 아이들, 즉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아동의 도덕성 발달 단계 중 도덕적 실재론 단계에 속한다. 이 시기의 유아는 절대적인 규칙의 변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인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행동 특성을 보인다. 고자질은 어른의 규칙을 어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알리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이 연령대의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남의 잘못을 헐뜯기보다는 '잘못된 행동을 알리기'라는 의무를 목적으로 발생하는 도덕적 발달 단계 상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오미경, 2016).

둘째,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으니 알려주세요!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자신에게 피해가 되고 있는 상황을 어른이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자질을 한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의 지우개를 가져갔을 때 침착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줄 아는 능력이 학습되어 있지 않아 고자질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의 해결 방법을 떠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께 달려가 지우개를 되찾아 주기를

요구하는 행위로 고자질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는 해당 상황을 감정적으로 파악하고 지금 지우개를 되찾는 것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성인에게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학습하지 못해 나타나는 결과이다.

셋째, 어른들이 저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고학년의 초등학생들에게도 고자질은 자주 나타나는 행동 특성이다. 고학년의 아이들이 과연 문제 해결 방식을 터득하지 못해서, 과한 고자질이 잘못된 것임을 알지 못해서 고자질을 선택할까? 그보다는 성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고자질이라는 표현 방법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이 친구는 잘못을 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하는 마음으로 고자질을 하는 것이다. 이는 어른들이 아이들 행동 결과의 옳고 그름에 지나치게 엄격한 태도를 가질 때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아이들이 어른들의 반응에 따라 과장하여 행위를 해석하거나, 감정에 지나치게 집중해 습관적으로 왜곡해 말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노원경 외 3인, 2013).

미래의 교사로서 대처방안

이렇게 고자질을 일삼는 아이들의 심리를 분석해 보았다. 그렇다면 미래의 교사로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고자질을 부모와 교사, 즉 어른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자질을 하는 아이들의 원인을 최우선적으로 파악하고, 고자질에 대처하는 어른들의 태도이다.

대처방안 1. 관심은 주되 과도한 반응하지 말기

아이들은 어른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형제자매, 혹은 친구의 잘못을 일러바친다. 만약 교사나 부모가 아이의 고자질에 '고맙다'라고 대처를 할 경우 아이의 고자질하는 행동 자체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때부터 아이들의 고자질의 목적은 칭찬이며 아이들은 칭찬에 예민하다. 매일 칭찬받고 싶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 다른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유심히 관찰하게 된다. 그러니 아이가 정보를 줄 때에는 관심의 방향을 아이의 말보다는 아이에게 맞춰보자.

"네가 말해줘서 상황을 알겠어. 선생님이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 너는 네가 할 일을 하렴."

관심을 주되 과도한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 교사의 칭찬이나 과도한 반응은 아이들의 고자질을 부추길 뿐이다.



대처방안 2. 마음 헤아리기

이미 고자질의 유혹에 빠져버린 아이라면 때로는 단호한 대처 이외에도 다른 솔루션이 필요하다. 바로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누가 너의 행동에 대해 어른들에게 고자질을 하면 기분이 어떨까' 질문을 던진다. 고자질이 왜 나쁜 행동인지 아이들이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때로는 아이가 고자질은 사실을 어른들에게 전하는 것일 뿐인데 왜 나쁜 것인지 물을 수도 있다. 이때 고자질에는 종류가 있고 너의 고자질이 남의 허물을 지적하기 위해서나 단순히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지 아이들의 언어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

대처방안 3. 교실 속 고자질 박스 만들기

'선생님, ㅇㅇ이가 그랬어요!' 수업 시간이든 쉬는 시간이든 점심시간이든 시도 때도 없이 교실 속에서 들리는 대표적인 고자질이다. 이럴 때는 고자질 박스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말은 글보다 더 많은 감정을 싣는다. 그래서 말은 아이들이 서로에 대한 고자질을 부추기기도 하고 교사가 고자질에 올바른 대처를 하기 어렵다.

고자질을 하고 싶을 때는 "글로 써서 고자질 몬스터에 넣어두자!"라고 대처방안을 알려주면 아이들은 글을 쓰는 과정에서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시간을 얻는다. 교사는 수업이 모두 끝나면 고자질 몬스터를 열어 아이들의 생각을 확인한다. 상황 발생 이후에 고자질을 보면 이미 해결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이들이 생각해 봐도 별것 아니었음을 알고 점차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식을 배워나갈 수 있다.



아이의 문제 행동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은 교사로서 항상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고자질은 많은 교사들이 골머리를 앓는 문제 중 하나이다. 다만 아이들의 행동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교사의 노력과 사랑이 있다면 고자질을 일삼는 아이의 행동도 충분히 교정 가능하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2023 통권 55호

3

CULTURE



소비자와 개발자의 경계를 허무는 모디슈머

'어린이...'이런 말 싫어요! 세상을 향한 아이들의 외침

지금 이 순간에만 즐길 수 있는 전시, 놓치지 마세요!

맛있지만 해로운 스낵컬쳐-'쇼폼'

서울교대, 그곳의 발자취를 따라서

타임슬립 시간여행! 서울 역사 구석구석을 걷다

이거 모르면 도태된다? 장안의 화제 챗 GPT



소비자와 개발자의 경계를 허무는 모디슈머

편집위원 윤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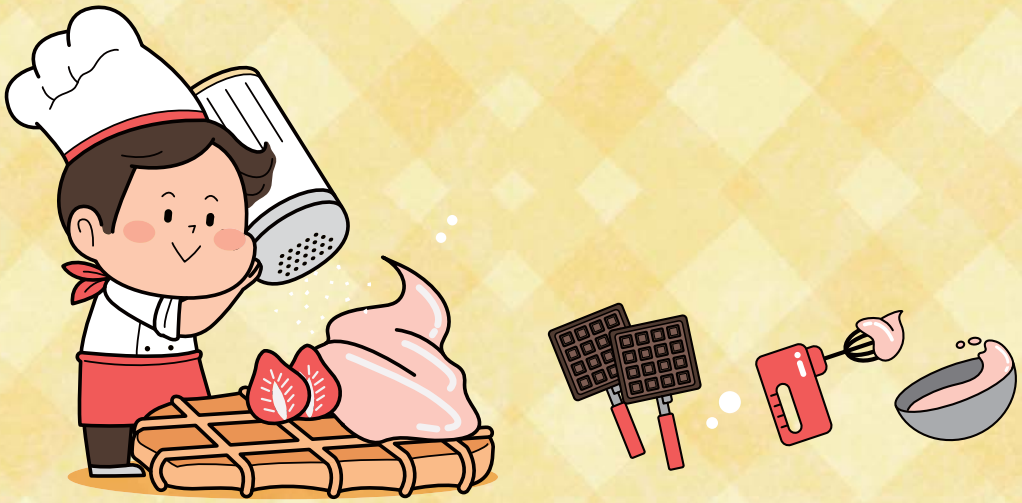
2013년 겨울, MBC 프로그램 '아빠! 어디 가?'에서 출연자 김성주가 요리한 라면, '짜파구리'를 맛있게 먹던 아이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가? 특히 출연자 윤후의 먹방이 화제가 되면서 짜파구리를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 소비자 사이에서 유행하였다.



출처: https://blog.naver.com/rydustlgja/130162438310

짜파구리는 농심 사의 라면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제조법대로 먹지 않고,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특정 비율로 섞어 만든 요리이다. 농심 라면 스프 개발팀의 윤재원 연구원에 따르면 유행 당시 해당 두 제품의 판매량이 급증하였다고 한다.(출처: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

그런데 하나의 요리를 먹기 위해 소비자가 여러 제품을 소비해야 한다면 그 유행은 오래갈 수 있을까? 기업은 소비자들의 소비 유행에 발맞추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소비자와 개발자의 경계가 허물어진 모디슈머 이야기, 그 의미와 사례, 사회 현상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모디슈머, 그것이 알고 싶다!

짜파구리와 같이 제품을 소비자가 취향에 따라 수정하고 재창조하여 소비하는 형태를 '모디슈머'라고 칭한다. **모디슈머(Modisumer)**란 'Modify'(수정하다)와 'Consumer'(소비자)의 합성어이다. 경제 시사학적 용어인 모디슈머가 최근 재조명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과거와는 달리 모디슈머 마케팅 전략의 도입과 함께 상품화되는 방식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2018년 이전에도 특히 1인 가구 중심으로 편의점 식품을 조합하여 레시피를 공유하는 등 모디슈머로서의 움직임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에서 그치지 않고 기업이 모디슈머를 마케팅 전략으로서 활용하여 재출시 또는 신제품 제작에 나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농심 또한 2019년에 개봉한 영화 '기생충'에서 화제가 되면서 '짜파구리'라는 정식 출시 제품을 새롭게 선보이며 모디슈머의 움직임에 따르기도 했다.

한 줄로 알아보는 모디슈머 제품들

짜파구리를 시작으로 모디슈머 열풍은 라면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모디슈머 마케팅 전략을 이용하여 기존 제품이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다른 라면들의 조합으로 새로운 제품 출시를 시도하는 전략을 유통회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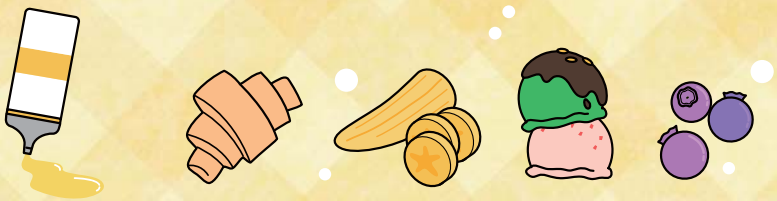


출처: 농심 브랜드관, 이마트몰 상품이미지, 11번가 상품이미지

카구리는 카레+너구리로 pc방에서 카레 조각을 넣은 너구리 라면이 유행하면서 제품화되었고, 출시 한 달 만에 약 230만 개의 판매를 기록했다.

까르보불닭볶음면은 불닭볶음면을 까르보나라 소스에 볶아 먹는 소비자의 레시피에서 착안하였고, 기존 제품보다 덜 자극적이라는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한정판에서 고정 상품이 되었다.

열려라 참깨라면과 열라 짬뽕은 각각 열라면에 참깨라면, 진짬뽕이 조합된 제품이며 이 외에도 순두부 열라면 등 모디슈머가 개발한 레시피가 유행했다.



취하기 위해 마시는 것이 아닌, 마시는 것 자체를 즐기는 요즈음 음주 문화의 흐름에 따라 주류 업계 또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또한 카페의 신메뉴 다수가 소비자들의 유행이나 아이디어에서 착안하여 구성된다는 점에서 재미와 함께 맛을 노리는 기업의 모디슈머 마케팅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전통주신문 서울장수와 손잡고 모디슈머 주류 '막사' 선보여, 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파리바게뜨 홈페이지, 이디야커피 홈페이지,

막사는 30,40대가 골프, 등산 등 야외활동 시 막걸리와 사이다를 혼합하여 가볍게 즐기던 것에서 착안한 상품이다.

아이셔에이슬과 비타500에이슬은 과일리큐르 시리즈에 이어 참이슬이 아이셔, 비타500의 시중 제품과 콜라보 한 한정판 제품이나 소비자들의 요청에 따라 재출시 후 고정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아샷추는 아이스티에 에스프레소 샷을 추가한 소비자의 요구에서 유행된 제품으로, 달콤 쌉싸름한 맛만 살린 디카페인 아샷추도 더불어 등장했다.

달고나커피는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을 이어가던 소비자들의 무료함에서 시작한 400번 저어야 완성되는 달고나 커피 챌린지가 상품화된 제품이다.

이외에도 동대문 엽기떡볶이와 명랑핫도그의 조합이 유행하며 엽도그/명랑이네 떡볶이를 각 매장에서 팔기 시작했다. 또한 기업이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지는 않았으나 소비자 사이에서 홈런볼빵빠레/칸쵸빵빠레, 크루아상 생지를 이용한 크룽지/크붕빵 등이 유행하면서 특정 제품의 수요가 높아지는 효과도 있었다.

소비자의 음식 개발이 당연해진 세상

모디슈머 탄생의 배경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해 '나만의 방법'을 공유하는 것의 일반화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제품의 개성 있는 활용 방안들이 개인의 영역에서 그치지 않고 SNS를 타고 공유되면서, 기업이 파악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기업만이 상품 출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들이 자신의 SNS에 게시하고 대중과 기업의 선택을 받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업에 건의하고 여론을

조성하려 하는 팬슈머의 형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컨슈머(consumer)에서 모디슈머(modisumer)로, 모디슈머에서 팬슈머(fansumer)로의 소비자 형태 변모는 **바이 미 신드롬(By me)** 열풍과 함께 나타난다. 말 그대로 '나에 의해서' 상품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기획, 구성, 생산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트렌드가 자리 잡은 것이다.



출처: 농심 나만의 레시피 홈페이지



출처: 콘테스트 코리아 공모전 포스터

기업 또한 이러한 소비자의 변화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 모디슈머 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농심에서는 농심 제품을 활용한 나만의 레시피를 게시하고 공유하도록 홈페이지에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두었다.

또한, 모디슈머들의 아이디어를 겨루어 최종 선택된 레시피를 제품으로 상품화하는 동원F&B와 마이셰프 주최의 '국민 셰프 레시피 서바이벌 밀키트 데뷔전' 대회와 같이 최종 상품뿐만 아니라 선정 및 발매 과정 또한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여 기업을 알리고자 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처럼 화제성에 의존한 제품 출시 현상, 이대로 괜찮을까?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유행과 트렌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며 화제성의 유지 기간 또한 매우 짧다. 무분별적으로 소비자의 니즈만 쫓는다면 신제품끼리의 경쟁 과열을 초래하며 상품의 질 하락 현상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고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행을 소비로 만드는 모디슈머, 그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새로운 제품으로 출시되어 유행을 만들고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한다.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소비자와 귀를 활짝 열어두는 기업의 합작품, 다음에는 과연 어떤 제품이 탄생할지 기대해 보자.



"어린이.. 이런 말 싫어요...!"
세상을 향한 아이들의 외침

수습위원 배민영

"무럭무럭 자라서 '주린이' 탈출해야죠." "요린이를 위한 꿀팁" "헬린이의 하루"...

"OO + 어린이" 다양한 단어에 어린이를 합성해서 만든 신조어가 sns, 방송, 신문기사 등 많은 미디어 속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흔히 '초보'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또 다른 의미가 담겨있을까요?



'0린이' 속 숨겨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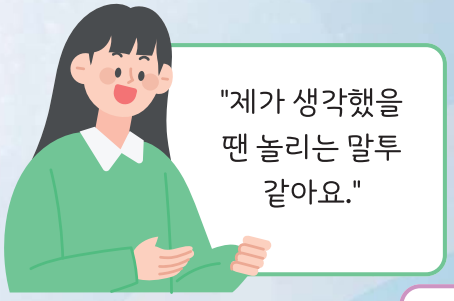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O린이" 라는 말에는 어린이를 한 명의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는 미숙하고 서툰 존재다', '어린이는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인식이 담겨있을지도 모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O린이'라는 표현이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고, 특히 이런 표현이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 무분별하게 쓰이면 아동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유해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아동 비하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표현법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아이들을 'O린이' 라고 지칭하는 대상은 어린이가 아닌 어른인 경우가 많다. 어린이는 생각보다 미숙하지 않다. 미숙하다는 고정관념을 키우는 'O린이' 표현은 사용할 필요가 없다." 고 말하며 'O린이' 라는 표현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완정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는 'O린이'라는 단어를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듣게 되며, 이는 아동에게 자신이 나약한 존재라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하여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아동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강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에서 그런 단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 그 단어의 의미가 사회에 일반화되기 때문에 아동을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보는 시각이 만연해질 것이다. 이것은 아동 권리의 시각에서 아동에게 굉장히 부당한 처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사회에서 아이들은 아동을 그렇게 바라보는 성인으로 자라날 것이다."라는 의견을 펼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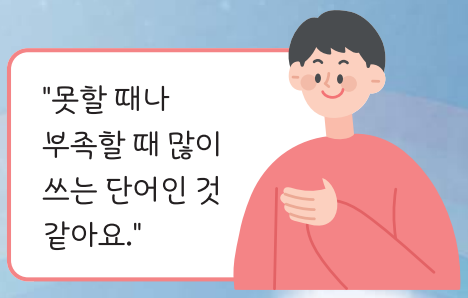
아이들이 미디어 세상 속에서 접한 '0린이'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어린이 미디어 이용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 3~9세 어린이의 하루평균 매체 이용 시간은 약 4. 8시간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우리 삶과 더욱 밀접해진 미디어 세상, 미디어 시청 시간이 늘어난 만큼 콘텐츠의 영향력과 파급력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아동들 역시 본인의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면서 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아동'을 지칭하는 표현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미디어 속에서 직접 접한 단어 'o린이'는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굿네이버스 미디어 아동 권리 옹호 프로젝트 - 미디어 속 아동 다시 보기 캠페인'에 참여한 아이들은 'O린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놀리는 말투 같아요."



"못할 때나 부족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인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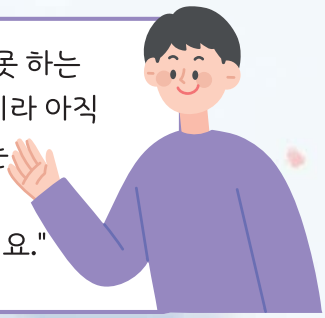
"화가 나는 것보다는 슬퍼요. 아이들이 속상하니까 아이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주세요."





"우리는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기본이 안 좋아요."

"어린이를 못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배우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주세요."





"못 하는 게 있지만, 잘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어른들은 무신경하게 사용했을지도 모르는 아동과 관련된 단어들,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존중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표현은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므로 세심하게 상황과 맥락을 살펴볼 수 있도록 어른들의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어린이를 늘 가까이하사 자주 이야기를 하여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자주 이야기를 하여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주시오.
대우주의 뇌신경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 소파 방정환 1923.5.1 '어린이날 선언문'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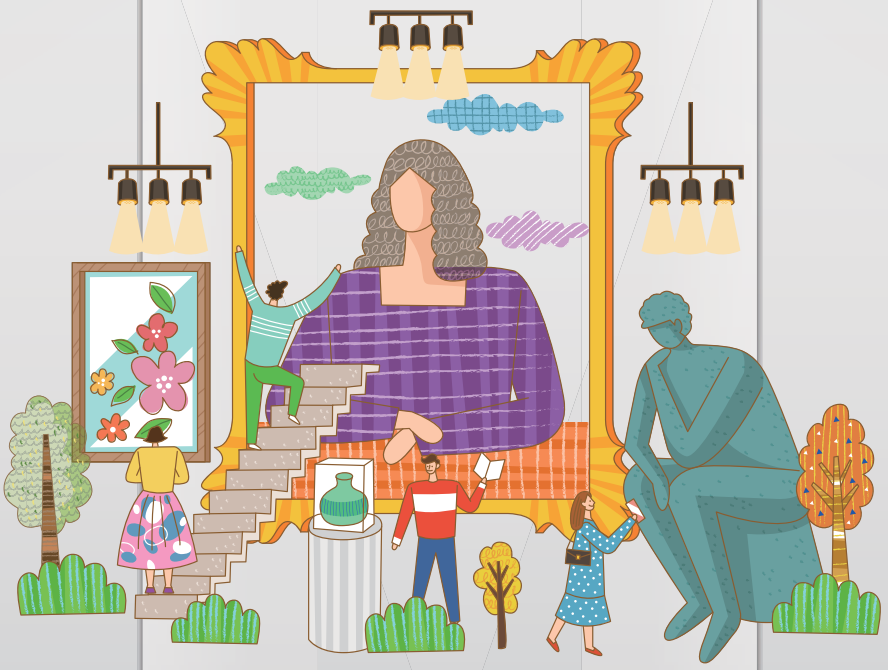
100년 전 발표된 어린이날 선언문에서도 어린이를 독립된 존재로서 존중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미래의 주인공인 동시에 현재의 주인공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지금 모습 그대로 주인공이 되는 평등하고 안전한 세상이 오길 고대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즐길 수 있는 전시, 놓치지 마세요!

수습위원 봉지원

대학생이 된 당신, 입시로부터 벗어나 생긴 자유 시간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보람찬 여가를 보낼 수 있는지 몰라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당신에게 한 가지 방법을 추천한다면, 바로 '전시회 관람'이 될 것이다.

전시회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지루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가?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재미있고,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전시회를 몇 가지 만나보자. 이 글에서는 2023년도에만 특별히 기획된 전시들을 선별하여 소개함으로써, 다시없을 좋은 관람 기회를 사향인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전시회 자체에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를 고려하여, 기자가 직접 전시회에 방문한 경험을 친근하게 수록하였다. 당신의 여가를 풍성하게 해줄 특별한 전시회, 지금부터 알아보자.



검은 토끼로부터의 초대, 2023 계묘년 전시 소개

2023년은 계묘년, '토끼의 해'이다. '토끼의 해'를 맞아 기획된 전시를 직접 방문해 보았다.

문화실험공간 호수『토끼의 정원』

전시 기간 2023.03.14.~ 2023.0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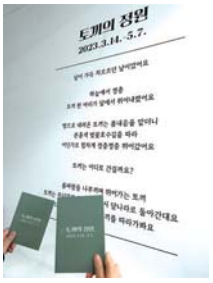
전시 개요 달나라에서 토끼가 땅으로 내려와 벚꽃길을 걷고 봄의 정원을 뛰놀다가 무더위가 찾아오면 다시 달나라로 돌아가는 한 편의 동화를 담은 기획 전시이다. 전시 구성은 토끼가 마주하는 다양한 정원의 모습을 관람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큰 통창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작품과 어우러져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네 명의 청년 작가(김명, 이예진, 성다솜, 전유리)가 참여하여 입체 조형, 페이퍼 아트 콜라주, 색연필화, 동양화 등의 작품을 통해 다채로운 정원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기자 방문기~

4월의 어느 날, 토끼의 해를 맞이하기 위해 '토끼의 정원' 전시회를 기자가 직접 방문하였다. 기자의 방문기를 통해 전시회 관람의 A to Z를 알아보자!

전시회 입구에서는 무엇을 해야할까?





전시회별로 관람 주의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주의사항의 경우, 대부분 전시 장소 입구에 안내되어 있다. 기자가 방문한 '토끼의 정원' 전시의 경우 관람 시 주의사항은 사진과 같았다.

전시회에 특별 코너가 있다?!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의 체험 코너가 마련된 전시도 있다. '토끼의 정원' 전시에서는 토끼가 2023년의 봄을 즐긴다는 콘셉트에 맞게 '봄을 즐기는 토끼 그림 그리기' 코너가 있었다. 이러한 체험 코너에 참여해 보면 더욱 풍부한 감상을 할 수 있다.





또한 액자에 담긴 그림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 전시 코너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영상을 활용하여 토끼의 이야기를 담아낸 코너가 있었다.

기자's 감상평





네 명의 청년 작가가 참여한 전시였기 때문에 작가별 개성을 비교하며 관람할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기억에 남았던 작가와 작품은 전유리 작가와 그녀의 '도라지꽃 화병'이었다. 전유리 작가는 '페이퍼 콜라주'라는 독특한 기법을 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인상적이었다. 콜라주는 화면에 여러 가지 재료를 붙여 표현하는 회화 기법 중 하나인데, '페이퍼 콜라주'는 종이를 오려 붙이는 기법이다. 이 기법을 사용하면 그림에서 입체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독특하게 다가왔다. (기자 방문기 사진 출처: 직접 촬영)

You make me feel SPECIAL, 특별 기획 전시 소개

관람 기회가 많은 상설 전시가 아닌, 놓치면 후회할 특별한 전시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리움미술관『마우리치오 카텔란 : WE』



전시 기간 2023.01.31.~ 2023.07.16.

전시 개요 2011년 뉴욕 구겐하임 회고전 이후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최대 규모 전시이며, 카텔란의 미술계 등단 시기인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소개된 38점의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단순해 보이고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카텔란의 작품들은 익살스러운 겉모습 속에 불편한 현실을 담아내며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전시에서의 주된 질문은 <WE>라는 전시 제목이 나타내듯이, '우리'는 누구인가, 어떻게 '우리'가 되는가, '관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주요 전시 작품>



모두, 2007



무제, 2001

(출처: 리움미술관, 사진 김경태)

국립중앙박물관『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영국 내셔널갤러리 명화전』



전시 기간 2023.6.2.~2023.10.9.

전시 개요 영국 내셔널갤러리에 소장된 명화 52점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로, 1883년에 한국과 영국이 수교를 맺은지 올해로 140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여 기획되었다. 마네, 르누아르, 고갱, 반 고흐 등 서양 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통해 15~20세기 초 유럽 회화의 주제가 신으로부터 인간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 전시의 특징이다. 또한 영국 내셔널갤러리 소장 명화를 국내 최초로 공개하는 전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주요 전시 작품>



마네 <카페 콩세르의 한구석>



반 고흐 <풀이 우거진 들판의 나비>

(사진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예술의 전당『라울 뒤피 : 색채의 선율』



(사진 출처: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

전시 기간 2023.05.02 ~ 2023.0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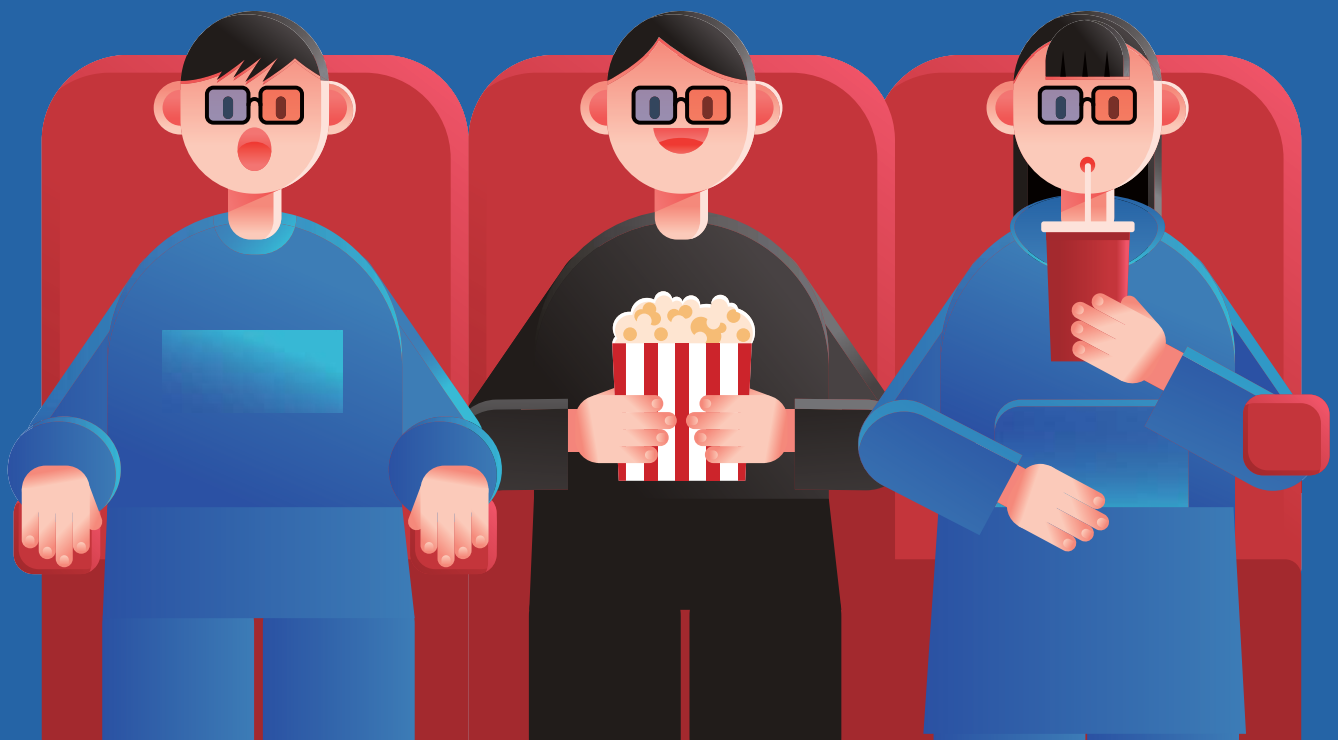
전시 개요 예술의 전당 전관 개관 30주년을 맞아 기획된 최대 규모의 라울 뒤피 회고전이다. 라울 뒤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벽화 중 하나인 '전기의 요정'을 탄생시킨 프랑스의 거장으로, 작품을 통해 주로 삶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표현하였다.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기쁨의 화가'가 된 그의 발자취를 이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다. 작품 외적인 요소도 매우 특별하게 기획되었는데, 오리지널 작품과 함께 음악과 미디어아트를 활용하여 관람객에게 더욱 풍부한 감상을 제공한다. 그와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김찬용, 이남일, 심성아, 권세연 도슨트의 설명을 들을 수도 있다.

일상을 특별하게 바꿔 줄 전시회, 이제부터 하나씩 관람해 보는 것은 어떤가? 지금까지 전시회에 '진입 장벽'을 느꼈다면, 이 기사가 그것을 깨부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할 심상을 불러일으키는 전시회의 세계에 빠져 보자.

맛있지만 해로운 스낵컬처 숏폼(short-form)

수습위원 김민선

"딱 2분만 보려고 했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 2시간이 지나 있었다." 숏폼에 중독된 것 같다는 새록이가 인터넷에 올린 하소연이다. 또, 숏폼을 시청하다 며칠 연속 밤을 꼴딱 새웠다는 초록이는 "자신이 귀신에 씐 것 같았다."라며 혀를 내두른다. 휙휙 넘기는 손가락질로 무한 재생되는 숏폼은 우리에게 막연한 즐거움을 가져다주지만, 그 대가로 우리의 많은 것을 빼앗아 간다. 맛있지만 해로운 스낵컬처-'숏폼' 당신은 숏폼이 주는 즐거움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지불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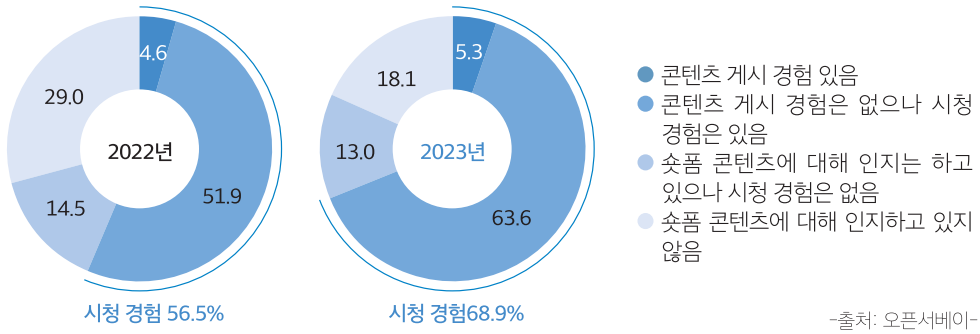


스낵 컬처(snack culture)와 숏폼(short form)

'스낵 컬처(snack culture)'란 언제 어디서나 간편히 즐길 수 있는 스낵처럼 출퇴근의 이동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짧은 시간 안에 쉽게 즐길 수 있는 형식의 문화 소비 트렌드를 말한다. 그중에서도 '숏폼(short form)'은 '짧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숏(Short)'과 형식을 뜻하는 '폼(form)'의 합성어로, 10분 내외의 짧은 영상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는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이 있다.

매년 증가하는 숏폼 열풍

숏폼 콘텐츠 인지 및 이용형태



-출처: 오픈서베이-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오픈서베이는 전국 15~59세 남녀 5천 명을 대상으로 '숏폼 콘텐츠 인지 및 이용 형태'라는 주제에 대해 설문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2023년에는 10명 중 거의 7명은 숏폼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과 숏폼의 이용률은 1년 새 12.4% P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날이 증가하는 숏폼 열풍! 우리는 왜 숏폼에 열광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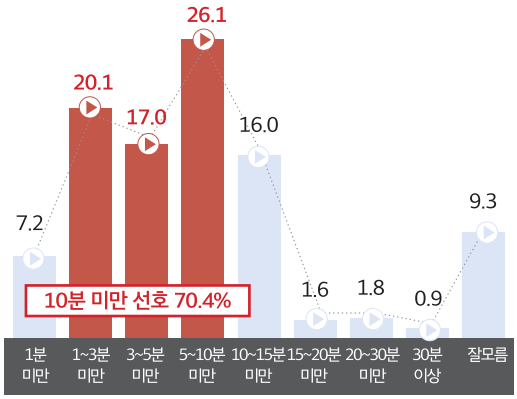
우리는 왜 숏폼에 열광할까?

1) 도박에서 사용되는 무작위 강화 원리

유튜브의 쇼츠, 인스타그램의 릴스 등은 짧은 영상 이후에 무작위로 다른 영상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제시되는 형태이다. 그렇게 영상을 넘기다 보면, 우리는 언제 자신의 취향에 딱 맞는 혹은 엄청 흥미롭거나 재밌는 영상을 만날지 모른다. 즉 "재밌네. 이다음엔? 아... 이건 재미없는데. 다음 영상은 뭐가 나올까?"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영상을 휙휙 넘기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영상을 발견하고 즐거움이라는 강화물을 얻는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재미없는 영상을 계속 보고 있더라도 영상을 넘기는 행위 그 자체에 중독이 되어 숏폼에 열광하게 된다.

2) 한정된 시간 안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싶은 현대인의 욕구 충족

SNS 이용 시 선호하는 동영상 길이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70.4%의 사람들이 10분 미만의 짧은 동영상 길이를 선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정된 시간 안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싶은 현대인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숏폼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짧은 영상 길이로 핵심 내용만을 담고 있어 한정된 시간 안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싶은 현대인의 욕구를 충족해 준다. 또한 이는 사람들이 숏폼에 열광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

출처:트랜드모니터 2021

숏폼 열풍,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1) 위험하고 자극적인 챌린지 영상의 유행

숏폼 콘텐츠 중에는 시청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챌린지' 스타일의 영상이 많다. 과거 유행한 기부를 위한 '아이스 버킷' 챌린지처럼 긍정적인 챌린지도 있지만, 극단적 선택을 따라 하는 '나는 실패작이래 챌린지', 질식 게임으로 불리는 '블랙아웃 챌린지' 등의 위험하고 자극적인 챌린지도 많다. 그리고 학생들은 알고리즘에 의해 이러한 자극적인 챌린지 영상을 자주 접하고, 이를 서로 공유하면서 그저 하나의 놀이 문화로 소비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기절 챌린지인 '블랙아웃 챌린지'를 따라 하다 학생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이에 배상률 연구위원은 "청소년 시기엔 동조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챌린지가 또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때 청소년에게 다소 폭력적인 챌린지 영상이 유행하여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폭력을 바라보는 폭력 허용성에 대한 시각이 넓어지고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위험하고 자극적인 챌린지의 유행에 대해 경고했다.

2) 일상생활에서의 무료함을 느끼는 팝콘 브레인 증상 발생

전문가들은 숏폼이 주는 자극적인 콘텐츠에 중독될수록 '팝콘 브레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팝콘 브레인 증상은 뇌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빠르고 강렬한 자극에 익숙해지게 되어 현실에서의 느리고 약한 자극에 무감각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뇌의 전두엽은 시각 또는 감정적으로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에 반응하는데 반복 노출될수록 내성이 생겨 일상생활에서의

흥미를 잃고 팝콘 터지듯 더욱 큰 자극만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정석 교수는 "평소 우리는 영화, 드라마, 아름다운 자연 등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숏폼에 중독되어 팝콘 브레인 증상이 지속되면 평소 느꼈던 일상의 소소한 재미를 못 느끼게 된다. 그 결과 무기력감이나 우울, 불안, 충동적인 감정 변화가 생기고 집중력 저하 같은 인지 기능 감퇴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혹시 나도 숏폼 중독인가? 혹시 나도 팝콘 브레인 증상을 가지고 있나?

- ☐ 조금만 긴 영상이라도 보기 꺼려지거나 배속을 높여 시청하게 된다.
- ☐ 한번 숏폼 콘텐츠를 시청할 때 기본 1시간 이상 시청한다.
- ☐ 강한 자극이 아니면 반응하지 않고 금세 싫증이 난다.
- ☐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학교생활, 일상생활 등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 ☐ 끊임없이 새로운 소식을 찾아보고, 숏폼 콘텐츠를 계속 돌려보게 된다.

우리는 '숏폼'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위험하고 자극적인 숏폼 챌린지를 비판 없이 수용해 하나의 놀이로만 여기다 보면 폭력을 바라보는 폭력 허용성에 대한 시각이 넓어지고 왜곡된 가치관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압축적인 정보가 들어간 짧은 영상만을 반복해서 보면 주의력이 떨어지고, 점점 더 자극적이고 새로운 영상만을 찾게 되는 팝콘 브레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바탕으로 한 유해한 콘텐츠 거르기', '하루에 30분만 시청하기' 등 자기 스스로 원칙을 세우고 숏폼을 절제한다면 일상을 지루하지 않게 보내고 빠르게 유행을 파악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뷔페처럼 우리는 현재 다양한 스낵컬처를 맛볼 수 있는 숏폼 뷔페에 들어와 있다. 여기서 당신은 건강한 콘텐츠의 스낵컬처를 섭취할 수도 있고, 맛있지만 몸에는 해로운 콘텐츠의 스낵컬처를 섭취할 수도 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어떤 맛의 콘텐츠든 너무 과식을 해버린다면 결국은 우리의 몸과 정신을 해친다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맛의 스낵컬처를 맛보고 있는가? 또 그것을 너무 과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지금 자극적인 스낵컬처를 과식하고 있다면 맛보고 있는 스낵컬처의 양을 줄이고 디지털 디톡스에 도전해 보자.

서울교대, 그곳의 발자취를 따라서

편집위원 진승원

때로는 서울교육대학교를 조용히 걷다 보면, 이곳이 도심 한복판에 초등교육인의 푸른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내가 현재 걷고 있는 여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이다. 언제부터일까? 걷다가 조용히 눈을 감을 때 내가 걷고 있는 이 장소의 역사가 궁금해질 때가 있었다. 같이 길을 걸으며 서울교육대학교의 역사를 느껴보자.



사임당길

사임당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사임당로는 사임당길 강남대로(서초구 서초동 1337-34번지)에서 서울교육대학교를 거쳐 반포로(서초동 1582-2번지)에 이르는 길이 1,830m, 너비 20m의 4차선 도로이다. 사임당로는 조선 중기의 여류 서화가 신사임당의 호에서 인용하였으며, 이 길이 초등교육의 산실인 서울교육대학교를 지나는 데서 비롯되었다. 1981년 1월 21일, 반포대로에서 서울교육대학교를 거쳐 강남대로에 이르는 길이 2,000m, 너비 20m의 4차선 구간을 서초2로로 지정하였다. 1984년 11월 7일 서초2로를 사임당길로 바꾸고, 기점과 종점을 반대로 하였으며 후에 총 구간을 1,830m로 단축하였다.



서울교육대학교의 원형

서울교육대학교의 원형은 경기사범학교라고 할 수 있다. 사범학교는 개화기부터 1960년대 초까지 존재했던 초등교원 양성기관이다. 사범학교는 개화 초기에 근대적 신학제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인 한성사범학교에서 출발하여 60~70여 년 동안 초등학교 교원을 배출하였으며, 현재 11개 교육대학의 모체로서의 구실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서울교육대학교의 원형인 경기사범학교도 결국 한성사범학교에서 출발하였다.

항상 그곳에 있었을까?

과거 서울교육대학교는 2년제였다. 위치는 지금의 위치인 서초구 서초중앙로 96은 아니었다.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학교 맞은편, 현재 덕수고등학교가 위치한 곳에서 현재 위치(강남구 서초동)로 이전하였다(1977.2.23.).

서울교육대학교가 있던 자리



과거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



현재 서초구에 위치

참고사이트: https://map.vworld.kr/

서울교육대학교의 역사

1946.05.22	경기공립보통사범학교 설립(광복 직후)
1947.10.10	국립서울사범학교로 개칭
1950.06	6.25 전쟁으로 휴교. 이후 서울 수복과 1.4.후퇴, 서울 재수복마다 휴교와 개교를 반복. 이때부터 운동장 절반을 미군이 썼는데, 미군이 돌려준 뒤에도 서울사범학교로 귀속되지 않고 행당여중이 생겼다
1953.03.01	서울사범부속국민학교 설립
1962.03.01	서울사범학교를 서울대학교 병설 교육대학으로 승격 개편
1962.03.26	교육대학 개교식 및 입학식 거행
1963	서울대학교 병설 교육대학에서 서울교육대학으로 교명 변경
1977.02.23	강남구 서초동 636번지 신축교사 이전
1981.03.01	2년제 서울교육대학이 4년제 서울교육대학으로 승격
1993.03.01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에 의거 서울교육대학교로 개칭
1996	대학원 개원

2006년 6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교대 김호성 총장님 기념사 중에서

해방 직후부터 60년간 한눈팔지 않고 오직 "참스승을 길러낸다"라는 교육철학과 소신으로 초등교원 양성에 매진해 온 서울교육대학교는 2006년에 개교 60주년을 맞이했다.

김호성 총장님: "60년의 역사를 맞이하면서 만인을 포용할 수 있는 완숙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은 '전진'과 '발전'의 대로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고 걸어가는 길은 뒤이어 오는 후세가 걸어올 길이 될 것입니다. 앞서 길을 걸어왔던 선배님들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도 새로 맞이하는 60년을 참된 교육의 한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대로에서 모두가 함께 손을 맞잡고 힘차게 걸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2023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서울교육대학교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를 전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지금의 우리 모습이 미래에게는 과거가 될 것이다. "과거는 많은 페이지를 가진 책이고, 미래는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댄 브라운의 말처럼 아직 기록되지 않은 서울교육대학교의 미래를 우리가 멋지게 써 내려가 보는 것은 어떨까?



타임슬립 시간여행!
서울 역사 구석구석을 걷다

편집위원 장진주

백제, 조선, 대한 제국의 고도이자 현재까지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수도로 자리 잡고 있는 서울. 서울은 신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했고, 삼국시대, 고려, 조선을 거쳐 약 6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곳이다. 경복궁, 종묘, 광화문, 명동성당,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의 역사 유적지와 박물관들을 한 번쯤은 방문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듯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역사 명소가 있는 반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역사 유적지들도 많다. 지금부터 진주 기자와 함께 고대, 중세, 근대, 현대의 시대적 흐름을 따라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서울의 역사 문화 명소로 시간여행을 떠나보자!



Timeslip #1. 선사시대 : 빗살 가득한 날, "강동선사문화축제"

흙과 물과 불, 사람이 만나 빚어낸 유구한 삶의 이야기. 상상과 호기심을 안고 먼 시간을 돌아 공존의 선사문화를 만나 보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도착한 곳은 바로 강동선사문화축제의 현장이었다. 서울에서 선사시대를 만날 수 있는 곳! 서울 축제에서 만나는 선사시대라니... 이 얼마나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인가? 3일간의 독특한 축제를 통해 서울 암사동 유적에 살았던 신석기인들의 행복한 일상을 느껴볼 수 있었다. 이곳에서 다 함께 참된 공동체의 가치를, 세상에서 가장 힘찬 목소리로 외쳤던 빛의 부족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나에게 수 천년 전 선사시대가 우리에게 전해준 자연, 인간, 나눔, 돌봄의 가치를 전해주었다.

"육천 년 전 우리는 찬란한 꿈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수렵과 채집을 통해 살아갔습니다. 자연의 수많은 동식물은 양식이기도 했지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자연을 숭배하고 돌로 된 도구를 통해 삶의 터전을 경작했습니다. 바람과 물이 만난 땅 위에서 불과 흙으로 새로운 문명을 시작했던 강동, 자연과 문명의 정수가 하나로 모인 토기 위에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세상이 하나하나 빗살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늘과 구름, 빗줄기와 땅, 자연과 생명을 그린 찬란한 무늬가 선명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 토기에 곡식을 담고 나누어 먹으며 나눔과 돌봄의 공동체 문화가 우리에게는 깃들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행복과 소망의 무늬가 햇살처럼 눈부신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빗살 가득한 날'입니다."

강동선사문화축제

1996년 첫 문을 연 강동선사문화축제는 서울 축제 중 유일하게 선사시대를 테마로 열리는 축제로, 뚜렷한 역사성과 정체성을 자랑한다. 서울 암사동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염원하며 축제를 개최하였다. 지난 2022년에는 '빗살 가득한 날'을 주제로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제27회 강동선사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강동구청)

Timeslip #2. 고대 : 백제의 발자취를 따라 "풍납토성"

어랏... 이번에는 나를 또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이번에 도착한 곳은 웬 흙으로 만든 거대한 성 앞이었다. 이곳은 바로 풍납토성. 풍납토성은 백제의 도읍이었던 서울 위례성에 위치하고 있었다. 풍납 토성은 남북으로 긴 토성으로 둘레가 약 4km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를 지니고 있다. 모래와 진흙을 교대로 다져서 쌓는 '판축' 기법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흙으로 이렇게 긴 성벽을 쌓으려면 아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되지 않았을까? 이는 곧 백제가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백제는 고구려 장수왕의 침공으로 개로왕이 사망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한성(지금의 서울) → 웅진(지금의 공주) → 사비(지금의 부여)로 도읍을 두 번이나 옮겨야만 했다. 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백제의 찬란한 전성기를 이끌었던 백제 한성시대. 풍납토성의 어마어마한 위엄을 통해 그 시절 백제인의 삶에 대해 느껴볼 수 있었다.

서울 풍납토성

서울 풍납동 토성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한성 백제시대 첫 도읍지인 하남 위례성으로 인정되는 유적이다. 한강에 잇닿은 남북 방향의 장타원형을 띠고 있으며, 현재 2.1㎞ 정도의 성벽이 남아 있다. 1925년 대홍수 때 중요 유물이 발견되면서 그 존재가 알려졌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발굴 조사 결과 판축 기법으로 축조된 거대한 토성이며, 내부에서 왕궁 내 부속 건물로 추정되는 신전 건물지와 우물, 창고, 도로 및 관원들의 대형 주거지 등이 발견됨으로써 초기 백제시대의 왕성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출처 :송파소식, 연합뉴스))

Timeslip #3. 중세 : 예스럽고 운치 있는 조선의 한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남산골 한옥마을"

옛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사계절 내내 다채로운 빛깔의 전통문화가 꽃 피는 이곳, 남산골 한옥 마을에 도착했다. 남산은 그 자연의 경치가 아름다워 예로부터 우리의 조상들이 골짜기마다 정자를 짓고 자연의 순리에 시화로 화답하는 풍류 생활을 하던 곳이었다. 이곳은 수려한 경관을 찾는 선남선녀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 고풍스러운 정자에서 선조들이 유유자적하였던 남산 기슭의 옛 정취가 한껏 느껴지지 않는가? 마을 사이사이를 거닐며 한옥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다. 한옥은 바람과 햇빛을 받아들여 이용하는 데 매우 뛰어난 가옥구조를 자랑한다. 통을 살린 배치구도는 곧 한옥의 공간적 특징으로 발전하는데, 물 흐르듯 막힘이 없는 구조가 바로 그것이다. 한옥은 먼발치서 전체 모습을 봐야 그 진가가 발휘된다. 유교적 형식과 사회적 격식을 두루 갖추면서도 노장사상을 바닥에 깔아 아기자기한 공예미를 잊지 않았다. 엄격하면서도 소탈한 양면성이 동시에 느껴지게끔 만든다. 한옥의 전경에서는 어울림의 미학을 읽어내야 한다. 가문을 책임진 가부장의 사랑채가 중심을 잡지만 어미의 품처럼 넉넉한 안채와의 다소곳한 어울림을 잊지 않는다. 한옥에는 즐거움의 미학 또한 담겨있다. 난초 정도는 칠 줄 알아야 무릇 양반이라 할 수 있는 예술적 감성도 들어 있었고, 자연과 하나 되어 어깨를 들썩일 수 있는 정신적 여유도 들어 있었다.





(출처 : 서울특별시, 브런치)

남산골 한옥마을

1998년 조성된 남산골 한옥마을은 남산 북측에 한옥 5동, 전통공예관, 천우각, 전통정원, 서울 남산국악당, 새 천년 타임캡슐 광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번화한 도심 한가운데에서 한국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 거리를 만나볼 수 있으며, 남산 자락을 따라 전통조경 양식으로 조성된 계곡과 정자, 각종 화초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옛 가옥을 복원해 놓은 남산골 한옥마을 안으로 들어서면 연못 청학지와 천우각이 있다. 천우각 광장을 지나 돌계단을 오르면 서울 곳곳에 있던 한옥이 이전·복원되어 옛사람들의 생활방식을 볼 수 있게 한 예스러운 공간이 나타난다.

Timeslip #4. 근현대 : 경성에 살던 서양인의 옛집, 딜쿠샤

행촌동의 오래된 골목을 따라 걷다 보니 450년 넘은 거대한 은행나무를 만날 수 있었다. 굵은 밑동으로부터 건실하게 뻗은 나뭇가지는 동네 이름에 '은행나무 행(杏)' 자를 쓰게 만들 정도로 존재감이 압도적이었다. 바로 옆으로 보이는 건물, 시대를 가늠할 수 없는 신비한 분위기의 집은 바로 딜쿠샤. 산스크리트어로 '기쁜 마음의 궁전'이라는 뜻을 가졌다. 딜쿠샤는 1920년대에 조선에 머물며 활동한 사업가이자 3·1운동과 독립선언문, 일제의 제암리 학살 사건을 전 세계에 알린 해외통신원 앨버트 테일러가 가족과 함께 살던 집이었다. 그 덕분에 일제의 감시를 피해 미국 AP 통신사에 타전한 기사로 한국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 이곳에서 앨버트 테일러와 그의 아내, 메리 테일러를 만나볼 수 있었다. 앨버트는 영국인 연극배우 메리 린리와 결혼해 함께 딜쿠샤를 일구어나갔다. 서대문구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한 메리 테일러는 어느 날 권율 장군 집터를 산책하다 커다란 은행나무를 보았고 그 동네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고 한다. 테일러 부부는 동서양의 문화에 대한 안목이 있었고 남다른 취향을 가졌으며 재력이 있었다. 그들은 근대 한복판에서 동서양의 가구, 소품, 집기로 딜쿠샤를 그야말로 궁전처럼 가꾸었다. 하지만 딜쿠샤도 시대를 비켜 갈 수 없었다. 앨버트는 일제로부터 요주의 인물로 낙인찍혔고, 이후 1942년 외국인 추방령에 따라 조선을 떠나야만 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출처 : 중앙일보, 동아일보)

딜쿠샤

1919년 3·1운동 독립선언서, 제암리 학살 사건 등을 외신으로 처음 보도한 미국인 앨버트 테일러의 가옥이다. 당시 AP통신사의 한국 특파원이었던 앨버트는 1923년 현재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에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양옥을 지었다. 앨버트는 항일 독립운동을 돕다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후 1942년 일제에 의해 추방당할 때까지 이곳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다. 딜쿠샤는 우리나라 서양식 근대 주택의 출발점에 선 중요한 건축물 중 하나이기도 하다. 붉은 벽돌, 아치형 창문 등 양옥 중에서도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 벽돌을 쌓은 방식이 매우 특이해 건축사적으로 가치 있는 건물로 평가된다. 영국과 미국의 주택 양식이 혼합되어 있으며, 일제 강점기 근대 건축 양식으로도 연구 가치가 있다.

서울의 발자취를 따라 시간여행을 모두 마치고 무사히 현실의 시공간으로 돌아왔다. 실제 살아 숨 쉬는 역사를 직접 느껴보니 그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되었다.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 이면에는 소외되고 외면받아 오고 있는 역사들도 있다. 끝도 없이 넓은 역사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그 기억들을 한 번쯤은 되돌아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의 노력과 행동만큼 역사는 기억된다. 역사가 기억되는 만큼,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거 모르면 도태된다? 장만의 화제 챗 GPT

편집위원 진승원

5일 만에 100만 사용자를 이끌어낸 챗 GPT, 마치 영화 아이언맨의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가 연상되지 않는가? 한 미국 하원의원은 챗 GPT가 작성한 원고로 연설문을 낭독했고 어떤 콜롬비아 판사는 챗 GPT를 활용해 판결문을 쓰기도 했다. 이렇듯 챗 GPT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렇다면 챗 GPT가 정확히 무엇이고 일상생활에서, 나아가 교육적으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챗 GPT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같이 고찰해 보자!



구글은 끝났다?

먼저 챗 GPT란 오픈에이아이(OpenAI)가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으로, 챗은 채팅의 줄임말이고 GPT는 'Generated Pre-trained Transformer'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이런 챗 GPT의 등장은 세계 검색시장을 주도하는 구글에게 위협적이다. '포스트 구글'이라고 불리는 챗 GPT가 검색엔진을 대체할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구글에서 이용자가 검색 키워드를 넣으면, 그에 가장 가까운 정보들을 알고리즘에 맞춰 순서대로 보여주는 식이었다. 사용자는 한 번 이상 블로그, 뉴스 기사 등을 클릭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 했다.

그러나 챗 GPT는 사용자가 웹문서를 보며 스스로 정리할 필요가 없도록 알아서 정리해 준다. 가령, **진 기자가 비건 친구를 위한 한국 음식을 찾는다고 입력하면 구글은 연관된 내용이 있는 문서들을 나열한다. 챗 GPT는 이와 달리 내게 필요한 내용만 맞춤형으로 정리해 '두부김치, 잡채와 같은 음식을 추천한다'는 답을 내놓는다. 마치 영화 아이언맨의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와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챗 GPT는 어떻게 개발되었을까?

우리 인간이 배우고 습득하고 경험하는 것과 같다. 인공지능 자체에서 반복 실행하고 오류를 겪고 그것을 다시 검증하면서 마치 우리 인간이 여러 배움 끝에 깨달음을 얻는 것과 같은 원리로 개발되었다.

챗 GPT의 활용?

콘텐츠 제작

챗 GPT는 사용자가 "무엇을 만들어줘!"라고 입력하면 원하는 양식으로 가공해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와 나눈 대화에서 내용을 기억해 전후 맥락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더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특정 주제에 맞춰서 시나 소설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니 놀랍지 않은가? 실제로 한 11세 소년이 챗 GPT를 활용해 해리포터 테마의 텍스트 기반 어드벤처 게임을 만들어 인기를 얻은 사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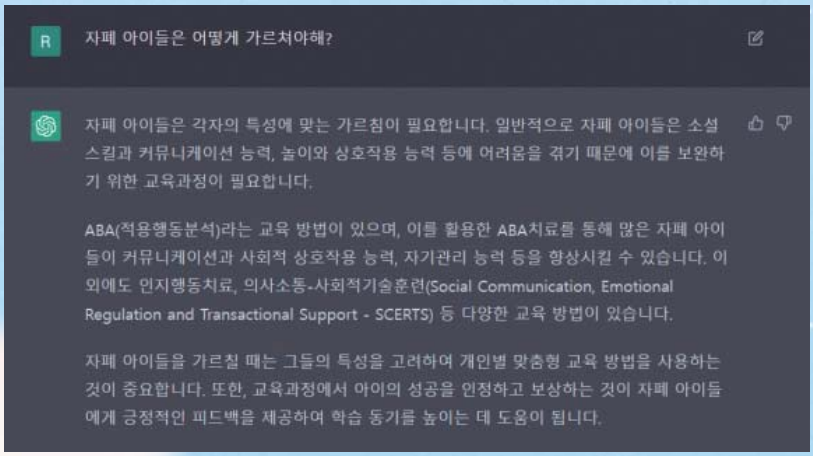
교육에서의 활용

1. 언어 교육 : 챗 GPT는 언어교육에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챗 GPT를 이용하여 대화 연습을 할 수 있다. 챗 GPT를 이용하여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문장 구조, 어휘, 문법 등 다양한 언어적 요소를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학습 지원 : 챗 GPT는 개별 학습 지원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공부하거나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챗 GPT를 이용하여 학습 도움말이나 해설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길 때마다 챗 GPT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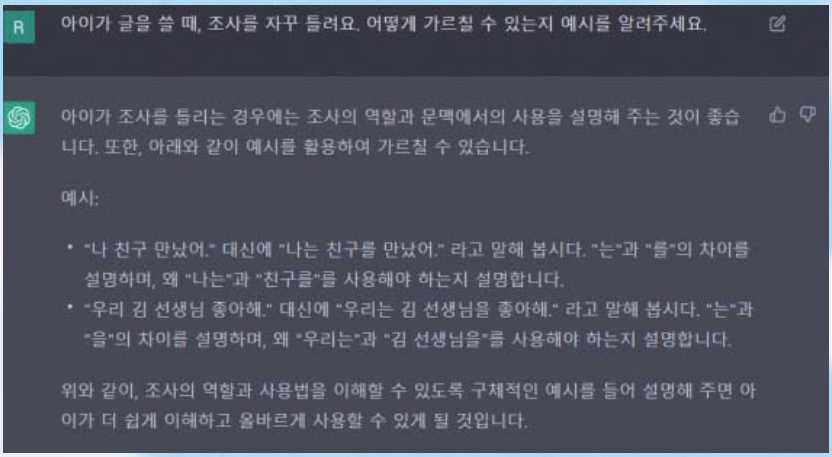
3. 인공지능 교육 : 챗 GPT는 인공지능 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는 챗 GPT를 아이들 앞에서 실제로 쓰는 모습을 보여 기계 번역,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를 돕는 생생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선생님을 위한 교육 : 챗 GPT 자체는 아이들뿐 아니라 선생님에게도 어떤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전문적으로 특수아동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을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챗 GPT에게 할 수 있다.



출처:https://postfiles.pstatic.net/MjAyMzAzMDVfMTI5/MDAxNjc4MDA2Mjk3ODkw.BR1RAqRQK5vcH07OuZXlWNO8fBlq89tEUl90T3EnSwwg.9XZhb33Jz5tt4WmaauZkrxOVJ7xwHklJuyGrJkcsdXcg.PNG.special_jyh/%EC%9D%B4%EB%AF%B8%EC%A7%80_2.png?type=w580

또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특정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조사를 자꾸 틀리는 경우이다



출처:https://postfiles.pstatic.net/MjAyMzAzMDVfMTk2/MDAxNjc4MDA2ODY2MDkz.Id8d3P2E9r3ZHlO4uTr8KklgOxcoettLbl8US2NYZCsg.pfUBp1LN2OPEdvlrdOWbfCXB1JODOB2xvIAVfZp6x4Ag.PNG.special_jyh/000.png?type=w580

챗 GPT는 무조건 좋은가?

1. 과도한 신뢰는 금물!

챗 GPT가 신은 아니다. 질문에 무조건 옳은 대답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챗 GPT를 활용해서 학습하는 경우 오개념이 생길 수 있다. 생성형 AI인 챗 GPT는 문장을 생성하는 AI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학습한 데이터의 특징 때문에 학습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완전히 틀린 답을 내놓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삼국통일을 한 이순신 장군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면 이순신 장군이 삼국통일의 주역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챗 GPT 답변에 대해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2. 이것을 통해 학습이 일어날 수 있을까?

챗 GPT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학생의 학습 역량 신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습은 사고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챗 GPT는 문제를 입력하면 즉시 답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생각할 여유를 제공하지 않는다. 챗 GPT를 이용해서 답을 얻은 것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학습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교사나 학부모 지도 아래 제한된 상황에서만 챗 GPT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윤리적 문제도 생각하자!

사실상 AI 기술은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크게 부각된다. AI 기술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용자의 성격, 취향, 건강 상태, 지역, 연령, 성별, 인종 등과 같은 매우 민감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는 곧 AI 기술이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하면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용자가 올바른 가치관에 기반을 둔 디지털 시민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4. 창의성은 결국 자신에게서 나온다.

챗 GPT가 만든 소설이나 시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잘 만들었다고 분명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창작할 때는 나만의 것이 필요하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얻은 교훈, 경험, 가치관 등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야 잘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챗 GPT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쓴다면 그것이야말로 죽은 작품이다.

이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아도 직면하게 된 챗 GPT, 우리는 이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너무 믿어서도, 그렇다고 해서 외면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교사로서, 나아가 현대를 살아가는 성숙한 시민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해 보자. 챗 GPT를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게 사용한다면 더 나은 세상이 분명 펼쳐질 것이다!



2023 통권 55호

4

TALK TALK

사향지기

눈을 떠보니 내가 새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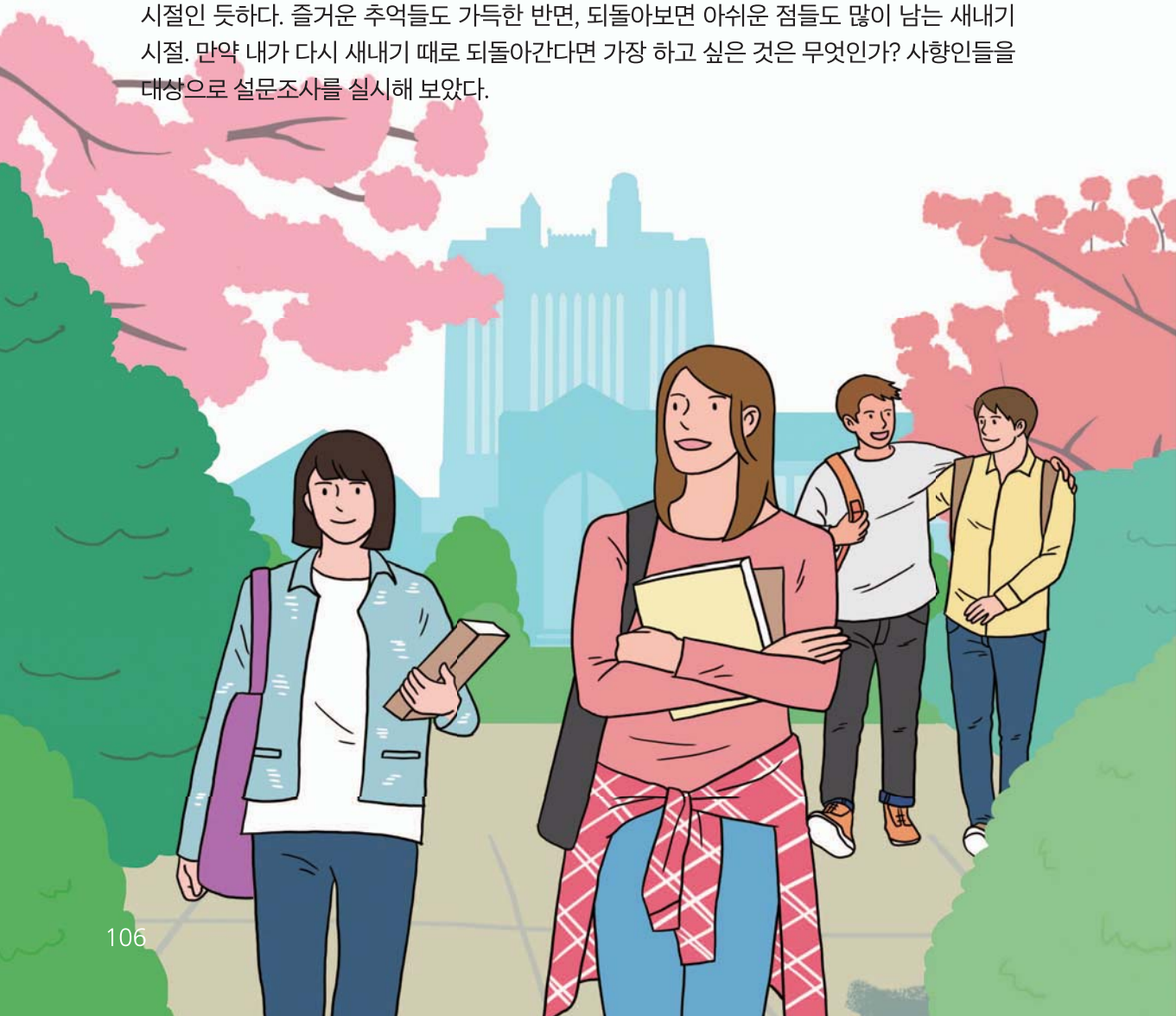
MBTI 환영? 환영(幻影)!

응답하라 추억의 만화, 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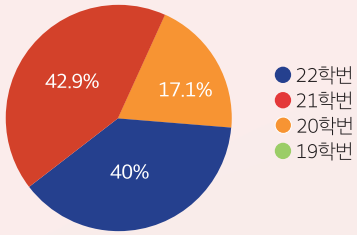
눈을 떠보니 내가 새내기!?

편집위원 장진주

'새내기', 이처럼 설레고 두근대는 말이 또 있을까. 듣는 것만으로도 설레고 마음이 파릇파릇해지는 이름이다. 봄을 가장 남다른 마음으로 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본격적으로 성인이 되어 20대를 처음 맞이하는 스무 살 새내기들이 아닐까. 나름의 걱정과 두려움도 있겠지만, 대학 생활에서 가장 풋풋하고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자면 바로 1학년, 새내기 시절인 듯하다. 즐거운 추억들도 가득한 반면, 되돌아보면 아쉬운 점들도 많이 남는 새내기 시절. 만약 내가 다시 새내기 때로 되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사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준 학우분들은 22학번 40%, 21학번 42.9%, 20학번 17.1%로, 총 36명의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새내기들은 모두 이 설문조사에 주목해 보자!



1. 새내기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새내기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묻는 질문에는 '여행', '새로 사귄 동기들, 짝선배와의 밥약', '동기들과 밤새 술 마시기' 등의 답변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밖에도 '미팅', '연애', '온라인 강의에서 흑역사 생성' 등의 답변이 있었다. 22학번의 경우, 새내기 때 대면으로 새내기 배움터와 연합 MT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응답도 있었다.

2. 새내기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새내기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을 묻는 질문에는 20, 21학번과 22학번의 대답이 극명하게 갈렸다. 20, 21학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새내기 시절을 완전히 비대면 체제로 보내야만 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새내기 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 '온라인 수업', '서울에서 지내지 못한 것', '코로나로 인해 MT, 신환회, 새내기배움터, 종강파티 등을 하지 못한 것', 비대면이라 동기들과 빨리 친해지지 못한 것' 등의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22학번의 경우, '취미나 특기를 찾지 못한 것', '평일에 과외를 많이 해서 잘 놀지 못한 것', '동아리를 하지 않은 것' 등이 있었다. 또한 '코로나에 걸려서 새내기 배움터에 가지 못한 것', '학기 초에 다양한 행사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 등 코로나로 인한 제약과 관련된 답변들도 있었다.

3. 새내기 때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사향인들이 새내기 때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동기들, 친구들과 여행 가기' 답변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여기에는 새내기 때를 되돌아보면 동기들, 친구들과 여행을 많이 다닌 것이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것 같다, 그리고 새내기 때 가장 시간적 여유가 많다는 이유가 있었다. 두 번째로 '동기들과 매일 놀러 다니며 동고동락하기', '동기들과 학교 축제 참여하기' 등 동기와 관련된 답변이 많이 나타났다. 코로나로 인해 동기들을 만날 기회가 적었던 20, 21학번의 경우는 이에 대해 아쉬움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새내기 때가 아니면 불가능한 '새내기

배움터', 'MT'와 관련된 답변이 세 번째로 많았다. 새내기 때만 누릴 수 있고, 새내기의 느낌과 감정으로 즐기고 싶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네 번째로는 '연애'와 관련된 답변이 많았다. 스무 살 때만 즐길 수 있는 풋풋한 연애가 있기 때문이다. 1학년 때 미팅의 기회가 가장 많기 때문에 '미팅'과 관련된 답변도 있었다. 그 밖에도 '동아리 활동', '기타 배워서 밴드 동아리 들어가기', '대외활동', '다양한 사람 많이 만나기' 등의 답변들이 있었다. 대학생 때 누릴 수 있는 것 중 가장 큰 것이 동아리이고, 다른 전공을 가진 사람들도 만나보고 싶다는 이유였다. '결석해 보기'라는 답변도 흥미로웠다. 고학년이 되면 학점 걱정 때문에 결석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선배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놀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은 새내기 때 이것저것 해보고, 후회 없이 놀아보는 것은 어떨까?

4. 나에게 '새내기'란?

(새내기 시절이 본인에게 가지는 의미를 간단한 단어, 혹은 문장으로 서술해 주세요.)

모든 것이 새롭고 소중한 때, 돌아가고 싶은 시절

푸릇푸릇 새싹

아쉬움 가득한 시절, 코로나가 없는 때에 다시 경험해 보고 싶은 시절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으로 내던져졌기에, 위태롭고 불안하면서도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렜던 '청춘'

'새 신발'이다. 한 번 신으면 아무리 빨아도 새것이 될 수 없지만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것처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기이지만 마음만 먹는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기!

'겁 없는 도전'이다. 순간만큼 기억 속에서 영원하고 그 어떤 무모한 도전도 청춘의 틀에 미화될 수 있다.

시작. 정말 20대가 시작되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시작'이라는 단어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한다고 느껴요. 모든 것이 다 처음이기에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익숙지 않은 시기이고, 그래서 그만큼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기대와 설렘도 있는 거겠지요.

헌내기와의 인터뷰

- with 영어교육과 22학번 송재우 학우님

Q 재우 학우님에게 '새내기 시절'이란? (나의 새내기 시절을 한 단어로 요약해 주세요.)

전환점!!

Q 재우 학우님의 새내기 시절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나름대로 알차게 새내기 시절을 보냈습니다. 운동을 시작해서 건강이 좋아졌고, 과외를 해서 생활비도 벌고 교육 경험도 쌓았습니다. 축제 준비도 해보고 과 동기의 동아리 공연을 응원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했던 한 해였습니다.

Q 새내기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

학교에서 다양한 수업을 들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앞구르기, 뒤구르기도 해보고 피아노도 쳐봤으며 수채화도 그려봤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교대만의 다양한 수업이 기억에 남습니다.

Q 새내기 때 가장 아쉬웠던 것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사람들과 친해지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제가 말수도 적고 낯을 가리는 편이라 사람들에게 먼저 친근하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T^T.

Q 새내기 때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 한가지!

관심이 가는 동아리에 가입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즐겁게 동아리 활동하기!

Q 새내기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대학교에 입학해서 첫 학기를 보내시느라 몸과 마음이 조금 피로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도 잘 보낼 수 있도록 방학 동안에 포근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새내기와의 인터뷰

- with 체육교육과 23학번 김도아 학우님

Q 대학교 입학 후, 지금까지 한 일 중 가장 재미있었고,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셨나요?

설렘을 가지고 서울교대에 입학한 만큼, 입학 전 제가 기대하던 것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새내기 미리배움터, 과 MT, 동아리 활동 … 입학 후 지금까지 기대하던 다양한 활동들을 누리며 학교생활을 했는데 가장 재밌었고 기억에 남는 활동은 23학번 동기들과 함께 서울 명소 구경을 갔던 활동인 것 같아요. 수업 중 서울 명소, 박물관 등을 방문한 후 보고서를 쓰는 과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서울에 살면서도 쉽게 가 볼 엄두를 내지 못했던 장소를 제가 애정하는 동기들과 경험한다는 것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Q 새내기 생활이 절반 정도 끝나가는데, 남은 1학년 생활 동안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축제에서 무대에 올라가 공연을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Q 올해의 목표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올해의 목표는 영어회화 실력 쌓기입니다! 제가 영어를 정말 못하고 또 말하는 것에 자신이 없는데 꾸준히 영어공부를 해서 자신감 있게 영어로 의사소통하고 싶습니다.

Q 이번 여름방학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이번 여름방학 일정은 여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체육과 mt부터 교회 수련회, 동아리 수련회 그리고 대회, 농활까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하지만 한편으로 여행 경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경제활동을 병행할 것 같습니다.

Q 21학번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많은 학우분들께서 비대면으로 인해 새내기 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웠다고 합니다. 대면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저는 학교에 나오는 것을 좋아하고 동기들 얼굴 보는 것이 너무 행복한 외향형 인간이기 때문에, 대면 수업에 매우 만족합니다. 대면 수업은 아무래도 동기들, 교수님과 친해질 수 있고 재미있는 추억을 쌓기 좋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면 수업의 치명적인 단점으로, 통학으로 인한 시간 낭비와 막대한 교통비 지출을 뽑을 수 있을 것 같네요.

Q 마찬가지로 설문조사 결과, 새내기 때로 돌아가면 가장 하고 싶은 일에는 '여행', '동기들과 매일 놀러 다니기', '엠티', '연애', '동아리' 등 다양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 이미 해봤거나, 하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저는 현재 스포츠 동아리 2개, 학술 동아리 2개, 종교동아리, 예비교사 네트워크 풀짝에 소속해 활동 중입니다. 하고 싶었던 동아리를 원 없이 하는 중이에요! 동기들과 운동장에 앉아 동그라미도 해봤고,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틈틈이 번개 모임도 가지고 있답니다. 남은 새내기 동안 하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동기와 함께 밤새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Q 그 밖에도 혹시 학교생활이나 학업적으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을까요?

저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아요. 나름 학점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부끄럽지 않은 학점을 받고 싶어요. 또 서울교대에는 멋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교수님들과 더 친해져서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토론해보고, 테니스도 같이 쳐보고 싶습니다!

Q 나에게 '새내기'란?

새 세상으로 내 온 열정을 던져 기 쁨을 누리는 것

엄청 뜨겁고 순수했던, 그래서 시리도록 그리운 그 시절. 청춘의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서툴고 투박하며 촌스럽지만, 그렇기에 더 가슴 깊이 기억되는 것. 이 시절은 평생 기억에 남을 소중한 시간이다. 새내기 시절은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덩달아 성장할 수 있는 깊은 뿌리가 된다. 본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설렘과 뜨거움과 겁 없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 채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새내기들이라면, 오늘에 고마움을 가졌으면 한다. 또한, 예전을 그리워하며 혹은 후회하고 있을 헌내기들 또한 지금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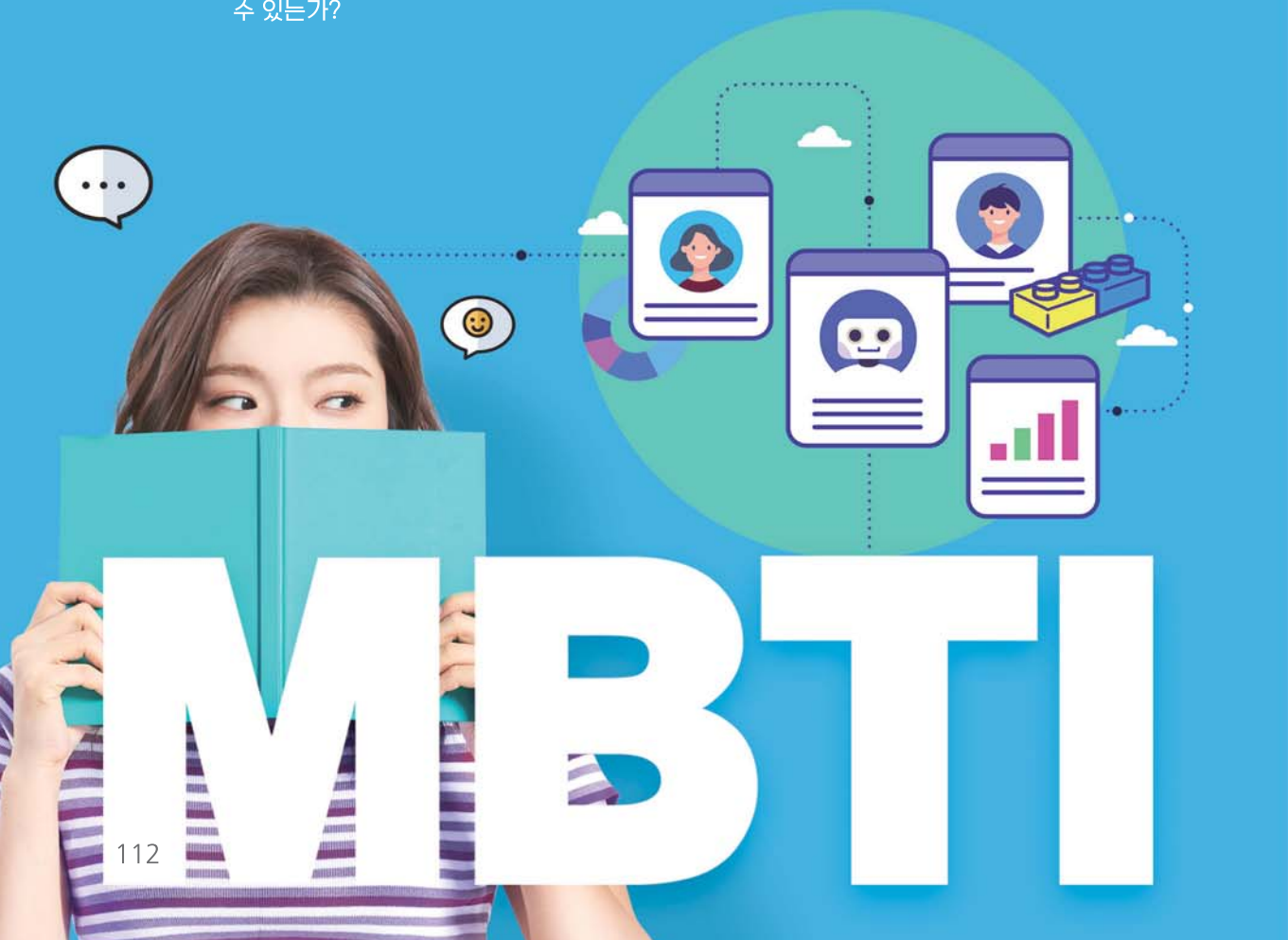


MBTI 환영, 환영(幻影)!

편집위원 김민혜
편집위원 정민우

"네가 J라고? 매번 당일에 과제를 끝내길래 P인 줄 알았어!"

우리는 종종 MBTI로 개인의 한 부분인 성격을 규정하고 단정 짓는 모습을 보인다. 첫 만남부터 심지어는 기업의 채용 과정까지, 우리의 세계에 깊이 스며든 MBTI. 일상의 조각이 되어버린 알파벳 네 글자는 과연 한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가?



MBTI란?

MBTI는 Myers-Briggs Type Indicator의 약자로, 심리학자 마이어스와 그의 어머니 브릭스가 공동 개발한 개인별 성격 구분 방식을 의미한다. 4가지의 양극적 선호 경향으로 구성되어 인간을 총 16가지 심리 유형으로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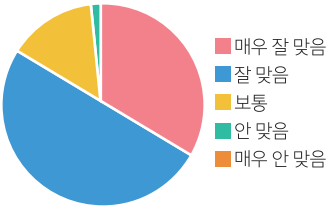
에너지의 방향 (E vs I)	Extraversion(외향)	Introversion(내향)
사람, 사물의 인식 (S vs N)	Sensing(감각)	iNtuiton(직관)
판단의 기준 (T vs F)	Thinking(사고)	Feeling(감정)
생활 양식 (J vs P)	Judging(판단)	Perceiving(인식)

MBTI 유형 분류법

사향인들은 MBTI를 어떻게 생각할까?

① MBTI, 얼마나 잘 맞나요?

매우 잘 맞음(33.3%), 잘 맞음(50.9%), 보통(14%), 안 맞음(1.8%)의 비율로 대부분 MBTI가 본인의 성향과 잘 맞는다고 판단하였다.



사향인들을 대상으로 한 MBTI 설문조사 결과

② MBTI에 대한 사향인들의 생각은?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된다.", "나를 설명하고 타인을 알아가기에 유용하다.", "한 사람을 표현하는 간단하고도 명료한 방법이다.", "재미있는 대화 소재가 될 수 있다." 등 MBTI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와, "16가지의 유형만으로 사람을 구분하기에는 지표가 한정적이다.", "자기보고식의 검사 방법으로 인해 측정에 대한 객관성이 부족하다." 등의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다. 대체로 MBTI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③ MBTI 과몰입 현상에 대한 사향인들의 생각은?

흥미롭게도 MBTI 그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가 많았으나, MBTI 과몰입 현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좋다.", "과몰입은 MBTI를 즐기는 현상 중 하나이므로 상관이 없다." 등의 소견도 있었지만, "개인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성격을 정형화시키는 부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MBTI 자체에 대한 과몰입은 괜찮지만, MBTI와 다른 개념을 섞어 일반화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부정확한 정보가 만연해지는 것에 문제가 있다." 등의 부정적인 소견도 있었다.

"MBTI 맹신, 왜 위험한가"

20201316 신재욱 학우님

MBTI는 자신에게 편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 젓가락질하는 것이 불편하지만, 훈련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MBTI의 각 항목은 훈련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할 때 선호되는 것을 평면적으로 편집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훈련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성격임에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평가하게 된다. 또한, MBTI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성숙과 미성숙의 개념이 발생한다. 같은 ISTP여도 세부적으로 보면 미성숙한 ISTP와 성숙한 ISTP로 구분이 된다. 더 자세히 파고들면 미성숙한 I, 미성숙한 S, 미성숙한 T, 미성숙한 P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만 계산해도 사람의 성격은 44=256가지로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과몰입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16가지의 틀에 사람을 넣으려고만 한다. MBTI 과몰입은 알파벳만으로 타인을 함부로 재단하며, 사람 자체를 경험하며 이해하려는 시도를 막는다. 자신과 타인을 이해할 때 참고하기 위한 도구인 MBTI는 결국 타인에 대한 이해를 없애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MBTI의 '허상'에 관하여

초등교육과 임효진 교수님 인터뷰

Q 교수님의 MBTI는? 교수님의 성향과 얼마나 비슷한지?

A 논리적인 사색가 'INTP'입니다. 실제로 'INTP'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 제 성격과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발명가 형, 연구자 형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걸 보니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네요(웃음)

Q 사람들은 왜 MBTI에 열광할까?

A MBTI 붐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MBTI는 전부터 개발되고 활용되어 왔어요. 90년대에 처음 나왔을 때 인기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검사를 통해 자신을 이해함으로써 타인을 이해하고, 또 세상에 나와 다른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함을 인지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특성을 이해하니까 자신이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마찰이 있거나, 혹은 잘 통했던 부분이 설명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유행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타인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이 사회의 상호작용이라는 울타리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성격 유형화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또 타인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MBTI의 경향성을 통해 나에 대한 이해인 자기 수용으로부터 타인에 대한 이해인 타인 수용까지, 그 수용의 범위를 확대하게 된 것이죠. 내가 몰랐던 부분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세상을 이해하게 해주니 이보다 재밌는 의사소통이 있을까요.

Q MBTI 과몰입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A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과몰입은 MBTI 알파벳으로 사람의 성격을 규정하고, 사람에 대해 본인이 단정 짓는 정도가 되겠죠. 조금 더 깊이 있게 과몰입을 이해해 볼까요? 과몰입을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유형이 이렇다고 단정하고, 또 유형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앞서 '타인 이해'라는 표현을 썼는데, 타인 이해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제는 어떤 행동을 하는 모든 원인을 성격 유형으로부터 찾는 것이 과몰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모든 행동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원인이 있어도 과몰입이라는 것은 MBTI 하나로만 설명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오늘 인사를 안 받아줬으면 인사를 받지 않은 원인이 친구의 기분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사정 때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MBTI 과몰입 현상에 비추면 "저 친구는 I여서 소극적이라 인사를 받지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른 설명을 다 차치하고 성격 유형만으로 단정 지어 버리는 것이죠. 이는 편협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하나로만 설명할 수 없는데 사람의 유형을 16개로 확정적으로 나누어, 한 유형은 다른 유형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판단해 버리는 건 참으로 위험하죠.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기능을 활용할 때가 많아요. 아무리 내향적인 사람이어도 외향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순간이 존재할 테니까요. 하지만 MBTI 과몰입 현상은 알파벳 안에 우리를 가두기에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이 사람이 다른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만들죠.

Q MBTI 과몰입 현상과 관련된 심리학 개념이 있다면?

A '바넘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넘 효과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성격 특성을 자신의 성격과 일치한다고 믿으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점성술이나 혈액형별 특성을 믿는 이유도 바넘 효과의 예시가 될 수 있어요. MBTI도 마찬가지인데요. 유형별 특성을 보면 유형마다 공통된 부분이 꽤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인데 "오 나한테 맞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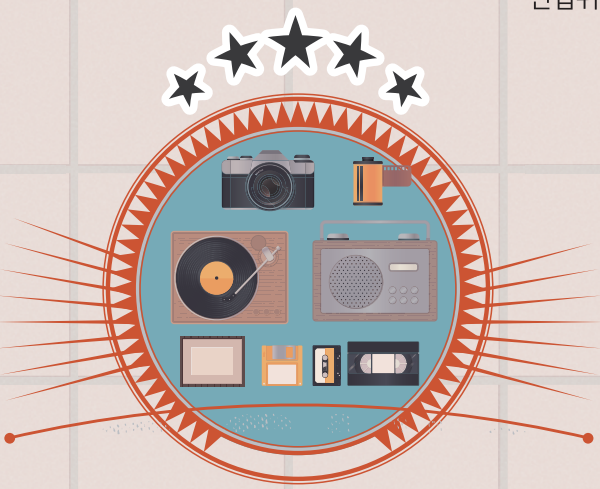
Q 슬기로운 MBTI 활용법

A MBTI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신뢰도와 타당성의 문제**도 있지만 분명 장점도 존재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서 편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MBTI는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에, 분위기를 좋게 하거나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때 참 유용하죠. 또한, **자기 이해의 측면**에서 검사는 여러모로 효과적입니다. MBTI는 자기에 대해서 먼저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사람들과의 소통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에요.

MBTI 검사와 같이 남의 성향에 비추어 나를 공고히 하는 일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MBTI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상대방이나 자신에 대한 선입견을 갖는다거나 쉽게 판단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못한 일일 것이다. 교육심리학의 권위자이신 교수님 말씀처럼, MBTI를 의사소통과 자기 이해의 측면에서 슬기롭게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팔레트에서 물감을 섞어서 새로운 색을 만들고 표현하듯이, 우리 안에 내재하여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MBTI의 환영(幻影)에 쉴 새 없이 쫓기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MBTI를 환영(歡迎)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본다.

응답하라 추억의 만화, 애니!

편집위원 한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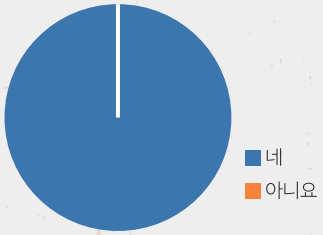


2023년 초 슬램덩크의 열풍을 필두로 과거 세대가 열광했던 책과 만화책 등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억의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소환해보자. 꿈 많던 소년 소녀로 돌아가고픈 '어른이' 사향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 시절,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한 어린 시절 추억의 만화는 무엇인가요?

총 33명의 사향인이 설문에 응답해주었다. 어떤 답변이 나왔을지 함께 살펴보자!

1. 어릴 적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며 즐거웠던 경험이 있나요?

어릴 적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며 즐거웠던 경험이 있냐는 물음에 응답한 사향인 모두(100%)가 '있다'라는 답변을 했다. 다수의 학생들이 어릴 적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접했음을 알 수 있었다.



2. 가장 인상깊었던 추억의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적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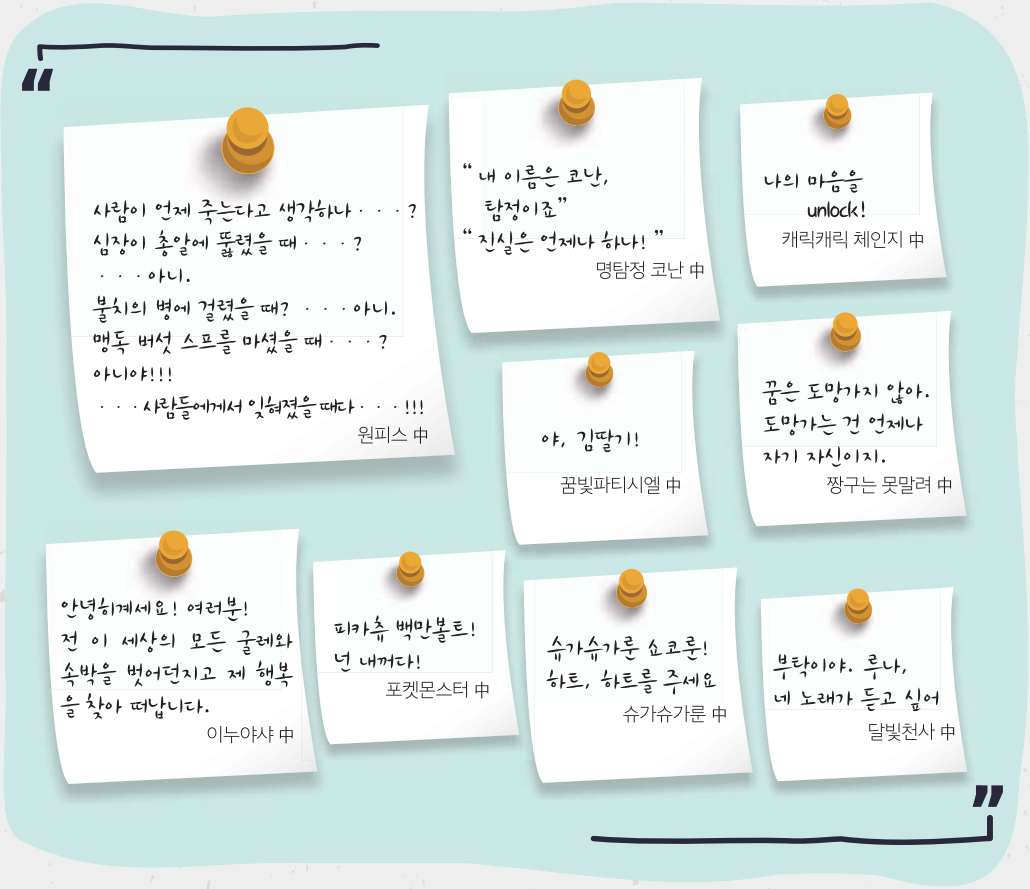
인상깊었던 추억의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묻는 물음에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다음은 사향인들이 말한 추억의 만화 중 다수가 답변했던 만화 몇 가지와 간략한 줄거리이다.

	**짱구는 못말려** 초코비를 좋아하는 5살 짱구! 언제나 활기찬 짱구의 일상 속으로 함께 떠나자! 말썽쟁이 짱구,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꿈빛 파티시엘** 하루하루가 실패의 연속이지만 할머니의 맛을 재현하고 싶은 요리사라는 꿈을 위해 노력하는 딸기의 성장과 우정, 사랑 이야기
	**명탐정 코난** 검은 조직의 계략에 의해,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고등학생 탐정 남도일! 초등학교 1학년 코난이 되어 어려운 사건들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캐릭캐릭체인지** 180도 다른 캐릭터로 변신하는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애니메이션. 내 마음을 unlock!
	**아따맘마** 언제나 정겨운 아리네 가족의 일상을 담은 애니메이션. 아빠, 엄마, 아리, 동동이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잘있어요. 다시 만나요.		**이누야샤** 평범한 여고생 가영은 마당의 우물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 반인반요 이누야샤를 만난다. 흩어진 사혼의 구슬을 되찾기 위한 전국시대 모험 이야기
	**포켓몬스터** 관동지방의 태초마을에 살고 있는 지우는 오박사로부터 피카츄와 몬스터볼, 포켓몬 도감을 받아 포켓몬 마스터를 목표로 여행을 떠난다.		**달빛천사** 시한부 루나에게 나타난 사신 콤비의 도움으로 그토록 바라던 가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

위의 애니 이외에도 은하철도999, 달려라 하니, 라라의 스타일기, 고스트 바둑왕, 파워레인지 매직포스, 개구리중사 케로로 등 여러 답변이 등장했다.

2-1 해당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를 소개한다면?

어린 시절 추억의 애니와 만화 속 기억에 남는 장면과 대사를 물어보았다. 듣기만 해도 어릴 적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때 그 시절의 만화 속 명대사를 살펴보자!



2-2 해당 애니메이션을 좋아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애니메이션을 보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분명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아직도 어릴적 애니메이션을 기억하고 때로는 추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향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초등학생일 때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보여주셨는데, 하니가 열심히 달리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 달려라, 하니!를 보고

"매일 새로운 모험을 하며, 동료를 만나고, 도전하는 지우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포켓몬스터를 보고

"사회적 환경 속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선과 악에 대한 가치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여자주인공 성격이 굉장히 닮고 싶었고 남자 주인공이 제 이상형입니다."

- 레이디버그를 보고

"현대랑 전국시대를 오가면서 요괴를 해치운다는 내용도 재밌고, 오프닝, 엔딩도 다 너무 좋아서 아직도 종종 듣습니다!! 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도 다 매력있어요."

- 이누야샤를 보고

"주변에 있을법한 가족 이야기라 좋았어요"

- 아따맘마를 보고

"여러 캐릭터랑 변신해서 오늘은 누구랑 변신할까 기대하는 재미도 있었고, 감동적인 멘트가 꽤 나와서 좋았다"

- 캐릭캐릭 체인지를 보고

"샤먼킹에서 주인공도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꿈을 위해 노력해요. 그러한 과정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이 택했던 길에서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루려는 노력이 참 좋았어요. 그런 단단한 내면이 참 좋았고 위로가 되었던 만화였습니다."

- 샤머킹을 보고

"짱구는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도 언제나 5살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어주는 멋진 친구인 것 같아요. 시공간이 멈춰있는 짱구의 세계에 들어가는 순간만큼은 현실적인 고민으로부터 해방되어 짱구를 보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느껴진답니다. 짱구를 보는 시간만큼은 현실에서 지친 마음을 잠시나마 달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기에,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 짱구는 못말려를 보고

3. 어릴 적 좋아했던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를 알려주세요.

추억의 애니메이션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만큼 그 애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도 단연 기억에 남을 것이다. 추억의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를 소환해보았다.

짱구(짱구는 못말려), 이누야샤(이누야샤), 피카츄(포켓몬스터), 조로(원피스), 블랙캣(레이디버그), 피에르(슈가슈가룬), 가온이(꿈빛 파티시엘), 라라(라라의 스타일기), 남도일(명탐정 코난), 블루(파워레인저 매직포스), 셋쇼마루(이누야샤), 자두(안녕 자두야)

이렇게 우리가 웃고 울고, 즐겼던 그 시절의 만화를 소환해보았다. 어떤가. 그 시절의 향수가 새록새록 떠오르지는 않는가. 이 기사가 독자 여러분에게 행복한 추억 여행이 되었기를 바란다.

2023 통권 55호

5

INFO

사향지기

만 나이 통일, 그럼 내 나이는 어떻게 될까?

은반 위의 금빛 질주, 쇼트트랙의 모든 것

깻잎 논쟁에 매몰된 사회적 논쟁

글씨체를 통해 성격을 알 수 있을까?



만 나이 통일, 그럼 내 나이는 어떻게 될까

편집위원 송태영
수습위원 김민아

2004년 12월 30일에 태어나 올해 스무 살이 된 새록이에게는 최근 들어 고민이 하나 생겼다. 동기들과 술을 마시러 갈 때마다 성인이 되었다는 기분을 실감하지만, 이제 곧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어 18살로 돌아간다고 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어려지면 새록이는 다시 미성년자가 되는 걸까? 만 나이 통일법이란 무엇이고 시행 배경과 우려되는 부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태영, 민아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K-나이의 모든 것

이름, 성별, 나이 등 많은 정보로 우리는 자신을 나타낸다. 그중 나이는 내가 태어나 살아온 햇수를 의미하는 중요한 정보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혼용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세는 나이>

- 통상적으로 '나는 몇 살'이라고 말할 때 사용
- 날짜와 상관없이 태어난 해를 기점으로 하여 새해가 되면 한 살씩 더해가며 세는 나이
- 과거에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두루 사용했지만,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해서 '한국식 나이'라고 불림
- 2023년 4월 시점 새록이의 나이: 20세

<연 나이>

-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방식
- 나이를 세는 방법이 직관적이고 쉬워서 자료조사나 통계, 법령에서 주로 사용
- 현재도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등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함
- 2023년 4월 시점 새록이의 나이: 19세

<만 나이>

- 태어났을 때를 0살로 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을 더 추가하는 방식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나이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계산 방식은 연 나이와 같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로 1살을 빼는 점에서 다름
- 한국 역시 법적으로는 1962년부터 만 나이를 사용 중이며, 의료나 복지와 관련된 법에 주로 적용
- 2023년 4월 시점 새록이의 나이: 18세

만 나이 통일이 필요한 이유

그렇다면 그동안 잘 혼용해왔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인들은 세는 나이에 익숙해져서 실생활에서는 연 나이나 만 나이를 거의 쓰지 않는다. 공문서에 표기된 나이 기준을 착각하거나, 나이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 사용이 초래하는

혼선과 법적·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을 도입하였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예방 접종을 권고한 적이 있는데, 이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경우 '30세 미만에게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두고 혼란이 빚어졌었다. 또 백신 접종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행정기관 방역 조치인 방역 패스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시행되어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나이 해석에서 비롯된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남양유업 단체협약의 '임금피크제가 56세부터 적용된다'라고 한 부분을 두고 노동위원회는 만 나이로, 사측은 연 나이로 해석한 것이다. 해당 분쟁은 1심에서 만 55세, 2심에서 만 56세의 판결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만 55세로 확정됨에 따라 일단락되었다. 그러므로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발생을 막으며 장기적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금피크제: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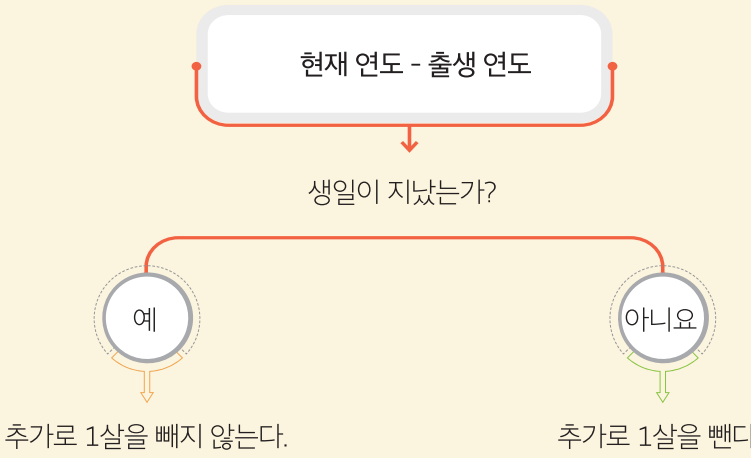
만 나이 통일법이 제정되기까지의 흐름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나이 셈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2년 4월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17일,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만 나이 사용이 정착, 통용되면 나이에 대한 국민의 다툼 여지가 사라져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당월 27일 '만 나이 통일법'이 공포되었다. 이 행정기본법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로써 공포 6개월 후인 2023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되게 되었다.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 나이 제도는 태어났을 때를 0살로 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을 더 추가하는 방식이다. 즉, 만 나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로 1살을 빼면 된다. 우리 모두가 지금의 나이보다 많게는 2살, 적게는 1살이 줄어드는 셈이다.



예를 들어, 2004년 12월 30일에 태어난 새록이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6월 28일에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므로 2023-2004-1=18세이다. 반면, 2004년 4월 18일에 태어난 사향이는 생일이 지난 시점이므로 2023-2004=19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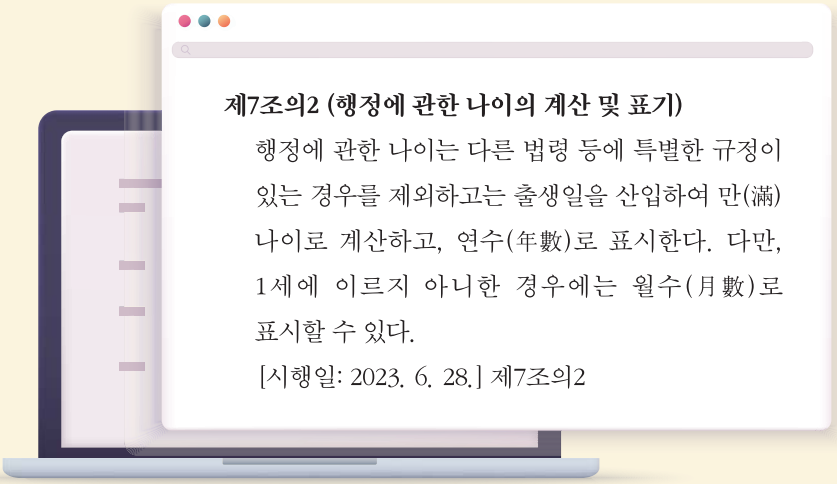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의 반응과 우려되는 점

국민 대부분은 만 나이 통일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법제처가 2022년 9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가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및 행정 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일상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86.2%였다. 올해 30세인 A씨는 "당장 20대로 돌아갈 수 있어 기분이 좋은 것 같다."라며 반색했고, 직장인 B씨는 "위계질서를 위해 관습적인 용도로 사용되어 온 세는 나이를 없애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법적으로 명시가 잘 되어있더라도 인식 상의 혼란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이에 전문가들은 만 나이로 기준을 통일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보면서,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하위 법령 등을 통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 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 나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새록이의 고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정부에서 추진한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하여 개정된 행정기본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 나이 계산 방식으로는 자신의 출생일이 지나고 나서야 성인으로 인정받는데, 자신의 생일이 시행일인 6월 28일보다 뒤에 있는 새록이는 친구들이 다 가는 술집에 정녕 자신만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제시된 행정기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에 주목해보자. 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과 술을 마실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법률은 행정기본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이다. 청소년보호법에서 미성년자와 성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행정기본법의 만 나이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가 되는 그 해의 첫날을 기점으로 성인을 규정한다. 즉,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로 청소년보호법 상 성인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기본법 상 만 18세인 새록이는 청소년보호법 상으로는 성인으로 취급되어 술집 출입 및 주류 구매, 섭취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에게 제한됐던 담배 구입, 호텔/펜션 등의 숙박업소 이성 혼숙 금지 등의 조항도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만 나이 통일과는 무관하다.

한편, 현재 연 나이로 규정되어 있는 60여 건의 법령의 경우에는 개별법마다 정비가 필요하기에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6월 28일부터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 나이 적용 이후에도 취학 의무 연령에는 변화가 없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령 기간과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만 나이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다. 아직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남아있지만, 하루빨리 만 나이 통일에 관한 사회적 혼란이 해소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은반 위의 금빛 질주, 쇼트트랙의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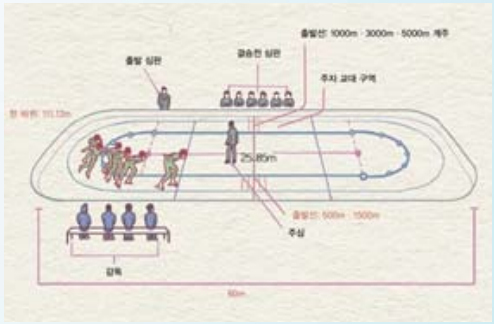
편집위원 장진주

지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대회가 우리나라 서울 목동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동계 올림픽에 이어 월드컵 시리즈에서도 활약하며 쇼트트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상승했다. 무려 7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열리는 대회였던 만큼, 3일권 티켓이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동이 날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웠다. 쇼트트랙은 과연 어떤 경기 종목일까? 쇼트트랙이 궁금한 사향인들은 여기에 주목! 지금부터 진주 기자와 함께 쇼트트랙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자!



쇼트트랙 정의 및 개요

우리가 쇼트트랙이라고 부르는 이 종목의 정식 명칭은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이다.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은 111.12m 아이스링크 위에서 스케이트 경주를 펼치는 빙상 경기이다. 기존의 400m의 트랙에서 경주하는 롱 트랙 스피드 스케이팅보다 짧은 트랙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짧다'는 의미의 '쇼트'가 붙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위로 우승자를 가리는 경기이며, 동계올림픽에서는 남자, 여자 총 8개의 종목이 진행된다. 쇼트트랙 종목은 실내경기장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인도어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이라고 한다. 쇼트트랙은 지구력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파워, 몸싸움과 상대의 허를 찌르는 두뇌 플레이 등이 필요한 경기로, 관중들은 마지막까지 스릴을 만끽할 수 있어 동계 스포츠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그림출처: 구글, YTN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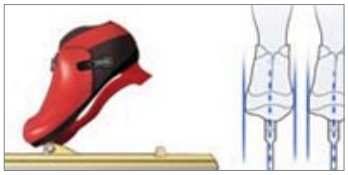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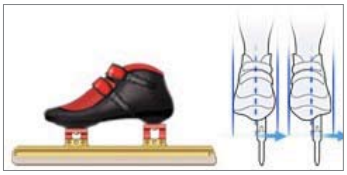
여기서 잠깐! 쇼트트랙 vs 스피드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과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은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판 위를 달려 속도로 승부를 겨루는 대표적인 빙상 경기이다. 스피드 스케이팅은 육상의 트랙경기처럼 400m 트랙의 아이스링크에서 경기를 펼치는 반면, 쇼트트랙은 11.12m의 짧은 트랙의 아이스링크에서 스피드를 겨누는 스케이팅 경기이다. 스피드 스케이팅은 2명의 선수가 주어진 레인 안에서 어떠한 방해도 없이 스케이팅하여 기록을 기준으로 순위를 가리는 반면, 쇼트트랙은 4~6명의 선수들이 동시에 오픈 레이스를 펼쳐 마지막 결승선에서 순위가 정해진다.





그림출처: 두산백과

구성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기원 국가		네덜란드	북아메리카
순위 결정		기록 (속도)	등수 (순위)
스케이팅 방법		직선 구간에서 가속 곡선 구간에서 속도 유지 *교차 구역이 정해져 있음	직선 구간에서 속도 유지 곡선 구간에서 가속 *교차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음
경기용구	이미지		
	특징	- 스케이트 뒷부분이 날과 분리됨 - 스케이트 날이 신발의 중앙에 위치함	- 코너링할 때 발목이 다치지 않도록 발목을 덮는 형태 - 코너링을 잘 할 수 있도록 선수 기준, 중심보다 왼쪽에 날이 붙어 있음 - 오른발의 날이 안쪽으로 조금 더 휜 형태

그림출처: 두산백과

쇼트트랙 유래와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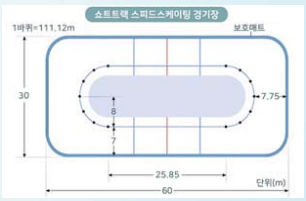
쇼트트랙은 동계스포츠가 발달된 북미와 캐나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며, 오스트리아에서도 오래 전부터 성행하였다.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친선 경기 형식으로 영국에서 벌어진 국가대항전이 쇼트트랙 대회의 효시로 전해진다. 영국에서 1981년 제1회 세계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 대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986년 제1회 동계 아시아 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쇼트트랙 경기 종목

쇼트트랙은 크게 개인(4~8명 경주)과 단체 종목(계주 4명)으로 나뉜다. ▷남자는 500·1000·1500m 및 5000m 계주 ▷여자는 500·1000·1500m 및 3000m 계주 등 총 8개의 종목이 있으며, 여기에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부터 신설돼 치러진 혼성 계주(2000m)가 있다. 혼성 계주의 경우 남녀 선수 각각 두 명씩 총 4명이 한 팀을 이뤄 트랙을 18바퀴 도는 경기이다. 각 종목에서 예선, 준준결승, 준결승, 결승전이 펼쳐지는데, 보통 500m와 1000m의 단거리는 4명이, 1500m 이상의 장거리는 6~8명이 동시에 출발한다.

구분	남녀 개인/ 단체종목 (종목 수)	바퀴 수
500m	남자, 여자 개인종목(2)	4.5 바퀴
1000m	남자, 여자 개인종목(2)	9바퀴
1500m	남자, 여자 개인종목(2)	13.5바퀴
2000m 계주	남녀 혼성 계주(1)	18바퀴
3000m 계주	여자 단체종목 계주(1)	27바퀴
5000m 계주	남자 단체종목 계주(1)	45바퀴

쇼트트랙 시설 및 용구





그림출처: 구글, 두산백과

쇼트트랙 경기는 넓이가 61m×30m인 실내 아이스링크에서 치러지며 1바퀴의 거리는 111.12m이다. 선수들은 코너링 등을 위해 스케이트 날이 왼쪽으로 살짝 휘어져 있는 스케이트를 신는데, 이는 코너를 돌 때 원심력에 의해 몸이 바깥쪽으로 밀리는 현상을 막아준다. 쇼트트랙 스케이트 날은 앞뒤를 깎아 가운데를 볼록하게 만드는데(로그), 이는 얼음과 닿는 면적을 최소화해 스피드 손실을 줄이면서도 곡선주로 주파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날의 뒤끝이 둥글게 깎여있어야 하는데, 이는 여러 명의 선수들이 한꺼번에 레이스를 펼치는 종목 특성상 안전을 위한 것이다. 쇼트트랙 선수들은 몸을 보호하기 위한 헬멧과 장갑, 무릎 보호대 등을 착용한다. 이때 규정에 어긋나는 장비는 착용할 수 없다. 세계 선수권대회나 동계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노란 바탕에 검은 글씨로 선수번호가 표시된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헬멧 번호는 세계선수권 종합성적순으로 부여된다. 고글은 바람과 얼음 파편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컬러 렌즈의 경우 빙상의 빛 반사로부터 시야 확보를 위한 것이다. 쇼트트랙에서는 경기 중에 동일한 국가의 모든 선수들은 개인 종목이나 릴레이 경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경기복의 허벅지 바깥 부분에 국가 이름이 기재되어야 하고, 글자는 5cm 이상이어야 한다. 선수들이 곡선을 달릴 때 넘어지지 않도록 빙판에 손을 짚는데, 이때 속도가 줄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갑에 에폭시 수지를 붙여 마찰력을 줄인 '개구리 장갑'을 낀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장갑을 가장 먼저 사용했다.

쇼트트랙 경기 방법

쇼트트랙은 실내 트랙에서 4~6명씩 오픈 레이스를 벌여 보통 상위 2~3명이 다음 레이스에 진출, 최종 결승전에서 순위를 가리는 토너먼트식 경기를 펼친다. 따라서 선수끼리의 접촉이 빈번하고 충돌 가능성이 높아 이변이 많은 종목이기도 하다. 경기는 시계 반대 방향, 즉 트랙의 안쪽이 스케이터 왼쪽인 방향으로 활주한다. 그리고 결승선에 스케이트 날의 앞부분이 닿았을 때 완주로 인정한다. 쇼트트랙은 승부의 주요 변수인 코너웍(Corner Work)를 구사하면서 왼손을 빙판 위에 짚는 것이 가능하다. 추월행위는 인정되지만 상대선수를 밀거나 고의적인 방해 행위는 금지된다. 만약 상대선수를 밀거나 고의적인 방해를 했을 때는 임페딩(Impeding, 밀치기) 반칙이 주어지고, 부적절하게 코스를 가로질러 상대의 주행을 방해했을 때는 크로스트랙(Crosstrack, 진로방해) 반칙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반칙을 저지르면 페널티가 부여되는데, 반칙의 정도가 심하거나 한 경기에서 패널티를 2번 받게 되면 옐로우 카드를 받게 된다. 타 선수의 반칙으로 반칙을 당한 선수에게는 준결승 경기까지 반칙 피해에 대한 구제를 해주며, 이렇게 어드밴티지를 받아 다음 경기에 올라간 선수는 A(Advance,어드밴스)가 붙게 된다. 각 경기에서 1, 2위로 통과한 선수는 Q(Qualified)가 붙으며 예선과

준준결승에서 3등으로 통과한 선수 중 가장 빠른 기록으로 통과한 선수에게는 소문자 q가 붙는다. 준결승에서 1, 2위로 통과한 선수는 결승전인 파이널 A로 진출(QA: Qualified for Final A)하며 3, 4위로 통과한 선수는 순위결정전인 파이널 B로 진출(QB:Qualified for Final B)한다. 파이널 A 경기에 앞서 파이널 B 경기에서 순위결정전을 치르는데, 파이널 A에서 여러 명이 실격을 당하면 그 선수들은 등외로 처리되므로 파이널 B에서 1위를 한 선수가 동메달을 딸 수도 있다.



쇼트트랙 국제 대회 및 시즌 운영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		
동계올림픽	세계선수권	유럽선수권
사대륙선수권	월드컵	동계 아시안 게임
상하이 트로피	청소년 동계올림픽	주니어 세계선수권

한 시즌은 보통 11월에 시작해 이듬해 3월까지 진행되는데 총 6번의 월드컵과 유럽선수권 및 사대륙선수권, 세계선수권을 치르게 된다. 주니어부는 주니어 세계선수권을 별도로 개최한다. 11월에 1, 2차 월드컵을 시작으로 12월에 3, 4차 월드컵, 1월에는 유럽선수권과 사대륙 선수권, 주니어 세계선수권을 개최하고, 2월에 5, 6차 월드컵을 진행한 후 3월 세계선수권으로 시즌을 마무리한다. 월드컵은 한 달에 2회씩 대륙을 바꿔가면서 진행하고, 현재는 1, 2차는 북미, 3, 4차는 아시아, 5, 6차는 유럽에서 개최한다. 선수권 대회 개최지는 매년 바뀐다. 모든 대회는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데, 첫날에는 세부 종목들의 예선 라운드만 진행되고 본선 라운드는 주말에 걸쳐 진행된다.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에는 9월에 시즌이 시작하며 5차와 6차 월드컵이 생략되고 추가 종목이 시행되지 않는다. 다만 무조건 유럽 개최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쇼트트랙

'쇼트트랙 = 한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쇼트트랙에 있어 세계 최강국 중 하나이다. 한국은 1983년 일본에서 개최된 세계선수권 대회에 처음으로 남, 녀 1명씩 출전하였으며, 1985년에 한국 대표팀이 본격적으로 구성되었다. 이 시기에 한국에서 아이스링크라고는 서울의 태릉스케이트장, 대구의 스포츠 센터밖에 시설이 없었지만, 실외 스케이트장 위주의 스케이팅이 실내 링크로 옮겨지면서 스케이트 열기가 고조되던 시기였다. 1990년 세계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 대회부터 우리나라의 실력은 세계 최고로 올라섰고 그 이후로 국제 경기에서 최강의 성적을 내기 시작했다. 이와 맞물려 조그만 트랙에서 속도와 기술, 경기 감각등을 토대로 아기자기하면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치는 쇼트트랙은 우리나라의 빙상 스포츠의 붐을 이끌어 내었다. 1992년 제16회 동계 올림픽대회에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오늘날까지 세계 쇼트트랙 종목 기술의 최선진국으로 그 위상을 떨치고 있다. 쇼트트랙은 우리나라 사람의 체격 조건에 가장 잘 맞는 종목으로서 앞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스포츠이다.



여기서 잠깐! 한국이 쇼트트랙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동계 스포츠에는 스피드 스케이팅부터 썰매 경기 등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유독 쇼트트랙에서 놀라운 성적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주 기자가 그 이유를 분석해 보았다. 한국이

쇼트트랙 세계 강국이 된 요인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꼽아볼 수 있다. 첫째, 체격 조건이다. 쇼트트랙은 코너링에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구가 작은 선수들이 유리하다. 곡선에서 속도를 더 내야 하는 쇼트트랙의 특성상, 키가 너무 크면 원심력 때문에 코너에서 튕겨나갈 수 있어서 서양보다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리하다. 둘째, 훈련량이다. 외신에서 놀라움을 표할 만큼, 월등한 훈련량으로 다져진 기본기로 인해 시합 중 변수에 침착하게 대처하고, 실수를 감소시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만들어 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력이다. 쇼트트랙은 곡선 주행이 80~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코너링에 최적화된 스케이트 날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스케이트 날을 조절하는 '밴딩'기술과 날의 앞과 뒷부분을 둥글게 깎는 '로그' 작업에 탁월하여 곡선 구간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날을 만들어 기록 단축에 큰 도움을 준다.



쇼트트랙 관련 용어 정리

용어	용어 설명
코너 웍 (CornerWork)	트랙 코너에서의 선수의 활주 방식. 코너는 직선 코스와 달리 원심력의 작용에 의해 몸이 바깥쪽으로 크게 흔들리는 수가 있다.
아웃코스와 인코스 (Outcourse)	아웃코스는 스케이트장의 트랙에 있어서 바깥쪽 코스를 말하며, 인코스는 안쪽 코스를 가리킨다.
Q (Qualified)	다음 경기로 진출할 자격을 말한다.
QA (QualifiedforFinalA)	파이널A(결승전)로 진출할 자격
QB (QualifiedforFinalB)	파이널B(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한 선수들의 순위 결정전)에 진출할 자격
DQ (Disqualified)	실격
ADV (Advanced)	타 선수의 반칙으로 넘어지거나 순위에 지장을 받아 다음 경기에 진출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 다만 자신의 실수로 넘어지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PEN (Penalty)	반칙을 해 상대 선수에게 방해를 가하거나 위험 플레이를 했을 경우 주어진다.
YC (YellowCard)	한 경기에서 패널티(반칙)를 2번 받는 것을 말한다.
DNF (DidnotFinish)	경기를 끝내지 않음(미완주)
DNS (DidnotStart)	경기를 시작하지 않음(불참,결장)
오프트랙 (Off-Track)	코너를 돌 때 트랙마커 안쪽으로 들어와 코스이탈
임페딩 (impeding)	상대선수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가로막기, 차징(공격), 몸의 어느 부분을 미는 행위
어시스턴스 (Assistance)	계주에서 밀어주는 행위를 제외하고 다른 동료선수를 밀어주는 등 도음울 주는 행위
키킹아웃 (kickingout)	날을 들이밀 때 빙면에 붙이지 않고 위로 차는 행동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결승선 통과 시 몸을 던지는 행위
마커 (marker)	트랙의 경계를 정하는 표시.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얼음에 부착되어 있지 않다.
트랙 (track)	표준 링크에서는 길이가 111.12m인 타원형 트랙. 롱 트랙과는 달리, 레인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호매트 (protective mat)	선수가 넘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판에 덮어 놓은 패딩.

이 기사를 읽고 쇼트트랙에 대해 흥미가 조금이라도 생겼는가? 이제 쇼트트랙의 매력에 흠뻑 빠질 차례이다. 아는 만큼 재미는 배가 되는 법이니까. 동계 올림픽뿐만 아니라 세계선수권 대회, 월드컵에도 많은 응원과 관심을 바란다. 쇼트트랙에는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과 열정, 땀이 녹여져 있다. 스포츠로 하나 되는 그 날까지, 은반 위의 그들은 차갑지만 뜨거운 금빛 질주를 펼치고 있을 것이다.

깻잎논쟁에 매몰된 사회적 논쟁

수습위원 김도아

작년, 인터넷상에서 '깻잎논쟁'에 대한 많은 사람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깻잎논쟁이란 자신, 자신의 연인, 제삼자인 이성 친구가 함께 밥을 먹을 때, 제삼자인 이성 친구가 먹으려는 깻잎을 연인이 떼어주어도 괜찮냐는 질문을 뜻한다. 깻잎논쟁을 통해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에 대해 파악할 수 있지만, 점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고 의견이 양극화되며 화제가 되었다. 서로 다른 가치관, 감정, 맥락,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깻잎을 떼 주는 것이 큰 잘못이라고 말하는 가스라이팅이 만연한 것은 아닌가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는 지금, 언론 또는 대중여론으로부터 일관된 생각을 주입받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 주입받은 생각에 대하여 아무런 성찰이 없지는 않았는가?



1 괴벨스의 대중문화 선동술

괴벨스는 대중문화를 이용하여 히틀러를 신격화하고 그의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데 일조한 인물이다. 오늘날 괴벨스의 대중 선동은 정치적,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대중문화의 선동이 대중을 획일화시킴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쓰인다. 우민화된 대중은 지배체제에 저항하지



못하고 현실에서 도피하며 지배체제가 영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괴벨스의 선동 이론과 유사한 국내 사례로는 1980년대 전두환의 3s 정책(섹스(SEX). 스포츠(SPORTS), 스크린(SCREEN)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독재정권이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즐겨 쓴다는 정책-네이버 지식백과)이 있다.

2 하버마스가 제안한 공적 토론의 장

여기 독일인들의 유대인 학살 사건을 경험하며 왜 지성인들마저도 획일화되어 박해에 동참했는지 고민하고 나름의 답을 찾으려 했던 사상가, 하버마스가 있다. 그는 제노사이드 사건을 통하여 대중매체가 대중을 우민화시키고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공공적 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토론이다. 국민은 공적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토론하며, 국가는 그 논의 결과를 정치와 행정 영역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3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버마스의 주장과 괴벨스의 사례를 근거로 볼 때, 깻잎을 떼줘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열을 올리며 논쟁하는 것은 우리 삶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당장 시급히 관심을 기울이고 논쟁이 필요한 사안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쟁, 환경파괴, 불공정, 가난, 세계 주가 폭락 등의 중요한 사회 문제이다.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육전문대학원 설립, 교·사대 통폐합 등 예비 교사의 앞날과 직결된 중요 공적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 없고 깻잎에 온 신경이 집중된 것은 아닐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왜 나는 조그만 일에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에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을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만을 증오하는가

(중략)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정말 얼마큼 작으냐.....

- 김수영, 〈어느날 고궁을 나오며〉

부당한 공적 사안에 대하여 지식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속세의 작은 부당함에만 열을 올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했던 김수영 시인 <어느날 고궁을 나오며>처럼, 예비 교사인 우리들도 비판적 사고를 갖추고 성찰적으로 사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만날 제자들에게 리터러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사로 성장하기를 응원한다.



글씨체를 통해 성격을 알 수 있을까?

편집위원 김민혜

사람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외모, 성격, 말투? 한 사람을 나타내는 고유한 지표란 셀 수 없이 많다. 여기 사람마다 또 다른 특색을 지닌 것이 있다. 바로 '글씨'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고유의 글씨체를 가지고 있고, 글씨체의 특성 또한 모두 다르다. 일각에서는 필체가 남긴 흔적을 통해 사람의 성격, 성향, 심리 상태 등을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의 고유한 글씨체, 성격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① 필적학(Graphology)이란 무엇인가?

'필적학'이란 사람의 성격과 필체를 통해 그 사람의 심리적 특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필적학은 크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나뉜다. 글씨를 쓸 때 동작의 행동을 연구하는 **생리학적·심리학적 연구**, 필적과 성격의 관계를 연구하고 응용하는 **필적심리학**, 필적에 의한 개인 식별의 연구와 활용을 다루는 **필적감정**이 있다.

손글씨로 성격이나 심리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다른 신상 정보까지도 유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혹자는 필적학을 유사과학으로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적학의 실생활적 쓰임을 안다면 유사과학이라는 판단을 미룰 수도 있을 것이다. 필적학은 **의학적으로** 치매와 같은 신경학적 병리학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사용되며, **교육적으로는** 난독증과 같은 학습 장애를 판단하는 지표로써 활용된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필적감정을 범죄 수사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필적은 변화무쌍하다는 점, 그리고 식별을 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다는 점이 있다. 이에 필적 분석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식견을 제공해 판단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가능성을 유추한다는 관점에서 필적학을 바라본다면 그 의문은 해소될 것이다.

② 필체별 특징 소개

필적학은 8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추출해 낸다. 필적학에서 필체는 글씨의 크기, 경사도, 형태, 압력, 손도, 방향 등 여러 복합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분석된다.

특징	추출되는 정보
글씨의 크기	자신의 이미지, 자신감의 지표
글씨의 경사도	정서적 건강, 진취성, 사물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 직관력과 논리성
글씨의 형태	문화적 수준, 지적 수준, 미적 감각
글씨의 압력	활력 및 건강
글씨의 속도	정신적 민첩성, IQ
글씨 선의 방향	현재 감정의 상태
연결된 문자 또는 개별 문자	의사소통능력, 정서적 건강, 타인과의 관계
점의 모양	관심사와 정확성
기타	대문자, 소문자의 활용, 띄어쓰기, 서명 등

③ 나의 글씨는 어떤 성격? 재미로 알아보는 글씨 심리 테스트

손글씨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11가지를 통해 당신의 성격을 읽어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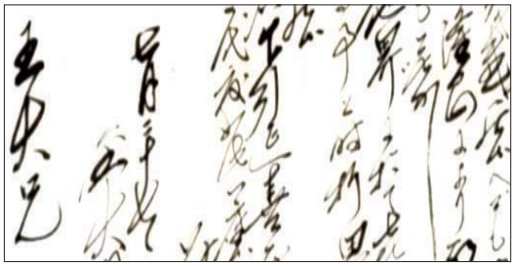
눌러쓰는 정도	**옅음** : 내성적이며, 잦은 충돌이나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한다.
	보통 : 균형을 잡을 줄 아는 사람이다. 감정 조절에 능하고 인지력이 뛰어나며, 기억력이 다소 높은 편이다.
	짙음 : 열정이 뛰어나지만, 이에 반해 예민한 성격이다.
치우친 방향	**올라감** : 낙관적이며, 대인관계가 좋다.
	물결형 : 확신이 없고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손글씨를 안 쓴지 오래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내려감 : 용기와 힘이 부족한 사람이다.
세로줄	**왼쪽으로 치우침** : 자제력이 뛰어나다. 이기적인 성향이 강하며, 속내를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수직으로 내려감 : 올곧고 냉담한 성격을 드러낸다. 감정 조절에 능하다.
	오른쪽으로 치우침 : 따뜻하고 열린 마음의 소유자라 볼 수 있다. 활기가 넘치고 자신감이 확고하다.
글자 간격	**좁은 간격** : 내성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이다.
	넓은 간격 : 자립심이 강하고 인심이 후하다.
시작 글씨	**크고 화려한 첫 글씨** : 자부심이 넘치며 활기,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인정 욕구가 강하다.
	또박또박한 첫 글씨 : 과묵하고 겸손하다. 때로는 확신이 없는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끝맺음 글씨	**날리는 끝맺음 글씨** : 의지가 강한 편이며, 눈치가 부족하다.
	다른 글씨와 비슷한 끝맺음 글씨 : 타협 및 협상에 유동적으로 대처하며, 타인의 말에 쉽게 마음이 동한다.
글자 크기	**큰 글씨** :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즐기며, 자존감이 높다. 타인의 구속을 선호하지 않는다.
	작은 글씨 : 내성적인 성향이 강하며, 검소하다.

단순 테스트에 불과하므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가볍게 여기고, 정보를 선별해서 확인하기를 추천한다. 필자의 글씨는 눌러쓰는 정도가 옅고, 글자 크기가 작으며, 시작 글씨가 또박또박하며 글자 간격이 좁다. 필자의 내성적인 성격에 빗대었을 때 필체별 특징이 어느 정도 맞았다. 당신의 글씨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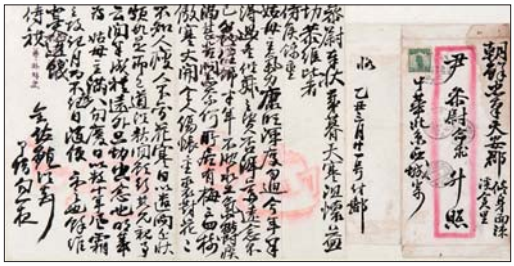
④ 다른 사람들의 필체를 분석해 보자!

독립운동가의 글씨 VS 친일파의 글씨

구본진 필적학 전문가는 친일파와 독립운동가의 글씨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독립운동가의 글씨는 우선 크기가 작으며, 글씨를 쓰는 속도가 느리고, 행간이 좁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에 반해 친일파의 글씨는 큼지막하고, 속도가 빠르며, 글자가 많이 겹치는 형태를 보인다. 독립운동가는 보수적이며 공손하고 검박한 특성을 지닌 사람이 많아 전자의 글씨 특성을 보인 것이며, 친일파는 과시적이고 사교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이 많아 후자의 글씨 특성을 보였다는 주장이다. 또한, 친일파 글씨의 글자가 겹치는 이유는 불안정한 심리를 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일파의 글씨



김좌진 독립운동가의 글씨

출처 : 연합뉴스

직업별 글씨의 특징

연예인들의 사인(sign)을 보면 시작 부분을 크게 쓰는 경향이 있다. 이는 남들 앞에서 서고자 하는 욕구, 과시욕이 큰 특징을 드러낸다고 한다. 자연과학 계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작고 정밀하며 규칙적인 글씨를 쓴다. 정치인들은 위아래가 길고 마지막 획이 길게 늘어지는 글씨가 많다. 끝맺음 글씨의 분석에 의하면 이 글씨는 타인과 상호작용한다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명예에 대한 욕구가 드러나는 글씨임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글씨'라는 지문**이 있다. 이 말인즉슨, 글씨는 지문처럼 '고유성'을 지닌 인간의 또 다른 지표라는 것이다. 글씨는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선이기에, 하루아침에 필체를 바꾸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 필체는 우리의 성격이 변화하듯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필체는 내 마음의 안녕을 물어볼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이 될 수 있다. 나만의 진정한 색채를 담은 마음의 지문, 필체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2023 통권 55호

6

PEOPLE



들어는 봤니? #급식스타그램

커튼콜: 조국을 지킨 영웅, 안중근

들어는 봤니? #급식스타그램

편집위원 이수아
수습위원 김민선

마라탕, 피자, 보쌈, 스테이크…. 매 급식이 기대되어 학교에 간다는 학생들. 일명 '급식스타그램'을 운영하며 영양적으로나 비주얼적으로나 더 나은 급식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여기에 있다. 급식스타그램의 주인공, 영양사 선생님을 함께 만나러 가보자!



10.4k 급식스타그램이란?

'급식스타그램'은 '급식'과 '인스타그램'이 합쳐진 단어로, 급식 메뉴와 사진을 SNS에 올려 소통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이유가 급식이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급식에 대한 기대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수많은 급식스타그램 사례를 통해 급식의 질이 웬만한 식당 또는 그 이상으로 좋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고 즐거운 급식 시간이 되도록 질 좋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시는 조리사, 영양사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이다.

급식 랭킹 TOP 3

1) 비주얼 급식





Instagram(jungsoomin07 & mingi0000)

2) 급식으로 세계 일주





Instagram(seul_ssam_& best.1001st)

3) 채식의 날과 함께 건강한 급식





https://naver.me/55nj0FiM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지 않는가? 조리사, 영양사 선생님들의 노고 덕분에 학생들은 맛과 비주얼, 건강까지 모두 갖춘 훌륭한 급식을 맛보고 있다. 지금부터, 좋은 급식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시는 영양사 선생님을 직접 만나보자!

영양사 선생님 인터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직영 영양사로 10년, 관공서 5년 그리고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5년 차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 정수민이라고 합니다.

급식스타그램을 운영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학교급식은 급식비 제공자(교육청), 피급식자(학생), 평가자(학부모)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루는 수박화채를 국 자리에 배식했는데, 저학년 학생이 학부모님께 수박국이 나왔다고 전달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회 용기에 담아서 제공했다면 학생들도 후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650개의 플라스틱 컵이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것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 자리에 배식함에 양해를 구하니, 인스타그램에 팔로우 되어있던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말하지 않아도 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급식스타그램 운영의 긍정적 영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급식에 대한 믿음과 만족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의 질문 중에는 '우리 학교 급식이 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학교 급식의 식재료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평가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조리 및 식재료가 들어오는 과정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식재료 검수 사진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식자재 표시가 있는 식재료를 공개하고, 고기류는 등급판정서와 입고 상태 등을 공개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님의 신뢰를 받아 만족도 조사에서 99% 이상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학교 급식은 매년 친환경 식자재 사용 비율을 8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한우와 돼지고기는 1등급 이상, 닭·오리 등 가금류는 무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급식 메뉴가 있었나요?

저희 학교의 자신 있는 메뉴인 '크림카레우동'입니다. '코나야'라는 일식 우동 전문점에서 직접 먹어보고 연구해서 만든 메뉴입니다. 코나야 식당에서는 오랜 시간 육수를 우려서 베이스를 하지만 학교급식에서는 오랜 시간 육수를 우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닭 다리 살과 양파를 버터에 볶은 후 분쇄기로 갈아서 베이스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록 과정은 다를지라도 맛은 우수해서 자주 제공하고 있으며,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생소한 메뉴이지만 저희 학교를 계속 다닌 고학년 학생들에게는 익숙한 인기 메뉴입니다. 그 외에는 TV 속 레시피를 재연해 보며 자주 영감을 얻곤 합니다. 최근에 '서진이네'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레시피로 식단을 구성했을 때, 학생들도 그 예능을 보면서 한 번쯤 먹어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메뉴가 급식에 나오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급식스타그램을 운영하시면서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급식스타그램을 통해 급식이 어떤 식재료로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왜 이런 급식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 급식의 소중함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에 만족도가 98% 이상 꾸준히 나오는 것에는 소통의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이라고 해서 저렴한 식재료로 한 끼를 때우고자 만드는 음식이 아닌 최고의 식재료로 정성껏 만든 것임을 알기에 급식 시간을 기다리고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스타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부정적/우려적 시선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이러한 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급식스타그램은 학생 및 학부모님과의 소통 공간이기도 하지만, 다른 영양사 선생님들께 레시피를 공유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한 직업을 20년 동안 하다 보니 저만의 노하우가 있고, 그것을 다른 영양사 선생님들께 공유하기도 한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올리는 글에 타 학교 학부모님께서 "우리 학교 급식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하여 다른 영양사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 때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입장에 있는 영양사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조심스레 급식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식이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영양교사들은 '교육 급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언론에서 피급식자들은 '강제급식'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 개개인의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먹게 하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권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양과 맵기, 밥의 종류 등을 고를 수 있게 하여 버려지는 양을 줄이고 학생들도 음식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급식에는 소중한 한 끼 식사를 책임지는 조리사, 영양사 선생님들의 많은 노고가 묻어나 있다. 급식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식재료를 경험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찾아간다. 이처럼 급식 또한 교육의 일부인만큼, 예비 교사로서 급식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급식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에 손을 모으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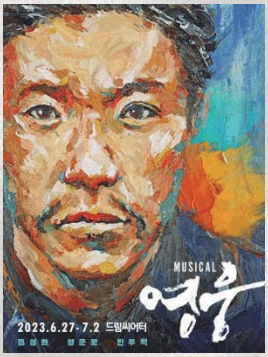
커튼콜: 조국을 지킨 영웅, 안중근

편집위원 이수아

'누가 죄인인가?' 뮤지컬 '영웅'을 보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한 번씩은 들어봤을 노래다. 과연 이 노래는 안중근의 일생을 얼마나 담아내고 있을까? 커튼콜, 그 막이 내린 후에도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질 안중근의 일생. 그의 삶을 비춘 작품들을 함께 살펴보자.



뮤지컬, 영화 '영웅'





"1909년 하얼빈의 총성,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시작된다."

대한 제국의 주권이 일본에 완전히 빼앗길 위기에 놓인 1909년. 동지들과 함께 네 번째 손가락을 자르는 단지동맹으로 조국 독립의 결의를 다진 안중근은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3년 내에 처단하지 못하면 자결하기로 피로써 맹세하고,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와 함께 거사를 준비한다. 한편 독립군의 정보원 '설희'는 이토 히로부미가 곧 러시아와의 회담을 위해 하얼빈을 찾는다는 일급 기밀을 다급히 전한다. 이토의 하얼빈행을 들은 안중근은 그를 암살하는 것만이 조선 독립의 길임을 다짐하고 동지들과 거사를 준비한다. 7발의 총알을 장전하고 하얼빈으로 향하는 안중근.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 7발의 총성이 울려 퍼진다.

'영웅'의 실제

'영웅' 작품에서 묘사된 안중근의 삶과 그를 둘러싼 인물, 사건, 배경은 모두 실제와 같을까? 안중근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인 만큼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꼭 던져보아야 한다. 오직 작품이 주는 감동만으로 실제와 다른 역사적 오류를 정립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뮤지컬, 영화와 실제의 차이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작품 내에서 독립군 정보원으로서 이토의 행보를 비밀리에 알리며 안중근 의사와 독립군들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에 힘을 실은 '설희'는 가상의 인물이다. '설희'는 명성황후의 시해 장면을 목격하고 일본에 건너가 게이샤로 변장하여 이토 히로부미의 환심을 산 뒤, 가까이서 그를 지켜보며 행보를 독립군들에게 보고한다. 실제로는 당대의 독립운동가인 '이강'이 안중근과 대동 공보사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였으며, 안중근이 의거에 성공한 후에는 안중근을 위해 영국인 변호사를 구하려 북경에 파견되어 활동하였다. 관람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독립운동가도 남성도 아닌 조선의 궁녀 '설희'라는 가상인물을 설정한 것은 작품의 예술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작품에서 설희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황후마마여', '내 마음 왜 이럴까' 등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며 작품에 깊이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설희의 울음 섞인 절절하고 애통한 넘버가 명성황후에 대한 애틋함과 이토 처단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드러낸다.

그 밖에도 왕웨이 표 왕만두를 떠오르게 하는 인물 '왕웨이'와 안중근을 짝사랑하는 그의 여동생 '링링'(영화에서는 '마진주') 또한 작품의 생동감과 흥미요소를 더하기 위해 설정된 가상의 인물이다.

뮤지컬, 영화 '영웅' 속 가슴을 울린 넘버

<제 1막>

#1 정천동맹 (단지동맹) – 안중근, 단지 11인

'나 이 순간 맹세하나니 비록 조그마한 일이나 이것은 결의의 시작이니 뜨거운 피로써 싸우리라'

'우리의 함성이 잠자는 숲을 깨우듯 어두운 이 세상 깨우리 잊지 말자 오늘'



#6 당신을 기억합니다 황후마마여 - 설희

'꿈에도 잊혀지지 않는 당신의 마지막 모습 눈 감으면 되살아나는 생생한 그날의 모습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잠들래야 잠들 수 없는 깊은 한숨 바람에 흩어지고'



<제 2막>

#30 누가 죄인인가 - 안중근, 우덕순, 유동하, 기자들, 방청객들

'나라를 위해 싸운 우리 과연 누가 죄인인가 우리를 벌할 자 누구인가 우리들은 움직였다'



#32 사랑하는 내 아들 도마 - 조마리아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도마야 떠나갈 시간이 왔구나
두려운 마음 달랠 길 없지만 큰 용기 내다오'
'멈추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큰 뜻을 이루렴'



#33 장부가 - 안중근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



노래 '만세'-비와이, 양세형

우리나라의 역사가 대중음악, 특히나 외국에서 전래된 힙합과 접목되는 것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무한도전 <위대한 유산> 특집에서는 힙합과 역사를 한 그릇에 담아내는 '힙합 X 역사 프로젝트'를 방영하였는데, 여러 위인들의 삶을 노래 가사에 담아내어 그들의 삶을 느끼고, 이해하며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노래는 안중근 의사의 삶을 중심으로 담아낸 '만세'라는 곡이다. 개그맨 양세형과 래퍼 비와이가 참여한 이 곡은 자신의 목숨과 후손들의 미래를 맞바꾼 안중근 의사의 삶을 재치있고 현대적인 가사로 풀어내었다. 무대 구성과 함께 살펴보면 더욱 노래를 즐길 수 있는데, 실제 뮤지컬 '영웅'의 출연진들이 백업 댄서로 등장해 안중근과 그 의열단의 모습을 담아내고자 했다. '만세, 코레아 우라!'라는 가사를 외치며 마침내 이뤄낸 대한 독립의 기쁨을 관객들과 함께 만끽하는 무대 현장이 우리 민족의 마음 한편을 뜨겁게 한다.

"만세 우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
만세 밝은 내일을 향해 오늘도
만세 난 자유를 위해 춤을 춰"

노래 만세 中

이처럼 독립운동가 안중근의 삶은 여러 대중예술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독립된 조국에서 편히 잠들고 싶다던 그의 마지막 소원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이렇게라도 그가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외친 뜨거운 열정과 민족의 울음을 기억하길 바라며 커튼콜의 막을 내린다.

"우리들의 외침 세상이 들으리라
민족의 울음, 뜨거운 열정,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그날을 기억하며 中

2023 통권 55호

7

SPECIAL

사향지기

기자's pick!

23학번 새내기를 소개합니다.

기자's pick!
사향 기자의 '인생 영화'는?

편집국장 홍다혜

때로는 기쁨과 슬픔, 때로는 이름 모를 감정을 선물하며 우리의 삶을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영화. 그중 삶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친 영화를 우리는 '인생 영화'라고 부른다. 영화의 등장인물, 대사, 장면 등 우리에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이유와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각자의 개성과 취향이 담긴 사향 기자들의 선택이 궁금하다면 주목하자. 기자's pick! 에서 사향 기자들을 사로잡은 '인생 영화'를 소개한다.



[포레스트 검프]

편집위원 장진주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야. 어떤 것을 가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너무 앞만 보고 달려서 지쳤을 때, 생각이 너무 많아질 때, 그리고 힐링이 필요할 때 매번 찾게 되는 영화이다. 어린 시절부터 지능과 신체가 평범하지 않았던 포레스트 검프는 다양한 위치와 삶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매번 최선을 다하며, 순수한 영향력으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나간다. 꿈 많던 어린 시절의 나는 어디로 갔는지... 어른이 된 지금은 그저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갈 때도 많다. 어떤 일을 시도해 보기도 전에 "안돼"라고 단정 지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패'의 두려움 속에 숨어 선택과 결정을 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지 스스로를 반성해 볼 수 있었다. 인생의 교과서라고 말하기도 부족함 없는 이 영화, 행복을 찾고 싶은 당신에게 추천한다! 포레스트 검프를 마주하며 마음 깊숙이 따뜻함과 아름다운 희망을 느껴보길 바란다.

[인사이드 아웃]

편집위원 김민혜



"감정은 포기되는 게 아니야."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익히 아는 가사처럼, 우리는 때때로 내면의 감정 소용돌이에 부딪힌다. 왜인지 도통 이유를 모르겠을 때 영화를 본다면 명쾌한 해답이 나올 것이다. 영화에서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유를 내면의 다양한 감정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빗대어 그려낸다. 다섯 가지의 감정들이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나를 위해주는 소중한 감정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감정들이 무심코 넘길 사소한 감정들이 아니었다는 깊은 메시지를 전한다. 영화 속 까칠이의 말처럼, "감정은 포기되는 것이 아니다." 영화는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 더 나아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려준다.

[인생은 아름다워]

편집위원 윤채원



"그냥 생일 아니고 마지막 생일! 애 니들은 내 생일에 선물도 안 하냐?"

가끔 엄마의 존재가 내 삶에 너무 당연하게 스며들어 감사함을 잊는 순간이 있다. 무뚝뚝한 남편, 무심한 아들과 딸을 위해 온 삶을 희생한 '오세연'은 폐암을 진단받고 남은 삶은 더 이상 아내로서, 엄마로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그들의 추억을 엿보고, 스며든 사랑을 찾아 나의 엄마, 아빠를 떠오르게 하는 영화. 아는 내용임에도 같은 장면에서 항상 눈물이

나는 것은 아직 나는 부족한 자녀였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가족에게 아끼지 않아도 되는 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하고 마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쉰들러 리스트]

편집위원 정민우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세계를 구한 것이다."

1939년 독일인 사업가이자 냉철한 기회주의자인 '오스카 쉰들러'는 독일 간부들을 배수하여 유태인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을 인수한다. 이렇게 일확천금을 꿈꾸며 사업을 진행한 그는 나치의 학살이 점점 더 극심해짐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 그는 자신의 공장을 운영할 인부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걱정하게 되면서 홀로코스트의 참혹한 실상을 마주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 자신에게 쥐어지는 돈보다 한 생명의 가치가 더 귀함을 깨닫게 된 그는 강제 노동 수용소로 이송되는 이들을 구할 '쉰들러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한다. 평점과 별점이라는 틀 안에 절대 가둘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최고의 걸작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꼭 느껴보시기를 바란다.

[리틀 포레스트]

편집위원 이수아



"삶의 해답을 찾는 사계절의 시간"

바쁜 일상에 치여 계절을 느끼지 못했던 우리의 삶. 주인공은 흙냄새와 바람, 햇볕, 그리고 자연이 주는 수확물을 음미하고 변화하는 사계절의 자연을 느끼며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낸다. 주인공은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교사를 꿈꿨던 학생이었기에 그 삶이 더욱 와닿는다. 온전히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삶을 바라보며 잠깐이나마 힐링할 수 있게 한다.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이라도 괜찮은 우리. 이 영화의 제목처럼 나만의 작은 숲을 찾아보자. 진짜 나의 행복을 쫓아가자.

[미 비포 유 (Me Before You)]

수습위원 김민아

"You are pretty much the only thing that makes me want to get up in the morning."

극 중 '루이자'를 연기한 에밀리아 클라크 배우의 다채로운 표정 연기가 매우 인상적인 이 영화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순간의 사고로 인해 전신마비가 되어버린 유능한 기업가였던 '윌'은 '루이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존엄사를 택했다. 그렇다면 이 결말은 '루이자'가 '윌'의 선택을



돌리지 못했으므로 새드엔딩일까? 누구보다 자신의 삶을 사랑했기에, 현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본인의 처지를 증오하는 '윌'의 입장에서는 해피엔딩일 수도 있지 않을까?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존엄사'와 인생의 가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 영화를 인생 영화로 소개하는 바이다.

[엘리멘탈]

수습위원 배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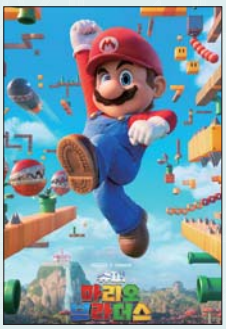
"영원한 빛은 없으니 빛날 때 만끽해야 해."

불, 물, 공기, 흙 4가지 원소들이 살고 있는 '엘리멘트 시티'.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색감과 4원소의 매력적인 표현력, 재치있는 개성을 느낄 수 있는 도시 속에서, 불 원소 '앰버'와 물 원소 '웨이드'가 우연히 만나 서로에게 빠져들어 일생에 없던 경험을 하게 된다.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함께하기까지 나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앰버와 웨이드처럼, 여전히 존재하는 불편와 편견들을 수면 위로 꺼내들어 그것을 바꿔 나가려 노력하고 세상 속 서로 다른 존재들의 우정과 사랑이 성공적으로 끝맺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2023]

수습위원 김도아



"피치: 당신은 포기를 모르는군요?, 마리오: 다들 그게 내 단점이라던데요., 피치: 아뇨, 엄청난 장점이죠."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는 화려한 그래픽과 몸을 들썩이게 만드는 흥겨운 음악, 귀여운 캐릭터들이 가득한 애니매이션이다. 이 영화의 특별한 매력포인트는 등장인물들 각자의 서사와 성격이다!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인물들과 러닝타임 내내 함께하다보면 어느새 함께 웃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꿈을 위해 망설임없이 좋은 조건이나 직장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용기, 나보다 덩치가 3배는 큰 강자에게도 비굴하게 굴지 않는 패기, 내 자신이 지쳐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다시 일어나볼 강인한 내면의 동기가 필요하다면 이 영화를 추천한다.

*사진 출처 : 다음영화 (https://movie.daum.net/main)

23학번 새내기를 소개합니다

서울교대 입학을 축하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한 23학번 새내기들과,
각 새내기가 속한 13개의 학과를 소개합니다.

수습위원 김도아





윤리교육과

- **별칭 : 10간지율리 율레전드 · 이모티콘 :** 🧐🏛️
- **과 구호 :** 철학도 락이다!! 율리율리율리!!
- **새내기의 한마디 :** 윤리, 세계의 암묵적 규칙



국어교육과

- **별칭 : 열정국어과 · 이모티콘 :** 📚💛
- **과 구호 :** 열정국어 어이어이어이
- **새내기의 한마디 :**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



사회과교육과

- **별칭 : 사랑과 · 이모티콘 :** 🍎❤️
- **과 구호 :** 사회과! 사👏 사회과! 랑👏
사랑의 힘으로! 어이!어이!어이!
- **새내기의 한마디 :** 선후배 관계도 최고! 공부도 최고! 다 짱먹는 우리 사랑과 🍎 언제나 사랑해 ❤️



수학교육과

- **별칭 : 최강수학과 · 이모티콘 :** 💙🙈🔪🔵
- **과 구호 :**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수학과 만나느라 솩솩솩~
(하나둘) 최강수학 파이팅!!
- **새내기의 한마디 :**
Q. 수학과는 계란 한판 사면 29개밖에 안들어있다면서요?
A. 그야 당연하죠. 수학과에게 '한계란' 없으니까요



과학교육과

- **별칭 : 우주최강과학과 • 이모티콘 :** 🦆🚀✨🪐🛸🔭☄️
- **과 구호 :** 우리가 누구???!!!
  우~주우주우주 최!강!과!학!
- **새내기의 한마디 :** 꽥꽥



체육교육과

- **별칭 : 무적체육 • 이모티콘 :** 😎👊🔥🖤
- **과 구호 :** 아 힘! 아힘!…
- **새내기의 한마디 :** 제육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



미술교육과

- **별칭 : 감각미교 • 이모티콘 :** 🎨🌿
- **과 구호 :** 아 감각! 아 미교! 아 감각미교! 어이!✊
- **새내기의 한마디 :** Just as the sun colors flowers, art colors life.



생활과학교육과

- **별칭 : 생과탱 • 이모티콘 :** 🍎
- **과 구호 :** 아생! 아생 아생 아생과탱~
- **새내기의 한마디 :** 하하 생과입니다.



초등교육과

- **별칭 : 근본초교과 · 이모티콘 :** 🌱🌱
- **과 구호 :** 치키치키차카차카초교초교초
- **새내기의 한마디 :** 초교과 Pom Michutda



영어교육과

- **별칭 : 잉블리 · 이모티콘 :** ❤️
- **과 구호 :** 블링블링 잉블리 가보자고
- **새내기의 한마디 :** 더욱 붉어라 영어!



컴퓨터교육과

- **별칭 : 최강컴과 · 이모티콘 :** 🖥️🤍🖤
- **과 구호 :** come with com
- **새내기의 한마디 :** 컴과와 함께 컴피 한잔 할래요~



유아·특수교육과

- **별칭 :** 🌸You Are Special🌸 **· 이모티콘 :** 🌸🌸
- **과 구호 :** 살아있네, 살아있어! 유.아.특.수!
- **새내기의 한마디 :**

내 장점이 뭔지 알아, 바로 🌸유특🌸인거야!
유특과, 다들 왜 이렇게 멋있어요
전부 사랑하는거 알죠?



음악교육과

- **별칭 : 낭만음교 · 이모티콘 :** 💚🎵💚
- **과 구호 :** 우리 새내기 누가 이렇게 예쁘게 낳았지?
  우리 음과음과가 음과음과가~~
- **새내기의 한마디 :** BTS 봉준호 손흥민 음과 이장은
  let's go

앞으로의 서울교대에서 활짝 피어날 23학번을 응원합니다.

편집후기



편집국장 홍다혜

부푼 마음을 안고 수습위원으로 사향지기에 들어오게 된 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편집국장의 자리에 앉아 사향지기와 함께하고 있네요. 사향지기는 저의 대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며 자부심입니다. 편집국장으로서 자리하게 된 이번 학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막막했지만 부족해도 항상 저를 응원해주는 사향지기 기자님들 덕분에 한 학기를 무사히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서툴지만 저를 믿고 따라와 준 편집위원과 수습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항상 사향지기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재밌는 글로 다가가기 위해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55호는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들이 담겨있으며 각 기자님들만의 기사 스타일을 집중해서 읽어본다면 더 재밌게 읽힐 것 같습니다. 사향지기의 다채로운 매력이 독자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위원 장진주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사향지기에 첫발을 내디뎠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사향지기의 최고참이 되었네요... ㅎㅎ 새로운 후배 수습 기자님들과 함께 한 1학기는 또 색다른 즐거움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번 사향지기 55호에서는 '새로움'을 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Info 분야의 쇼트트랙 관련 기사에 도전해 보았고, 새내기 관련 기사에서는 설문조사, 인터뷰를 진행하며 마치 새내기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은 가슴 아림을 느꼈습니다. 매번 써오던 Culture 분야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역사를 드디어 다루었는데, 독특하고 정겨운 컨셉과 필체로 우리 역사를 독자님들께 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늘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지만, 그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나날이 성장해 가는 제 자신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해봅니다.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신 모든 사향지기 기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55호 교지 발간을 앞두고, 동기들과 약 2주가 넘게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다녀오니 새로운 기사 아이디어가 마구 샘솟는 것 같습니다. 2학기에도 더욱 다채로운 내용의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향지기에 많은 관심을 바라며 이만 편집후기를 마칩니다.



편집위원 진승원

벌써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2학기를 바라본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네요ㅎㅎ 이번 55호에서 제가 맡은 주제들은 영어교사, 서울교대의 역사, 그리고 Chat Gpt였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향지기를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슬픈 것 같습니다.

떠나는 날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지금보다 더욱 잘하겠습니다!! 같이 기사 쓴 수아 기자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수고 많으신 국장님께 정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1학년 기자님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사향지기에 들어와줘서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사향지기 독자 여러분! 어느덧 사향지기와 함께 한지 2년하고도 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교지를 앞둔 지금 그동안 썼던 기사들을 보며 뿌듯한 마음도 아쉬운 마음도 공존합니다. 교지가 하나씩 발행할 때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간 기분입니다 유난히도 더 지쳤던 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독자님들께 항상 행복이 깃들길 바라며 소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발전할 사향지기도 더욱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위원 한혜림



편집위원 김민혜

사향지기 편집위원으로서 발돋움한 1학기가 지나갔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글이 있는 이곳 사향지기에서, 문리를 터득하며 뜻깊은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신비한 학급경영 사전', 'MBTI 환영? 환영(幻影)!', '글씨체로 성격을 알 수 있을까?' 기사를 실으며 기자로서 저의 색채를 더욱 뚜렷이 할 수 있었습니다. 'MBTI 환영? 환영(幻影)' 기사를 공동 집필한 존경하는 민우 기자님, 곁에서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의미 있는 한 학기를 만들어주시고, 사향지기를 빛내주신 모든 기자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대학교의 소중한 나날을 전하겠습니다!



편집위원 송태영

2023년의 통권 55호 교지가 발간되었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의 큰 행사인 새내기 배움터와 어린이 한마당 축제를 다루며 사향인의 모습 및 그 현장감을 교지에 담았습니다. 또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와 관련하여 주목받는 받아쓰기 교육과,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만 나이 통일에 관해 기사를 작성하여 시의성 있는 기사를 싣고자 했습니다. 사향지기 부원들과 교류하고 활동하며 저 또한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함께 기사를 작성해주신 민아 기자님, 민영 기자님, 민우 기자님, 그리고 도움을 주신 모든 사향지기 가족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임기의 반을 마친 지금, 어떻게 하면 삶의 울림을 전하는 사향지기가 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독자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위원 윤채원

유난히 더운 여름날, 사향지기 55호 교지가 여러분께 전해집니다. 팔을 다치게 되어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던 기사였지만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사향지기 부원들 덕분에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함께 기사를 작성한 혜림, 수아 기자님께 특히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매 교지를 내며 하나라도 더 성장하고 배우기 위해 도전하고 노력하자 다짐하곤 합니다. 이번 교지에서는 서로 다른 세 분야에서 글을 작성하면서 폭넓은 이야기를 전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넓은 세상의 더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는 사향지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위원으로서 제 이름이 실려 발간되는 첫 교지이니만큼 설레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55호 교지는 제게 다양한 소통을 경험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뮤지컬 작품을 소재로 삼아 단독 기사를



편집위원 이수아

작성하며 역사와 소통하고 이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선배 기자님, 동기 기자님, 그리고 사향지기에 들어와 처음으로 선배의 자리에서 후배 기자님과 공동 기사를 작성하며 혼자서가 아닌 함께 끊임없이 기사의 방향에 대해 소통하고 독자님들께 저희가 바라보는 세상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편의 기사를 무사히 완성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기사를 완성하고 나니 우려했던 기억은 잊어지고 뿌듯함만 남아 있습니다. 어느덧 세 번째 교지를 손에 쥐며, 교지는 한 학기 동안의 저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사향지기와 함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위원 정민우

작년에 수습위원으로서 풋풋한 마음을 가득 안고 첫 교지를 발행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편집위원의 자리에서 이번 55호 교지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지를 발간하면서도 저의 부족함이 여실히 느끼기도 하였지만, 차분하게 한 걸음씩 내디뎌 무사히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실을 거두는 데 있어, 글에 강한 울림을 담아내는 민혜 기자님과 글에 자기다움의 힘을 고이 드러내는 태영 기자님을 비롯해 모든 기자님의 정성스러운 피드백이 큰 힘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기자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글로 표현한 생각의 힘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말로서, 기사를 쓸 때마다 항상 되뇌인 글귀였습니다. 글에 진한 울림을 더하기 위해,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자 하는 저의 다짐이 묻어나는 말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사향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글을 쓰기 위한 다양한 생각과 사색에 잠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향지기에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습위원 김도아

학교에 입학해 교지를 읽고 사향지기 면접을 준비하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어엿한 수습위원으로서 첫 교지를 펴내게 되었네요. 꿈꾸던 곳에서 마음껏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한 나날입니다. 기사 주제선정부터 작성, 디자인까지 과정 하나하나 새롭게 배워가는게 많았던 첫 기사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사가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 주신 사향지기 식구들과 사랑하는 체육과 동기들, 한학기 동고동락한 배구부 폴짝 ecu 테니스 선배님 동기님과 부족한 새내기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신 학우님들,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세미한 반짝임과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부드러운 울림 덕분에 제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다른 파원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반짝일 다음 기사 기대해주세요!



수습위원 김민선

사향지기와 함께 저의 첫 대학 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사향지기 부원들과 함께 동방에 모여 아이디어 회의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기사 기획, 원고 작성, 피드백, 디자인 수정을 지나 한 권의 교지를 마무리 짓고 편집 후기를 쓰고 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교지를 완성해 내기까지 여러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향지기 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들어는 봤니? #급식스타그램' 기사를 작성하면서 수아 기자님의 따뜻한 가르침 덕분에 저의 단독 기사 '기억하나요, 당신의 한 학기', '맛있지만 해로운 스낵컬처-솟폼' 도 큰 어려움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이번 교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고, 기사에 쓰일 사진을 모으면서 저의 첫 대학 생활을 더욱 아름답게 추억할 수도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추억을 안겨주신 사향지기 가족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면서 2학기 때에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수습위원 김민아

한 학기 동안의 대학 생활 중에서 가장 뜻깊게 활동했던 사향지기의 수습기자로서 첫 결실을 맺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봄 향기 가득 맡으며 사향지기 입부 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보던 순간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파릇파릇함이 묻어나는 더운 무더위 속에서 첫 교지 발행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막막해하던 시간도 있었지만, 사향지기 선배님들과 동기들의 따뜻한 격려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잘 보듬어 주시고 한껏 웃으며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한가득 안겨주신 사향지기의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의 기사를 기대해 주시고 옆에서 아낌없는 응원과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며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사향지기 파이팅!



수습위원 배민영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한 대학생활의 처음을 사향지기와 함께하였습니다. 직접 고른 주제에 대한 기사의 첫 문장을 써내려갈 때의 설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정성들여 쓴 글에 대한 편집위원 선배님들의 따뜻한 피드백과 수습위원 기자님들의 진심어린 응원 덕분에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생각을 써내려간 글을 공유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떠올려보며 '글'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사향지기를 읽으며 글 속에 숨어있는 메세지를 찾으셨다면, 그에 대한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기사를 써내려가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습위원 봉지원

사향지기에 들어오고 처음으로 발행하게 된 교지라서 이번 55호는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때부터 해왔던 기사 쓰기를 대학생이 되어서도 이어가면서, 더욱 폭넓은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특히 같은 예비 교사로서 사향인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를 다루며, 학우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이번 교지를 통해 학우들이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즐겁고 발전적인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사향지기
2023년 55호
발 행 인 임채성
편집주간 백재연
편집국장 홍다혜
편집위원 장진주
진승원
한혜림
김민혜
송태영
윤채원
이수아
정민우
수습위원 김도아
김민선
김민아
배민영
봉지원
발 행 처 서울교육대학교 미디어센터 교지편집위원회
발 행 일 2023년 8월 10일
디 자 인 (주)서울멀티넷



청춘은 우리의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
– 롱펠로우

서울교육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교 지 편 집 위 원 회